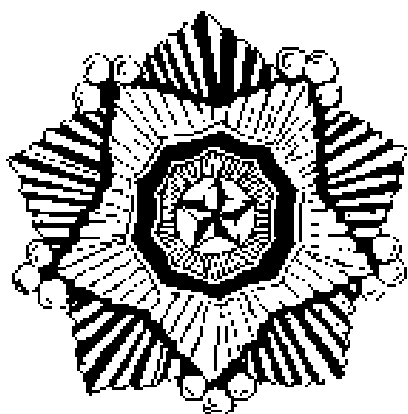




6

주체 92 (2003)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2(2003)년 제6호

(루계 제 668 호)

◆◆◆◆◆◆◆◆◆◆ 차 례 ◆◆◆◆◆◆◆◆◆◆

당중앙정원에 푸른 숲 설레네	4
총대는 무엇을 속삭이는가	4
자남산은 노래한다	5
비범한 예지의 빛발이 낳은 수령승배의 빛나는 정화	17
우리의 최고사령관이 계시는 곳	19
병사는 고향의 아들	19
수령님추억속에(1)	20
운명의 밤	20
결사각오의 투지가 맥박치는 전투적랑만의 서정	21
수령님추억속에(2)	22
수령님추억속에(3)	23
연포리의 함박눈은 뜨겁다	23
어머니의 당부	24
《고난의 행군》과 작가	34
영원한 려장	38

소설가의 모습	39
맑은 그 눈동자들에	48
제일입니다	48
단편소설의 흥미와 묘사의 속도감문제	49
분홍저고리 내 누님네들	53
한생의 밀천	54
강선땅 집집마다... ..	64
강선의 추억	64
아버지의 발자욱	65
평범한 생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속에서	66
《광활한 미래는 위대한 노력을 요구한다.》	70
남강마을사람들	71
《고양이목에 방울 달기》	72
해방전 력사소설 《무영탑》과 작가 현진건	73
탄광마을처녀들의 속삭임	75
나는 봄을 부른다.....	76
미국코	77
가곡 《아름다운 물방아간의 처녀》에 깃든 이야기	78

당중앙정원에 푸른 숲 설레네

-한 일군의 추억-

김선지

그날도 당중앙위원회청사
크지 않은 정원에는
아직도 봄의 향기 짙은
여름날의 푸른 숲이
가볍게 설레이고 있었다

20대의 청년장군 **김정일**동지
소문도 없이 격식도 없이
조용히 당중앙위원회에 오신
그날은 1964년 6월 19일

그날은 너무나도 쾌사로운 날이었다
너무나도 평범하게
첫 출근길에 오르신 그이를
미처 알아 뵈지 못한 그날은

허나 그날부터 당중앙청사안에는
새로운 공기가 감돌았다
패기와 정열에 넘치신 그이 모습이
우리 당사업의 참신한 미래를 안아 왔다

정원길을 산책하시는
어버이수령님 따라 서며
우리 당사업의 개선을 의논하시던
장군님을 우러를 때면

우리 일군들의 마음속엔 벌써
그이가 스승으로 지도자로 자리 잡았다

그이께서 당사업에 활력을 부어 주시니
나라의 모든 사업이
수령님의 뜻대로
눈 부신 활기를 띠었고
우리 인민의 심장속엔
수령복, 후계자복의 공지가
초석으로 다져져 있었다

아, 그날의 장군님 환하신 웃음속에
룡성번영하는 오늘이 꽃피었고
열정에 넘치던 그이의 음성
오늘은 우리 혁명의 진군나팔소리로
힘차게 울리거니

당중앙정원의 푸른 숲은
오늘도 그날의 영광을 말하여 주네
장군님은 조선의 운명이시고
승리의 기치라고
우리의 기상은 푸르싱싱한 숲과 같아
21세기 태양이 빛나는
조선의 앞날은 창창하다고

가사

총대는 무엇을 속삭이는가

박고려

동트는 전호가 한밤 지셀 때
총대는 무엇을 속삭이는가
장군님 웅위할 심장 불타라고
맹세의 순간에 나를 세우네
아 총대 총대 결사의 총대

산 넘고 들 지나 행군길 갈 때
총대는 무엇을 속삭이는가
원썩들 언제나 우릴 노린다고

격동의 순간에 나를 세우네
아 총대 총대 선군의 총대

험난한 싸움길 눈앞에 두고
총대는 무엇을 속삭이는가
피 뿜는 세대의 결산 치르라고
결전의 순간에 나를 세우네
아 총대 총대 장군님 총대

자남산은 노래한다

박일명

1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는 동지를 며칠 앞둔 새벽추위로 하여 짜랑짜랑해진 대기를 헤가르며 조용히 미끄러져 가고 있었다. 자강도로부터 평안북도 일대로 이어진 여러 날에 걸치는 현지도도 로정은 추위로 하여 순탄치 않은 길이었으나 잠시의 휴식도 없이 또다시 《궤》지구로 이어 가시는 그이이시였다.

보이는것은 푸릿한 하늘을 배경으로 솟아 있는 우중충한 산발이요 끝은 끝마다 먹물을 담고 있는듯 어디가 어딘지 대중할수 없는 심연의 어둠뿐이었다.

그이의 옆에는 당중앙위원회 한 책임일군인 김성훈이 그이께서 잠시나마 차안에서라도 쉬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송구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 한밤중에 이렇게 평양을 떠나게 된것이 자기때문이라는 죄의식이 지금껏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는 그였다.

김성훈이 승리자동차종합공장 실패자료를 가지고 그이의 집무실로 간것은 밤 1시경이었다.

집무실에는 최근 긴박한 정세에 대처한 중요한 문제를 토의하던 중인지 여러명의 인민무력부 책임일군들이 그이의 앞에 정중히 서있고 군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불과 몇명에 지나지 않았다.

《어서 오시오. 이렇게 밤 늦게 불려서 안됐소. 건강은 어떻소?》

그이의 다심하신 말씀에 김성훈은 눈시울이 젖어올라 인사의 말씀도 올리지 못하고 두눈만 습벽이었다.

《동무를 부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동차문제를 좀 의논해 보자고 불렀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추서면서 공장들뿐만아니라 농촌들에서도 자동차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자동차 수요를 풀수 있겠는지 생각해 본것이 없습니까?》

김성훈은 그이의 물으심에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리었다.

이윽고 김성훈은 자기가 지금 자동차를 다른 나라에서 사오려고 작성한 문건을 가지고 왔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각 단위들에서 자체로 번 외화가 있는 이상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던것이 다.

그러나 그이의 앞에 내놓기가 왜서인지 서슴어 지는것이였다.

《어서 의견을 말해 보시오. 물론 당장 하늘에서 툭 떨어 질 좋은 안을 내놓으라는것은 아닙니

다. 여럿이 의견을 합치면 혹시 명안이 나올지 알겠습니까?》

그이께서는 혼연한 웃음을 지으시며 말씀하시였다.

김성훈은 그이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의 안정을 느끼며 가지고 온 문건을 내놓았다.

《제 생각에는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것이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의논해 보았는데 아래사람들의 요구도 그렇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사온단말이지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건을 받아 드시고 한동안 훑어 보더니 그대로 드신채 조용히 집무실을 거니시였다.

한순간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김성훈은 자기의 제의가 그이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동차를 수입한다?!》

순간 그이의 음성은 침중하게 방안을 울렸다.

《동무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동무가 자동차를 다른 나라에서 사오자고 나에게 문건을 가져 왔는데… 물론 다른 나라에서 사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심사숙고합시다. 그래 승리자동차종합공장 실패를 알아 보았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은근하면서도 사색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머리를 떨구고 있던 김성훈은 자료를 펼쳐 들고 종합된 공장실패에 대하여 그이께 자초지종 말씀 올리였다.

제기된 자료에 의하면 공장은 《고난의 행군》시기 자동차생산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으며 고장난 자동차들을 수리나 하는 정도의 미봉책에만 매달려 있었다.

특히 문제로 되는것은 리석준이 로동자들로부터 《허수아비지배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것이였다. 한것은 경제관리를 똑바로 하지 못한데도 있지만 수령님께서 로동자들을 위해 때 주신 자남벌을 농업성에서 내놓으란다고 하여 넘겨 준때문이었다. 그러다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때 로동자들의 생활은 더 말할수 없게 되어 많은 로동자들이 공장을 떠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사실상 지배인 리석준은 유명무실한 존재로 되어 있었다.

《그렇단 말이지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렇게 되이시고는 다시 집무실을 거니시였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김정일** 동지께서는 김성훈의 앞으로 돌아 오시였다.

《우리가 승리자동차종합공장을 잘 도와 주지 못한것 같습니다. 난 이 밤으로 승리자동차종합공장으로 나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순간 김성훈은 흠칫 몸을 떨었다.

《장군님, 안됩니다. 방금 돌아 오신 장군님께서 잠시의 휴식도 없이 또 떠나신단 말씀입니까? 안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는 쉬셔야 합니다.》

일꾼들은 너도나도 그이의 앞을 막아서며 간절히 말씀올렸다.

《동무들, 이렇지 마시오. 승리자동차종합공장은 수령님의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현명한 령도로 전쟁의 포화속에서 마련된 공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을 쓰게 못하여 오늘 자동차공업이 침체상태에 빠졌는데 힘이 든다고 순간이나마 마음 편히 쉴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령님께 죄를 졌습니다. 죄를 말입니다.》

김정일 동지의 음성은 절절하고도 격렬하게 울리였다.

일꾼들은 그이의 말씀이 가슴에 마쳐 와 죄의식과 함께 뜨거움을 금치 못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인민무력부 일꾼들도 함께 가야 하겠다고 이르지고는 먼저 밖을 나서시였다.

김성훈은 그때 왜 그런 문건을 가지고 갔던가 하는 막심한 후회를 안고 그이께 눈길을 돌리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차창밖에 시선을 주신채 그 어떤 깊은 사색을 몰아 가는지 아니면 장막을 펼친 어둠을 투시하며 그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움직이지 않으시였다.

사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당력사에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는 《승리-58》형 자동차와 더불어 걸어 온 자남산로동계급들을 생각하고 계시였다. 전후의 그 어려운 속에서 40일만에 첫 자동차를 만들어 세상을 놀래운 그들이였다.

그때로부터 화물자동차마다에 새겨져 있는 이름들은 얼마나 가슴 뜨거운 추억을 불러 일으키는가. 《승리》호, 《자주》호, 《건설》호...

그것은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전진하여 온 우리나라 자동차공업발전의 자랑찬 력사이며 그 동음소리는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숨결이기도 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60년대 중엽에 승리자동차종합공장을 찾아 갔을 때의 처녀작업반장의 모습이 선히 떠오르시였다. 동실한 얼굴에 귀엽게 웃던 모습이 펍 인상적이어서 요 작은 손이 세인을 놀래우는 대형자동차까지 만든다고 그의 손을 잡아

주시던 일이며 그때 기사장이였던 리석준이 동행하던 모습도 떠오르시였다. 그때는 얼마나 열정에 넘쳐 일을 억척같이 내밀던 그였던가.

《지배인동무의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정일 동지께서는 차창밖에서 눈길을 떼지 않으신채 조용한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지금 예순다섯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제는 나이도 들고 공장을 운영해 나갈 힘이 없다고 하면서 얼마전에 후임문제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좀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로동자들이 그를 매정하고 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찍하면 신경질만 부린다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머리를 젓고 있습니다.》

《매정하고 정이 없는 사람이라...》

그이께서는 더 묻지 않으시고 혼자소리로 외우시였다.

그가 그런 인간이 되었던 말인가?

김정일 동지께서는 못내 서운하시였다. 가슴이 아프시였다. 그도 수령님께서 키우신 일꾼이 아닌가.

나라가 전쟁의 불바다속에 잠겼을 때 다른 나라에 류학까지 보내시여 우리 나라 기계공업을 떠메고 나갈 일꾼으로, 특급기업소의 지배인으로까지 내세워 주시지 않았는가.

김정일 동지께서는 차창가에서 눈길을 떼시였다. 그 순간에 무릎우에 놓여 있는 문건이, 빨간 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려 놓은 자동차대수가 안겨들었다. 그것을 이윽히 들여다 보시던 장군님께서는 그 어떤 힘의 분출에서인지 몸을 움쭉 숙구시였다.

어느덧 승용차는 씨리카트브돌집이 즐비하게 늘어 선 마을입구에 조용히 들어 섰다. 이제 얼마 안가면 시내에 접어들것이고 좀 더 나가면 대동강기슭에 자리 잡은 공장이 나질것이였다.

《차를 천천히 모시오. 좀 이른것 같소.》

그이께서는 운전사에게 이르고나서 하얀 설경속에 잠긴 자남산쪽을 주의 깊게 바라보시였다.

벌 한가운데 우뚝 솟은 산은 불빛 한점 없이 고요했다. 그 앞으로는 무연한 벌이 흰눈을 이불처럼 덮고 누워 있었다.

《자남벌이로군!》

김정일 동지께서는 차창밖으로 천천히 흘러 가는 벌에 눈길을 주신채 조용히 뇌이시였다.

지배인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듯 한 느낌이 드시였다.

자남벌을 내놓다니, 무슨 사람이 그렇게 욕심이 없는가. 그 벌이야 수령님께서 이 지구 로동계급을 위해 떼 주신 땅이 아닌가. 로동자들을 위한 일인데 머리가 열조각이나도 지켜 났어야 하지 않는가. 그 땅에서 부업경리만 잘 해도 생활에 보탬이 되었을것이였다. 확실히 그는 공장

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 졌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마음이 허전해 지시였다.

갑자기 승용차가 멎어 서는 바람에 그이께서는 사색속에서 깨어나시였다.

《왜 그러오?》

《앞에 사람이...》

앞창으로 금시 넘어졌겠는지 온몸에 눈을 함뻍 쓴 사람이 두팔을 휘휘 내저으며 비틀비틀 걸어 가고 있는것이 보이였다. 분명 술에 취한 사람 이였다.

그러던 그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뼈 없는 사람 처럼 눈우에 무너지듯 쓰러졌다.

《원 저런, 좀 나가보오. 다치치 않았는지 모르 겠소. 그러다가 이 추운 겨울날 얼굴에 상처라도 입으면 어쩌겠소.》

김정일 동지께서는 나무람대신 오히려 걱정이 되시였다.

김성훈은 아닌 밤중에 흥두깨라고 뜻밖에 술에 취한 사람을 만나 그이께서 마음 쓰시게 되였다 는 죄송스럽고 조급한 마음으로 몸돌바를 몰라했다. 그와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한 노여움이 굴뚝 처럼 솟구쳐 올랐다.

김성훈은 그에게 다가가 이게 무슨 추태냐고 큰소리를 쳤으나 그는 들은듯만둥이였다.

《허, 그렇게 큰소리만 쳐서야 되겠소. 술에 취한 사람은 술술 열려야 고분고분해 지거든.》

김성훈은 그이의 말씀대로 목소리를 낮추고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으나 그는 겨우 두손을 짚고 앉았다.

《동무, 이게 무슨 꼴이요. 동무가 지금 어떤 큰 일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하오?》

김성훈은 너무도 안타까와 그의 옷자락을 잡아 흔들었다. 그래도 대답이 없다.

《동무, 집은 어디요?》

김성훈이 다시 큰 소리로 물었다.

《집? 이게 내 집이요. 저 푸른 하늘, 이 땅이 내 집이란 말이요, 내 집. 그런데도 내가 여기서 살 자격이 없다구, 천만에.》

청년은 손을 내흔들며 허꼬부라진 소리로 웨쳤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차에서 내려 서시였다.

서른을 갓 넘겼을 청년은 거나하게 취하여 눈 정기까지 풀려 있었다.

《그래 어딜가는 길이라오?》

김정일 동지께서 김성훈에게 물으시였다.

김성훈이 청년의 옷에 묻은 눈을 털어 주며 부드러운 어조로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청년도 누그러지는 기색이였다.

《고맙수다. 난 함숙으로 가는 길이요. 난 집에서 쫓겨 났수다. 그 녀자가 나를 받아 주지 않는단 말이요. 지배인의 꼬드김을 받고... 내가 공장

을 그만두라고 한것이 잘못이요? 그래 생산도 못하는 공장이나 지키고 있으면 밥이 나온다고 떡이 나온다고? 허허... 참, 뭐 사랑이 어떻게구? ...》

청년은 제잡담 허 꼬부라 진 소리로 중얼거려 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청년을 한동안 측은하게 바라보시였다.

《무슨 곡절이 있는것 같습니다. 안되겠소. 이 동무를 데려다 주어야 할것 같소. 이대로 두었다간 추운 겨울날 어떻게 되겠소.》

뒤에 섰던 차가 천천히 다가와 몇자 김성훈은 청년을 거들어 차에 태워 주고 문까지 달아 주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회색솜옷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고요한 새벽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들을 사색 깊은 눈빛으로 보고 계시였다. 비록 웃음으로 넘겨 보냈지만 청년을 통해 받아 안은것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었다.

《사랑이라!》

그이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조용히 뇌이시였다.

2

동녘하늘이 희붉히 들리우자 내리던 눈은 어느새 멎고 씻은 유리판 같은 파란 하늘이 강산의 은빛 세계와 더불어 맑게 드리웠다.

흰눈을 땀뿌 쓴 자남산의 자태는 승엄하고 찬란하게 빛났고 엄동설한에도 일줄 모르는 대동강 맑은 물은 명주필 같은 안개를 피워 올려 강기슭의 나무가지마다 서리꽃을 탐스럽게 피워 주어 보기 드문 설경을 이루었다.

이 무렵 지배인 리석준은 밤새 잠을 설친 부석부석한 얼굴로 사무실에서 나와 강기슭과 나란히 뻗은 구내길의 저 끝 공장정문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요즘 그의 마음은 펄 평온해 진듯도 하였다.

상부에 후임문제를 제기한지 펄 시일이 지났으니 여차직하면 오늘래일 무슨 소식이 있을것만 같은 예감이 들기도 한것이였다. 그래서 그는 어제 밤에도 인계할 준비를 깨끗이 갖추느라고 집에 들어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조금 눈을 붙이였다. 인계할 준비라야 그간 해놓은 일이 없으니 설비들뿐이였다. 자기 한생의 피와 땀이 숨배여 있는 설비들이라고 생각할 때 아무리 어렵더라도 녹이 쓸게 할수는 없었다. 생산도 못하는데 기계나 지켜선 뭘 하느냐며 흔들거리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짹짹 소리를 치곤 하여 그들로부터 《게사니지배인》이라는 별명도 듣게 되었고 배척도 받게 되였다. 물론 그것때문에 그런건 아니지만 어쨌든 설비때문에 더 많은 신경질을 쓴것 같았

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도 며칠뿐이었다. 그러느라니 자연 마음이 평온해 지기도 하면서 자신이 측은한 감도 없지 않았다. 이제는 곧 떨어진 것 신체가 되어 가랑잎처럼 날리게 되었으니 사람의 생이란 참으로 허무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긴 누구에게 탓할것도 못되었다. 사람의 삶은 첫 시작도 잘해야 하지만 마감은 어떻게 장식하는가 하는데 따라 빛나는것이다. 그런데 실로 자기가 해놓은 일이 과연 무엇이 있단 말인가. 돌이켜 보면 첫 자동차를 만들던 전후대고조시기의 그 나날로부터 지금까지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누구보다 더 많이 받아 온 자신이였다.

조국해방전쟁의 가렬치절한 나날 다른 사람들은 이 땅을 지켜 피를 흘리며 원쑤들과 싸우고 있을 때 자기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안고 다른 나라에 류학까지 가서 공부하고 돌아 왔다. 그리고 큰 공장 기사장을 거쳐 지배인으로 자랐다.

리석준은 첫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평양으로 올라갔던 그때의 일이 감회깊게 회상되었다.

그날은 그에게 있어서 영원히 잊지 못할 날이었다. 그날 자남산은 꽃바다속에 잠겼고 천지를 진감하는 만세의 환호성소리에 들썩들썩 춤을 추는듯 했다. 그 옛날 호미와 낫을 버리는 야장간마저 없었던 고장이였다. 자동차가 나타나면 쇠하늘소가 왔다고 신비하게 바라보다가 풀을 뜯어 먹이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 지던 이 고장에서 자동차가 굴러 나왔으니 사람들의 감격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하겠는가.

너무도 감격하여 울며울며 만세를 부르다가 목이 쉬고 기진하여 그자리에서 잠이 들었다는 이 이야기도 그때의 이야기이다.

첫 경적소리를 울리며 지나간 연도환영의 꽃바다를 뚫고 평양에 도착했을 때 수령님께서 얼마나 기뻐 하시였던가. 참 장하다고, 우리 로동계급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못해 내는 일이 없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 나라에서 10년은 걸려야 자동차를 생산할수 있다고 하였지만 우리 로동계급은 불과 40일만에 자동차를 만들어 냈다고 이것이 조선사람의 정신이고 본때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승리》호로 달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어찌 그뿐인가.

첫 시제품 10톤급 자동차를 만들어 냈을 때에는 《자주》호라고 이름을 지어 주시고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군놈들을 때려 부시고 승리한 것처럼 항상 승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크나큰 믿음을 안겨 주시였다. 그때 리석준은 수령님의 말씀대로 꼭 승리만을 아는 로동계급일군이 되겠다는 맹세를 올리였었다.

그런데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으니...

리석준은 가슴이 꺼지게 한숨을 내그었다.

죄책감은 심장 한복판에 깊이 박혀 눈물로도

심각한 회오의 뉘우침으로도 정녕 씻을수 없었다.

리석준은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배반했다. 배반자의 한 사람으로 이제는 자리에서 물러 나게 되었다. 리석준은 머리를 떨구고 몇발자국 옮겨짚었다. 발밑에서 《빠그득》 하는 눈 밟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전 같으면 음악의 세계에 잠겼을 리석준은 그 소리에 흠칫 몸을 떨었다. 이때 공장정문앞으로 승용차들이 와 멎었다.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 여럿이 내렸다. 동시에 동건 하늘에 태양이 솟아 올라 하늘땅 우주공간에 형언할수 없는 채운이 서리였다.

리석준은 눈이 시그러워 두눈을 잔조롭게 뜨고 정문쪽을 훑어 지게 바라보았다.

그것은 순간에 벌어 진 일이었다.

정문쪽에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 메아리쳐 왔다.

석준은 그 순간 무아몽중이 되어 버렸다. 자기를 완전히 잊어 버리고 멍하니 그 자리에 말뚝처럼 서있었다.

아침 일찍 출근길에 올랐던 사람들이 정문으로 뛰여 가며 두손을 흔들며 부르는 만세소리도 꿈결에서처럼 들리였다.

그는 지금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것 같았다.

(아, 위대한 장군님께서?)

리석준은 목이 꺾 메이였다.

만세를 목청껏 불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발걸음도 떨어 지지 않는다.

《지배인동무, 뭘하고 있소. 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을 찾아 주시었소.》

누군가가 몸을 흔들었을 때에야 그는 이 순간이 꿈이 아님을 온몸으로 느꼈다. 리석준은 훌쩍 흐느끼며 그자리에 흠뻑 무너지듯 주저앉고 말았다....

《왜 지배인동무가 보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사람들속에 둘러싸이시여 환호에 답례를 하시면서 지배인을 찾으시였다.

누군가의 부축으로 리석준은 일어 섰다. 그이의 앞으로 한발자국 한발자국 다가섰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리석준을 보자 잠시 주춤 멈추어 서시였다.

《장군님! 불효막심한 리석준이 장군님께...》

리석준은 걱정과 죄책감으로 하여 인사의 말씀도 울리지 못하고 머리를 푹 떨구었다.

《지배인동무, 이게 얼마만입니까? 이렇게 늦게 찾아 와 안됐습니다.》

그이의 음성은 저으기 갈리시였다.

《아닙니다. 제 장군님앞에 땀땀이 나설 몸이 못됩니다. 수령님앞에서 다진 맹세를 지키지 못했으니 어찌 제가 장군님앞에 땀땀하게 나설수

있겠습니까.》

김정일 동지께서는 리석준의 속 마음을 헤아려 보시는듯 그의 손을 꼭 잡으신채 아무 말씀없이 그의 얼굴을 이윽히 지켜 보시었다.

머리에 흰서리가 불리고 두볼이 꺼져 내리긴 하였으나 차안에서 생각했던것보다는 젊어 보이었다.

이윽고 **김정일** 동지께서는 공장구내를 쭉 둘러 보시었다. 이전 같으면 새로 만든 형형색색의 자동차들이 여기저기 빼곡이 차 있고 분주히 오가는 발동소리에 귀가 멍멍하고 구내가 그대로 움썽움썽 움직이는것 같아 마음이 흐뭇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도 한적하였다.

그이의 안광에는 한순간 허전하고 쓸쓸한 빛이 어러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자남산의 승엄한 자태를 회억 깊은 눈길로 바라보시었다. 대동강기슭에 뿌리를 박은 한쪽면은 깎아지른 절벽을 이루었고 산마루에는 솔숲이 푸르렀다. 볼수록 묘하게 생긴 독립산이었다. 문득 이 산에 대한 전설 비슷한 말을 들었던 기억이 살아나시었다.

《지배인동무, 산이 참 묘하게 생겼습니다. 이 산에 대한 전설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김정일 동지께서는 리석준을 보며 물으시었다.

리석준은 그이의 뜻밖의 질문에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말씀 드리었다.

《예. 장군님, 이 산을 서남방향에서 바라보면 마치 그 옛날 큰 홍수때 대동강상류의 어느 먼곳에 있던 바위산이 몽청 갈라져 떠내려 오다가 여기 별 한가운데 놓인듯 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로부터 전설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와 린접한 대동강 상류 이웃군에 이 산의 절벽과 같이 한쪽면이 깎아 지른듯한 절벽산이 있습니다. 옛날 욕심이 이룰데 없는 이웃군수가 이 산을 보고 분명 자기 고을에 있는 산이 갈라져 떠내려 온것이니 옮겨 가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장정들과 함께 팽이와 바를 가지고 와서 산허리에 바를 매기 위해 남쪽 한쪽을 곡팽이로 파헤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가져 가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팽이로 파낸것처럼 보이는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우무러진 둔덕아래 지명을 지금도 <팽이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하하, 그렇습니까. 전설이긴 하지만 그 군수가 참 피짜입니다. 산을 떠옮겨 가겠다고 한 군수를 단순히 욕심쟁이로만 보겠는가. 난 달리 생각하고 싶습니다. 비록 우둔한 생각이긴 하지만 자기 고장에 대한 정이 없이는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일군들은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인가 하는데 따라 리기심으로도 될수 있고 애국심으로

도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일 동지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무엇인가 의미심장한 그이의 말솜에 지배인 리석준은 몸을 가볍게 떨며 머리를 수긋한채 서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일군들을 둘러 보시고 나서 사적실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었다.

안으로 들어서시던 그이께서는 수령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대형사진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뜨거운 감회속에 오래도록 말솜이 없으시던 그이께서는 손을 드시여 사진을 가리키시었다.

《동무들! 이 사진을 보시오. 수령님뒤에 서있는 키가 큰 저 동무가 바로 원관아바이입니다. 수령님께서 아끼시던 일군이였습니다. 원관아바이만큼 경제관리를 잘한 사람은 아마 드물었을것입니다. 수령님께서 큰 공장들에서 일이 잘 안될 때마다 원관아바이를 보내어 바로 잡곤 하시였습니다. 그는 수령님께서 주신 파업이라면 가타부타 군말없이 무조건 수행하곤 하였습니다. 200일전투때 그는 여기 자동차종합공장으로 와서 많은 일을 해놓았습니다. 그때 우리 나라에서 자동차생산은 최고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별명이 무엇이였는지 압니까. <알뜰살뜰아바이>였습니다. 지배인동무, 그렇지요?... 그만큼 그가 일을 알뜰살뜰하게 한데도 있었지만 로동자들에게 자기집 세간살이를 하듯 공장일을 알뜰살뜰하게 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곤 한데로부터 붙은 별명이라고 합니다. 그의 특징은 일군들은 호되게 욕을 하면서도 로동자들은 무한히 아끼고 사랑한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로동자들은 그의 주위에 찰떡처럼 붙어 돌아 갔다고 합니다. 로동자들을 위함이라면 그는 몸을 내달줄 아는 진짜배기 일군이였습니다. 언젠가 그는 수령님께 자남벌을 통채로 넘겨 달라는 어별이 큰 제기를 한적 있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욕심이 이웃 군수 찔떡먹겠다고 웃으시면서 자남벌과 함께 한개 농장을 통채로 이 공장로 동계급들에게 넘겨 주셨습니다. 지배인동무, 생각납니까. 지배인동무는 그때 원관아바이한테서 욕을 많아 먹었다고 했지요. 얼마나 욕을 했으면 원관아바이밑에서는 일을 못하겠다고, 다른데로 가겠다고까지 했겠습니까. 하하하... 하지만 그는 자기 후임으로 누구도 아닌 바로 이 석준동무를 추천했습니다. 원관아바이는 바로 이런 일군이였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잠시 말솜을 끊으시고 깊은 회역을 되살리시며 대형사진을 정겹게 바라보시었다.

《추억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더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는 추동력으로도 됩니다.》

리석준은 그이의 절절한 말솜이 가슴에 마쳐와

머리를 수긏하고 두눈을 지그시 감았다. 자신에 대한 원망이 부지불식간에 솟구쳤다. 노동자들을 홀시하고 짹짹 소리만 지른 자신의 처사가 혐오스럽기 그지없었다. 더우기 수령님께서 주신 벌을 넘겨준 실책은 그 무엇으로도 씻을수 없는 과오로 가슴이 찢어질듯 아팠다. 그이께서 자남산전설을 왜 물으셨는지 그것도 가늠하지 못하고 체신머리없이 앵무새처럼 외운 자신이 민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그이앞에 서있기조차 면구스러웠다.

《얼마전에 난 애국렬사릉에 가서 많은 동지들을 만나보는 과정에 원관아바이도 보았습니다.》

그때 그이께서는 원관아바이를 만나보시고 수령님을 받들어 많은 일을 한 동무라고, 《고난도 시련도 함께 이겨내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운명을 같이 하는것이 동지입니다. 때문에 나는 혁명동지를 제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내가 <동지애의 노래>를 사랑하는것은 바로 이때문입니다.》라는 귀중한 말씀을 하시였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이처럼 또다시 원관아바이를 높이 치하하시며 뜨거움에 젖어계시는것이였다. 진정 동지들을 위하는 그이의 사랑은 그토록 뜨겁고 열렬하며 한량이 없으시였다.

그이를 따라 자동차진렬장에 들어서던 김성훈의 두눈은 황홀경에 빠져 휘둥그레졌다.

이전에 여러번 와보았지만 이렇게 새로운 흥분속에 큰것을 받아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인민무력부 일군들속에서도 감탄하는 소리가 울려나왔다.

이것이 정녕 우리가 만들어 낸 자동차들이냐 싶었다.

《승리 58》형자동차로부터 특대형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그것도 서로 다른 형태의 자동차들이 체육관처럼 넓은 방안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김성훈은 지금껏 자동차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며 꿈꿨던 답답하던 가슴이 일순간 바다처럼 넓어지며 류다른 흥분속에 온몸이 잠겨들음을 느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시였다.

한 일군이 그이께서 오실줄을 모르고 강사들을 다 강습에 보내다보니 지금 해설할 강사가 없다고 죄송스러워 하자 그이께서는 《강사들이 없으니 오늘은 내가 강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시며 한발 나서시였다.

《자 동무들, 어떻습니까? 이 모든 자동차들은 우리 자남산 로동계급들이 우리의 자재,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창조물입니다.》

그이의 우렁우렁하신 목소리는 진렬장을 쫓아 울리였다.

《세상에 운수수단으로 기차가 나오고 1890년대에 와서 공기다이야를 쓴 자동차가 나온 때로

부터 자동차를 만드는가 못 만드는가 하는것은 그 나라 공업발전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되였습니다.

동무들, 생각해 보시오. 우리 나라는 일제의 식민지기반에서 해방된지 5년만에 또다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후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종파분자들은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것을 반대해 나섰고 외국의 기술자들은 우리 나라에서는 10년이 걸려도 자동차를 만들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남산 로동계급들은 수령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불과 40일만에 첫 자동차를 생산하여 세상을 놀래웠습니다. 바로 이 지배인동무는 그때 여기 자동차공장의 몇명 안되는 기사중의 한 사람이였습니다. 이 지배인동무의 손을 좀 보시오. 이 손으로 두드리고 끌고 하면서... 지배인동무, 자 지배인동무가 이야기해 보시오.》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때의 정상이 가슴에 마쳐와 잠시 말씀을 끊으시였다가 리석준을 내세워 주시였다.

리석준은 솟구치는 눈물을 억제하느라고 두손을 앞으로 모아 꼭 잡고 머리를 수그리였다. 세월이 가져다 주었던 메마르고 딱딱하고 얼음처럼 차던 가슴에 따뜻한 봄기운이 어린듯 봄시위처럼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내렸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러는 리석준의 마음을 헤아리신듯 잠시 지켜 보시다가 아무 말씀없이 그의 손을 다시 꼭 잡아 주시였다.

순간 리석준은 그이께 손을 맡긴채 숙였던 얼굴을 들고 인자하신 모습을 우려했다.

《장군님, 장군님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 제 어찌 장군님앞에서...》

그이의 다함없이 깊고 뜨거운 사랑에 보답 못한 자신이 안타깝기만 하였다.

《너무 그러지 마시오. 지배인동무의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를 따듯이 위로해 주시고 다시 강사가 되신듯 《자주》호 시제품차앞으로 가시였다.

《동무들, 어떻습니까? 이 차가 바로 10톤급차입니다.

수령님께서 처음 만든 이 10톤급중량차와 함께 같은 10톤급자동차들인 <크라즈>와 <히노>도 보시면서 아무리 봐야 조선제가 제일이라고, 우리 로동계급이 또다시 승리했다고 호탕하게 웃으시였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때의 일이 눈앞에 선히 떠오르시는듯 한동안 말씀을 끊으시고 시제품차들을 흐뭇한 마음으로 오래도록 바라보시였다.

《물론 아직까지는 <승리 58>형자동차나 10톤급 <자주>호가 결함들이 적지 않습니다. 휘발유를 쓰는 자동차는 기화기가 기본입니다. 언젠가

내가 어느 공장에 갔을 때 보니 자동차가 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만 보니 기화기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동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화기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기화기의 정밀도를 높여 만든것이 <승리 58가>형기화기입니다. 이 기화기는 3중 확산기식기화기로서 종전의 2중 확산기식기화기가 가지고 있던 결함들을 극복하고 자동차의 첫 출발과 변속 특히 농촌길에서의 저속운행을 순탄하게 하였습니다. 지배인 동무, 옳습니까?》

《장군님, 옳습니다.》

리석준은 그이께서 자동차전문가들이나 알수 있는 문제들을 그렇게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경탄의 눈길로 우려했다.

《그러나 아직 결함들이 많습니다.

디젤유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유분사압력을 높이고 분사시간을 줄여 기통의 배기가스를 완전히 없애는 방향에서 기술개조를 해야 합니다. 결함들은 앞으로 부단한 기술개조를 하여 수정하면 될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 우리의 자재, 우리의 기술로 이처럼 짧은 기간에 만들어 냈다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린것도 순전히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 우리의 자재로 만들어 쏘올렸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것입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확신에 넘친 음성으로 정력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김성훈은 자동차기술에 대한 그이의 해박한 지식과 우리것에 대한 한 없는 사랑과 공지가 넘쳐 흐르는 말씀에 자기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다. 그이께서 말씀을 끊으시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지만 따라설념을 못하였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엇인가 용암처럼 끓어 올랐다.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가늠할수는 없었으나 새것의 탄생을 예고해 주는듯 한 환희와 긍지, 자부심이라는것만은 어렴풋이 느낄수 있었다.

3

눈덮인 대지는 파사로운 해빛을 받아 물기를 머금고 수천수만개의 칠색무지개로 채색되어 령통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독특한 형식으로 건설된 기관분공장건물을 류다른 애착을 가지고 하나하나 뜯어 보시면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으시였다. 이 공장이 바로 수령님의 뜻을 받들고 1980년대 중엽에 자신께서 직접 발기하시고 《자주》호 자동차생산기지로 꾸려 주신 곳이었다.

감회가 깊으시였다.

그때 그이께서는 확장공사가 시작된 첫날부터 조업하는 날까지 한시도 쉬지 못하시고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주시였다. 건설설계와 설비설계를 앞세워 제때에 완성할수 있도록 전국각지 30여개의 공장과 설계사업소들에서 수백명의 우수한 설계가들을 동원하여 《자주》호생산능력확장공사 설계집단을 꾸려 주시였다. 당장 설계할 방이 걸려 방도를 못 찾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는 려관방을 리용하도록 하시고 려관방에 설계도판을 차려 놓고 낮이고 밤이고 설계를 할수 있도록 형광등까지 내려 보내주시였다. 이리하여 전례 없는 설계속도가 창조되였다. 그뿐만이 아니였다.

그이께서는 매일 전화로 공사의 진척정형을 알아보시고 단기일안에 와닥닥 끝낼수 있도록 인민군군인들을 포함한 강력한 건설력량을 내려 보내주시였다. 이리하여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기본생산건물과 최신형기계설비들을 갖춘 대규모적인 《자주》호 대형자동차생산기지가 꾸려 지게 되였다.

공장이 완공되어 조업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이께서는 수령님을 보좌해 드리는 분망한 사업으로 하여 몸을 뺄수가 없으시였다.

조업식날 그이께서는 자남산에서 터져 오를 환호성을 그려 보시며 밤늦도록 조업식에 참석하고 돌아 오실 수령님을 기다리시였다.

3년세월 바쁘신 속에서도 각별히 힘을 넣어 확장공사를 하였지만 혹시나 미흡한 점이 있어 수령님께 만족을 드리지 못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마음 쓰신 그이이시였다.

밤이 이슬해서 돌아 오신 수령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축하하오. 정말 수고했소. 난 오늘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소. 온갖 시름이 다 풀리오. 정말 남모르게 큰 일을 해놓았소. 공장을 돌아보니 멋있게 아주 잘 지었소. 건물안도 환하고 좋소. 기계들도 흐름식으로 잘 배치하고. 난 언제부터 이런 자동차공장을 건설하고 싶었는데 하늘에서 푹 떨어진것 같이 짧은 기간에 훌륭하게 꾸려놓았소.》

김정일 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그토록 만족해하시는 모습을 우러르며 가슴속 깊은곳에서 우러오르는 뜨거운 감동을 이기지 못하시여 눈굽을 적시시였다.

《수령님, 아닙니다. 전화의 나날 공장터전을 잡아주시고 대규모적인 자동차종합공장을 건설해주신 분은 바로 수령님이십니다.》

《아니요. 전후 어려운 환경속에서 첫 걸음마를 댔 우리 나라 자동차공업이 오늘과 같이 현대화된것은 **김정일** 동무의 덕이요.》

《수령님…》

…

그때를 추억하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뜨거운 것이 어리었다.

그때로부터 어언 10여년.

복잡다단한 세월은 그이께 좀처럼 시간을 주지 않아 오늘에야 오신 것이었다. 그러나 기쁨보다도 피로움이 무겁게 가슴을 지지리 누름을 어쩔 수 없으시었다. 《고난의 행군》 시기 기계의 동음 소리를 언제 한번 크게 울려보았겠는가. 그러니 기계인들 성하랴 싶으시었다.

《왜 이렇게 현장이 조용합니까?》

그이께서는 답변을 받으려고 물으신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리석준은 그이의 심중을 무겁게 받아안으며 몸을 가볍게 떨었다.

현장안은 밝은 투광등아래 기계들이 펼쳐 저 있었다. 그이를 따라 안으로 들어서던 일꾼들은 눈앞에 나타난 광경에 얼굴들이 대번에 밝아지었다.

종합흐름선앞으로 다가가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기계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 보시었다.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지… 그래도 기계설비들은 나사못 하나 뿔힌데가 없고 도색도 새로 한듯 윤력이 흘렀다. 기대공들이 기대만은 녹 한점 꺾세라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관리했다는 느낌이 드시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공장안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꼭 둘러보시었다. 그만하면 장비가 괜찮았다. 비록 생산은 하지 못하였지만 이제라도 재채만 있으면 생산을 할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어려운 속에서도 공장을 지켜낸것은 높이 사주어야 할 문제였다. 지배인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 가득 차오르시었다.

그이께서는 리석준이 지금까지 생산을 못한것을 크게 생각지 않으시었다. 류체없는 《고난의 행군》 시기 신통한 수가 없었을 것이었다. 단지 리석준이 양기를 잃고 주저앉은것이 가슴 아프시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어깨가 처져 엉거주춤 따라선 리석준을 돌아 보시며 미소를 띄우시었다.

《그래도 기대관리를 잘한것을 보니 기쁩니다.》

그이의 뜻밖의 치하에 리석준은 너무도 황송하여 몸둘바를 몰라 했다.

《장군님, 제가 무슨 한일이 있다고…》

《아닙니다. 지배인동무가 설비를 지키느라 마음 고생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난 설비가 제일 걱정이었는데 설비만은 그대로 있는것을 보니 마음이 놓입니다. 노동자들이 번질되지 않아 좋습니다. 이만하면 장비가 그즈합니다. 다른 나라를 넘겨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식 흐름선이 좋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돈벌이경제가 아닙니다. 자동차를 생산하여 다른 나라에 팔아먹으려고 하는것은 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를 발

전시켜 우리 인민을 잘 살게 하자는것입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지금껏 태달려 있던 근심과 걱정의 덩어리가 서서히 풀려나감을 의식하시었다. 마음이 좀 편해지시었다. 그이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어 한 녀성기대공앞으로 가시었다. 녀인은 머리를 떨구고 울기만 했다. 언제나 승리만 하라고 하신 수령님의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기들의 모습을 그이께 보여드리게 되었으니 어찌 얼굴을 들고 그이를 맞이할수 있겠는가.

《장군님, 저희들은 장군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장군님을 이렇게 뵈게 되니 더더욱 일을 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이러지 마시오. 그래도 동무들은 공장을 지켜 내지 않았소. <고난의 행군> 시기 적들의 봉쇄책동에도 끄떡없이 공장을 지켜 낸것은 바로 동무들의 승리를 의미하오. 동무들은 승리했소. 난 사실 걱정이 컸드랬소. 그 많은 설비들을 뜯어내지 않았을가 혹시 녹이 쏴어 못 쓰게 되지 않았을가고 말이요. 그런데 동무들은 농사군이 종자만은 베고 죽듯이 모진 어려움을 참으면서 기계설비들을 지켜냈소. 그제 얼마나 장한 일ियो.》

김정일 동지께서는 일꾼들을 둘러보시며 미소를 지으시었다. 그러시던 그이께서는 다시금 녀인을 유심히 보시었다. 언제인가 만나본듯한 모습이였다.

《가만 지배인동무, 이 동무가 어딘가 모르게 낮이 익습니다. 언젠가 내가 제관직장에 들리였을 때 제관공총각과 일손을 맞추고 신바람나게 차체에 맞머리못치기작업을 하던 그 처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리석준은 뜻밖의 일에 어쭙은 미소를 지으며 머리만 기웃거리었다.

《허허, 지배인동무가 정말 늙은것 같습니다. 그때 그 처녀를 잊었습니까? 내가 그때 그들의 일습씨를 보고 감탄하면서 예술을 창조하는 청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리석준은 그제야 생각났다. 그이의 기억력에 탄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30여년전의 일을 그이께서 생각하신것자체가 놀라운 일인데 그때의 처녀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 제관공동무와 일하던 처녀의 이름이 박향미입니다. 그는 제관직장 작업반장을 하다가 지금은 년로보장을 받고…》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까?》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월의 흐름을 새삼스럽게 느끼시며 그때의 일을 추억하시었다.

《장군님! 그때 그 처녀가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녀인은 너무도 황송하고 기쁜 나머지 왈칵 쏟아지는 눈물도 걸잡지 못하고 함박꽃같은 웃음을

피웠다.

《아, 그렇소. 글썄 어쩐지... 그리고보니 동문 어머니를 닮았구만. 이렇게 만나니 정말 반갑소. 어머니가 썼던 초소에 딸이 썼구만. 장하오!》

《장군님, 그때 그 제관공동무는 이 동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리석준이 한발 나서며 말씀 드리였다.

《그렇습니까. 그리고보니 로동속에서 예술도 창조하고 사랑도 맺은셈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보니 서로 눈치가 다르더라 말입니다, 하하하.》

그이께서는 못내 기쁘시여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그리고보니 동무는 나와 인연이 매우 깊소. 동무의 어머니를 만나던 때가 60년대 초이니 3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셈이요. 그래 세대주는 무얼 하오.》

김정일 동지께서는 자못 감개무량하시여 물으시었다. 순간 너인은 불에 덴 사람처럼 흠뻑 몸을 떨며 입술을 움켜 물었다.

그이께서는 어느새 그의 얼굴에 비낀 괴로움을 알아 보시었다.

《왜 그러오. 가정에 혹시 무슨 일이 있는게 아니요?》

너인은 머리를 푹 떨구고 두어깨를 움츠러뜨렸다. 그렇게 함박꽃처럼 호함지게 웃던 그의 얼굴에 시름이 비껴 들었다. 그 모습을 본 그이께서는 가슴이 철렁하시었다. 이처럼 생기에 넘치고 아릿다운 너인에게 혹시 있어서는 아니될 불상사라도 있다면 도대체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 내며 무슨 말로 위로 하겠는가. 그런데 의외에도 너인의 눈에 슬픔 아닌 분격의 빛이 서려 오르는 것이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너인의 눈빛을 놀랍게 바라보시며 물으시었다.

《어떻게 된 일이지?》

너인은 결심한듯 한숨을 토틈니 말씀을 올렸다.

《저는 며칠전 남편과 갈라졌습니다.》

《갈라지다니...》

김정일 동지께서는 긴장되시여 너인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다그쳐 물으시었다.

너인은 차마 그 일을 입에 올리기가 거북스러운지 한동안 갑자르더니 입을 열었다.

《리상이 맞지 않았습니다. 저더러 생산도 못하는 공장을 지키고만 있으면 밥이 나오는가 하면서 공장을 그만두고 다른데로 옮기라고... 그러니 전 공장을 뜰수 없었습니다.》

《음...》

김정일 동지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팔을 엇걸으시고 너인의 앞을 한동안 거니시었다. 그러시던 그이께서는 새벽에 만났던 청년이 생각나

시여 김성훈에게 물으시었다.

《새벽에 만났던 그 동무의 이름이 김창석이라고 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성훈이 그이께 대답을렸다.

순간 너인은 푹 수그렸던 고개를 번쩍 들었다. 놀라움과 의문, 걱정의 빛이 그의 눈가에 비껴 올랐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너인의 눈빛에서 그 청년이 바로 그의 남편이라는것을 대뜸 알아보시었다.

4

승리자동차종합공장 현장사무실에서는 자동차 생산을 위한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 진행되는 것으로 하여 참가자들은 크나큰 긍지와 기쁨, 사뭇 긴장한 속에서 자기 사업들을 놓고 회심의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그이의 앞에 놓여 있는 책상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자동차를 사오려고 올렸던 문건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며 놓여 있었다. 그런데 문제토의는 한 가정의 리혼문제가 상정되어 그것이 협의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듯 그이의 론점에 올라 있었다.

너인은 자기의 가정문제가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국가적인 협의회에서 토론폰되는것으로 하여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어쩔바를 몰라했다.

《...자, 보시오. 저 동무는 공장을 그만두라는 남편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장을 뜨지 않습니다. 우리 녀성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동무들은 다 모를것입니다. 이 어려운데에 녀성들은 가정을 돌보면서도 공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죽물을 먹으면서도 고난을 이겨내는것이 우리 녀성들입니다. 전후 어려운 나날이나 <고난의 행군> 시기나 녀성들은 변함없이 가정을 지키고 공장을 지켰습니다. 나는 여기에 와서도 저 녀성동무가 간직하고 지켜 가는 깨끗하고 숭고한 사랑에 감동되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은 치레거리가 아닙니다. 사랑이란 참으로 아름답고 고상하며 신성한 감정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깨끗하고 사심 없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이란 두 글자에 자기의 진정을 담아 표현합니다. <나는 동무를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조국을 사랑합니다.>...》

그이께서는 가슴속에서 충만되어 오르는 숭엄한 감정을 조용히 달래시는듯 잠시 말씀을 끊으시었다. 장내는 물뿌린듯 조용한속에서 너인의 가냘픈 흐느낌소리만이 간간이 들리었다.

그이께서는 추연한 눈길로 너인을 이윽히 바라보시었다. 머리를 푹 떨군 너인의 어깨는 가볍게 물결쳤고 눈가에는 눈물이 함초롬히 맺혔다가는

무릎우에 포개놓은 손등에 방울방울 떨어졌다. 그이께서는 저력 있는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사랑이란 범주는 무한하지만 그 의미는 하나에로 귀착됩니다. 그것은 절로 오는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에 떠받들려 창조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합쳐질 때 그 사랑은 뜨겁고 열렬하며 떨어질수 없는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 절대적 힘을 낳습니다. 그 힘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힘은 죽음도 이겨냅니다. 바로 그 힘에 의하여 행복이 창조됩니다. 그러고보면 사랑은 곧 창조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창조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런 사랑을 잃으면 자기앞에 부닥친 난관을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가정에 대한 사랑이 없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수 있으며 공장에 대한 사랑이 없이 어떻게 공장을 운영해 나가며 조국에 대한 사랑이 없이 어떻게 자기 조국을 인민이 바라는 부강조국으로 건설해 나갈수 있겠습니까.》

김정일 동지께서는 말씀을 중단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목단추를 벗겨놓으시고 회의장을 둘러보시었다. 그이의 눈길은 지배인에게 가닿으시었다. 《지배인동무는 이들의 가정이 이렇게 된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이의 물음에 두어깨를 푹 떨구고 모든것을 체념해 버린듯 묵묵히 앉아 있던 리석준은 흠칫 몸을 떨었다. 알고 있었던지 모르고 있었던지 몽롱한 의식속에 그는 머리를 번쩍 들었다. 자기를 솔직히 반성해야 한다는 의식이 그의 머리를 채찍질했다.

리석준은 며칠전에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 말씀 올렸다.

저녁무렵, 사무실문이 열리면서 한 녀인이 볼썽 들어 섰다. 자기를 큰아버지라고 따르는 향미의 딸 송이였다.

《어떻게 왔니?》

리석준의 물음에 그는 걸상에 풀썩 주저앉아 책상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쳤다. 일인즉 김창석이 당장 공장을 그만두라고 한다는것이였다.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자 정 세대주말을 듣지 않으면 갈라질수 밖에 없다는 《최후통첩》까지 했다는것이였다.

《뭐가 어찌고 어찌? 덜돼먹은 자식, 네가 너무 곰상곰상하니 그 자식이 사내랍시고 씨까스르는 거야. 이럴 땐 잡자고 있는게 아니다. 당장 집에서 내쫓으란 말이다. 당장 나가라고 해.》

리석준은 격분하여 소리쳤다.

한번 혼을 내주자던 일이 룡담이 진담이 된다 고 한가정이 갈라질 지경에 이르렀다....

《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김정일 동지께서는 리석준의 말을 혼연하게 받

아 들이시었다. 두손을 앞으로 모아 잡고 꺼꺼부정한채 떠들거리는 지배인의 모습이 측은해 보이시었다. 그의 눈은 빛을 잃고 흐리멍텅해졌고 살췌이 꺼져 내린 얼굴색은 컴컴했다.

어쩌면 사람이 저 모양이 되였는가. 그렇게기가 살아 펄펄 뛰던 그 모습은 어데 가고 서리맞은 풀잎 모양 저렇게 후줄근해졌는가. 육체적로 쇠에서 오는 정신적로쇠인가. 아니 육체는 로화되여도 사상정신만은 로화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그이이시었다.

《지배인동무는 확실히 늙었습니다. 육체가 늙은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늙었습니다. 난 그래도 어떤 난관이 앞을 막아도 주눅이 들지 않는 지배인동무의 밝은 모습과 쟁쟁한 목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기가 죽었습니까. 말이 난김에 좀 이야기합시다. 지배인동무는 자남별을 왜 넘겨 주었습니까. 그것은 수령님께서 이미전에 자남산로동계급을 위하여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지배인동무는 농업성에서 내놓으란다고 하여 내놓고 말았습니다. 자기 로동자들에 대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라면 그 땅을 내놓지 않았을것입니다. 지배인동무는 지어 자기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배인 후임문제까지 제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배인사업은 수령님께서 맡겨주신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일 동지께서는 말끝을 맺지 못하시었다.

리석준은 그이의 준절한 말씀이 가슴에 파고들어 온몸을 전율하며 머리를 떨구었다. 눈앞이 뿌옇하게 젖어 올랐다.

그이께서는 깊은 숨을 몰아 쉬시었다. 그러시고는 좀 안정되신듯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지배인동무, 생각해 보시오. 전후의 나날 지배인동무는 어떻게 일했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지배인동무는 손이 터져 피가 나오면서까지도 지칠줄 모르는 불굴의 투지로 자동차를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폐허우에서 자기 조국을 일떠세우겠다는 조국에 대한 사랑이 불 같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왜 그때처럼 살지 못합니까?》

김정일 동지께서는 한동안 사색을 고르시는듯 허공의 한점을 응시하시었다. 《동무들, 난 오늘 동무들에게 말하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자기것을 사랑하라!>...》

참가자들은 금언과도 같은 그이의 말씀을 입속말로 조용히 되새겨 보며 그이를 우려했다.

《...<자기것을 사랑하라!> 이것은 수령님께서 오래전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처자를 사랑하며 나아가서는 자기 공장, 자기 고향, 자기 조국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

령님의 이 심원한 뜻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자, 보시오.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외화를 주고 자동차를 사오자는 문건입니다. 동무들도 보았겠지만 우리의 경제적잠재력이 얼마나 큼니까. 우리 식 자동흐름선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훌륭한 자동차생산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자동차를 사오자니 말이 됩니까.

우리가 생산한 자동차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왜 자꾸 외국에서 사오려고만 합니까. 차를 전부 사오는 놀음입니다. 그 후파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가 이번에 평북도에 갔었는데 운전사들이 달구지를 가지고 짐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공장에 차들은 많은데 다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차들이다보니 부속 하나 얻기가 하늘에서 별따기라고 합니다. 동무들, 생각해 보시오. 자동차를 몰아야 할 운전사들이 달구지를 끌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문제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래일도 계속 자동차를 사오기만 한다면 이 좋은 자동차공장 설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집이나 지키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데. 자기것을 사랑할줄 모르는데로부터 자기것을 볼줄 모르는 청맹파니가 되었기때문입니다. 자기것을 사랑할줄 모르면 창조도 없으며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수 없습니다.»

김성훈은 그이의 절절한 말씀이 뼈속깊이 스며들어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야말로 자기가 자기것을 볼줄 모르는 청맹파니가 되었다. 자기것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지 못한탓에 자기것을 보지 못하고 외국에 가서 자동차를 사오려고만 했던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큰 후파를 초래할번 했는가. 그이의 말씀대로 10년이고 20년이고 집이나 지키고 있는다면 저 많은 설비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었다.

《내가 왜 자강도사람들을 그토록 내세우며 따라 배우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을 하는가? 그들은 <고난의 행군>시기 자기 공장을 궁전과 같이 꾸리고 자기 교향을 리상촌으로 꾸러놓았습니다. 그들은 모든것을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이를 악물고 일하고 또 일하였습니다. 굶어 쓰러지면서도 장마당으로 나간것이 아니라 거름을 지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애국주의는 영웅적인것입니다. 바로 자기것을 귀중히 여기고 자기 운명처럼 사랑하였기때문에 그처럼 영웅주의를 발휘한것입니다. 어느 집이나 저녁이면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가정과 공장이 하나로 융합되었습니다. 나는 자강도에만 가면 마음이 즐겁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곳에서 살고 싶도록 정이 듭니다.》

너인의 흐느낌소리가 숙연한 감정에 휩싸여 있

는 사람들의 마음을 키질하며 가볍게 물결쳤다. 여기저기서 흐느낌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뺄속까지 스며드는 그이의 절절한 말씀에 뜨거운것이 울적 솟구친것이였다.

《동무들, 그래 이 문건에 수표를 해야 옳겠습니까. 동무들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난 동무들이 하자는대로 하겠습니까.》

《장군님, 저희들이... 저희들이 수령님의 뜻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장군님, 저희들을 믿어 주십시오.》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심장의 목소리를 터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못내 기쁘시였다. 참가자들의 가슴에 파도치는 열파는 그이의 심신을 기쁨으로 충만시켰다. 우리 로동계급들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었다.

리석준은 두눈을 차그시 감고 머리를 떨구었다. 그 목소리들이 공명되어 귀가에 메아리쳐 왔다.

《지배인동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정일 동지께서 리석준에게 눈길을 돌리시였다.

리석준은 머리를 떨군채 조용히 일어섰다.

《장군님, 전 수령님앞에 용서 못할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저를...》

리석준은 훌쩍 느끼며 쓰러질듯 휘청거렸다.

최많은 인생을 후회하며 갚심한들 그이께 이제 더 무슨 말씀을 올릴수 있단 말인가. 나라의 자동차공업을 맡아 가지고 구실을 못하여 망쳐 먹었으니...

리석준은 처분만을 바랄뿐이였다.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난 지배인동무의 과오를 묻자는것이 아닙니다. 지배인동무는 이 공장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구실을 못하여 이 산의 전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산을 떼울것 같아 그제 근심이 돼서 그러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자애에 넘친 시선으로 회의 참가자들을 둘러보시며 웃으시였다.

《지배인동무, 난 동무를 믿습니다. 50년대 빈터우에서 맨손으로 자동차를 생산해 내던 그때의 정신을 가지고 일을 잘하리라고 봅니다.》

리석준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리석준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며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지배인동무가 후임문제를 우에다 제기하였지만 난 지배인동무가 10년은 더 지배인사업을 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순간 회의장은 술렁거렸다.

그이의 믿음에 찬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참가자들의 마음을 후더운 감정으로 충만시키였다.

리석준은 머리를 번쩍 들었다.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이자 그이께서 무엇이랴고 말씀하시였는가.

《동무는 수령님께서 키우신 오랜 일꾼입니다. 동무는 우리 나라 자동차력사와 더불어 귀중한 경험을 쌓은 일꾼입니다. 힘이 모자라면 내가 힘을 주겠으니 우리 함께 자동차공업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갑시다.》

우렁찬 박수소리가 터져 올랐다.

그이께서도 박수를 쳐주시었다.

그 박수소리가 자기를 위한것임을 감각하였을 때 리석준은 흐흐 느끼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눈물은 사정없이 흘러 내렸다. 이 세상에 고고성을 터친 때로부터 인생년륜의 예순다섯해는 물도 말라버리고 인간의 향기를 잃었던 그였다. 나이들면 물러날줄도 알아야 한다는 동년배들의 말을 고맙게 받아들이면서도 쓸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던 그였다. 옆친데엇친다고 일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후임문제를 제기했었다. 그것은 영예로운 은퇴가 아니라 죄된 인생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위안에 불과했다. 그 때로부터 그는 살아도 사는것 같지 않았으며 이제는 수동적인 인간으로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어쩔수 없는 인생의 법칙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그이께서 그것을 부정해 주시었으며 믿음과 사랑으로 열을 주시고 숨결을 주시여 생을 되살려 주시었다. 그이께서 인간의 가장 귀중한 진리를 깨우쳐주시어 수동적인 존재로가 아니라 주동적이며 활동적이며 창조적인간으로서의 애국의 넋을 심어주시었다.

《장군님, 저같은게 뭐라고 흑...》

리석준은 눈물어린 눈길을 들어 그이를 우러렀다.

《지배인동무!》

그이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리석준에게로 다가가시었다. 그러시고는 그의 손을 꼭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었다.

회의장은 감격과 뜨거움의 열파로 물결쳤다.

그이께서는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고 주위를 둘러 보시었다.

《동무들,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것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라! 바로 여기에 최대의 애국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애국의 마음을 하나로 합쳐 내 나라를 강성대국으로 건설해 나갑시다.》

순간 막혔던 물목이 터지듯 열광적인 박수소리와 함께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사람들은 그이의 안광에 번뜩이는 섬광과 같은 빛을 받으며 희망과 신심으로 충만된 희열을 안고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김성훈은 온몸이 찌릿이 젖어 올랐다. 그이의 사랑의 세계는 정녕 길이로도 깊이로도 잴수 없는 무한대의 우주임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었다.

김정일동지는 정녕 사랑으로 만난시련을 이겨 내시며 사랑으로 제국주의의 봉쇄환을 끊어버리고 사랑으로 동토대를 녹여 꽃을 피우시며 사랑으로 정치적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으로 강성대국의 준마를 달리게 하시는 사랑의 화신이시었다.

김성훈은 심장속에서 솟구치는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으로 눈곱이 젖어들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리석준의 손을 뜨겁게 잡아 주시었다.

《지배인동무, 용기를 냅시다. 자재는 걱정 마시오.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리석준은 고마움으로 목이 메여 말을 못했다.

《아, 그리구 또 한가지...자남별 문제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리석준은 겨우 들릴듯말듯 말씀드렸다.

《장군님, 제가 도루 찾겠습니다.》

《하하...》

김정일동지께서는 호탕한 웃음을 터치시었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타신 승용차는 자남산로동계급들의 열광적인 배려움을 받으며 천천히 움직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차창가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고 오래도록 손을 흔들며 주시었다. 이때 사람들속에서 두사람이 불쑥 뛰어 나왔다. 그들은 승용차를 향해 달려왔다. 그이께서는 한동안 그들을 지켜 보시었다. 승용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그들은 더욱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려 왔다. 쉬이 떨어질상 싶지 않았다.

그이께서는 차창밖으로 손을 저어주시었다. 김창석부부였다. 그들은 허리를 깊숙이 숙여 그이를 배례워 드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들이 다시는 떨어지지 않고 자동차생산으로 참된 사랑을 꽃피우리라는것을 믿어마지 않으시었다.

자남산의 술술이 설레었다. 숲에서 쏟아지는 하얀 눈가루들이 축복의 꽃보라인양 대지에 흩날렸다.

비범한 예지의 빛발이 낳은 수령송배의 빛나는 정화

불후의 고전적명작 **《축복의 노래》**가 탄생된지도 어느덧 50년 세월이 흘렀다.

50년! 10년이면 변한다는 강산도 5번이나 변했을 기나긴 50년 세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선군시대의 하늘가에 울려 퍼지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축복의 노래》**.

우리는 지금 고전적명작의 불멸의 의의를 류다룬 궁지와 자부심, 깊은 감회속에 가슴 뜨겁게 되새겨 보며 문학예술의 비범한 영재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의 정에 휩싸여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축복의 노래》**는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귀감이시며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비범한 예지의 빛발이 낳은 수령송배의 빛나는 정화이며 비상한 사상미학적감화력을 가진 수령칭송의 최고걸작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수령님은 우리 인민의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온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의 태양이십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축복의 노래》**가 오늘날 우리의 가슴에 싱싱한 활력을 부어 주고 선군시대 서정을 더 한층 팽배히 하여 주는것은 이 송가에 수령이자 조국, 조국이자 수령이라는 송고한 조국관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명작 **《축복의 노래》**를 창작하신 주체42(1953)년 6월로 말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결사수호전을 벌리던 첨예한 시기였다. 미제는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없애보려고 최대의 발악을 다하였으며 바위가 타고 강물이 끓어 번지던 조국강산은 온통 포연에 잠겨 있었다. 참으로 우리 인민이 자주적인민으로 되느냐 제국주의자들의 노예로 되느냐 하는 판가리결전의 시기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제국주의자들과의 판가리대결전을 승리로 이끄시었다.

조국해방전쟁의 운명, 그것은 우리 조국의 운명이였다. 이 모든것이 우리 수령님의 한몸에 체현되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기치이고 상징이였고 우리 삶의 전부였으며 조국의 미래이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축복의 노래》**는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가장 준엄한 시대의 요구와 지

향을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은 찬란한 조선의 미래이라는것을 사상정서적핵으로 하여 수령님의 건강과 안녕을 축원하는 전인민적감정을 뜨겁게 일반화하여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다.

**어둡던 강산에 봄을 주시고
조선을 빛내신 아버지장군님
저 멀리 하늘가 포연이 서리면
인민은 안녕을 축복합니다**

**나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아버지장군님 인민의 수령님
준엄한 전선길 안녕하십니까
온 나라 가정의 행복입니다**

**미제를 쳐부신 영웅의 땅에
락원을 펼치실 아버지장군님
찬란한 조선의 미래를 위해
인민은 안녕을 축복합니다**

고전적명작에는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조국해방을 위한 혁명의 길에 오르시여 백두광야를 주름 잡으며 항일대전을 벌리시여 조선의 새봄을 마련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미제와의 판가리대결전을 승리로 이끄시며 불 타는 전선길에 계시는 숭엄한 모습이 축복의 뜨거운 정서적화폭속에 부각되어 있으며 수령님께서 계시야 조국의 미래가 있다는 신심과 락관이 뜨겁게 굽이치고 있다.

고전적명작은 이처럼 폭 넓고 깊이 있는 주제사상적인 내용을 강한 서정론리로 일반화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축복하는 전인민적감정을 완벽한 시형상으로 뜨겁게 토로하고 있다.

명작의 1절은 항일의 불바다를 헤치시며 조국해방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송배의 감정이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더욱 뜨겁고 절절하게 타오르고 있음을 정서 깊이 노래하고 있다.

살아서 깃 들일 곳 없고 죽어서 묻힐곳이 없이 모든것이 강도일제에게 빼앗긴 조국강산은 해와 달도 별마저 빛을 잃은 캄캄한 암흑의 천지였다. 마침내 조선의 밤하늘에 새별이 솟아 삼천리강산을 밝게도 비치며 간악한 강도 일제를 쳐물리치고 조국땅에 해방의 새봄을 불러 왔다.

《어둡던 강산에 봄을 주시고 조선을 빛내신 아버지장군님》께서 미제와의 결사전이 벌어 지는 최전선에 계신다. 하기에 인민은 **《저 멀리 하늘가 포연이 서리면》** 운명의 전부이신 위대한 수령

님의 안녕을 축복하며 심장을 끓이는것이다.

2절에서는 1절에 제시된 이와 같은 뜨거운 승배의 감정을 보다 더 구체적인 생활감정으로 승화하여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는 수령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이며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특출한 위인이며 수령과 인민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정치적생명체라는 투철한 수령관이 뜨거운 정서속에 맥박치고 있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이 있고 전쟁의 승리도 후손만대의 행복도 있는것이다. 따라서 **《나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준엄한 전선길 안녕하십니까 온 나라 가정의 행복》** 인것이다.

명작의 3절에서는 1, 2절에서 정서적이고조점을 이루고 노래된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바라는 시대와 인민의 지향과 념원이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승리를 확신하는 신념과 락관으로 고조되어 힘 있게 울리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미제와의 전쟁에서 이길수 있으며 이 땅에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울수 있으며 조국의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도 쏙 떠난다. 이 철석의 신념과 락관으로부터 온 나라 인민의 심장속에서 절절히 울려 나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이다.

명작에서 시대의 절절한 념원이 걱정에도 넘쳐 울려 나오는것처럼 어버이수령님의 안녕은 우리 인민의 행복이며 조선의 찬란한 미래인것이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혁명의 간고한 시련을 이겨내면서 심장으로 체득한 삶의 진리이며 좌우명이다. 우리 인민은 역사적체험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온몸으로 깊이 간직하였고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숭배하며 그이의 안녕을 결사보위해 드리는것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라는 진리를 사무치게 절감하였다.

명작에 맥박치는 수령숭배의 뜨거운 감정은 이처럼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 념원으로부터 출발하는 가장 진실하고 공고한것이다. 여기에 바로 고전적명작에 넘쳐 흐르는 사상정서의 심오한 철학적바탕이 있고 생활적진실성이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축복의 노래》**는 문학예술에 대한 특출한 조예와 비범한 예술적천품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비로운 예지의 빛발이 나래치는 수령칭송시가문학의 본보기이다.

명작의 심오한 사상정서는 미학적으로 완벽한

경지에 이른 높은 예술성에 의하여 안반침되고 있다.

명작은 어버이수령님의 안녕은 우리 인민의 행복이고 미래이라는 사상적핵을 력사적구체성속에서 서정화하여 감동깊이 노래함으로써 시적일반화의 심도와 사상정서의 사실주의적진실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있다.

명작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당시의 현 시점에서 정서적운동을 과거와 미래으로 확대집중시킴으로써 송가의 사상정서적심오성과 생활적진실성을 보장하고 그의 형상적 품위를 한껏 돋우고 있다. 이와 함께 매절의 같은 위치에서 특색있게 제시된 시적정황- **《저 멀리 하늘가 포연》**, **《준엄한 전선길》**은 사상정서적주장의 심오성과 절절함을 한층 더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명작은 매절의 첫행에서 해당절에서 노래하려고 하는 사상정서적핵을 감수할수 있는 제시를 줌으로써 절절내용이 명확히 안겨 오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대와 력사를 안고 있는 포괄적이며 표현적인 함축된 시어, 친근하고 장중한 시운물들은 숭엄한 양상으로 특징 지어지는 명작의 시형상을 더욱 부각하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다. 이렇듯 명작에는 사상정서의 기백과 열정에 있어서나 형상의 폭과 깊이에 있어서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세계가 깃들어 있다. 참으로 불후의 고전적명작 **《축복의 노래》**는 10대의 나이에 수령관, 조국관을 터득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문학예술에 대한 비범한 예지의 빛발이 날은 수령송가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이 창작된 때부터 반세기가 흘렀지만 수령송가의 사상정서적주장의 철학적심오성과 최상의 예술적경지로 하여 오늘도 사람들에게 수령숭배의 숭고한 사상을 가슴깊이 간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위대한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운명,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끝 없는 전진시찰의 길을 걸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도록 힘 있게 고무하여 주고 있다.

우리는 고전적명작을 본보기로 하여 21세기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결사옹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선군령장관을 더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선군시대에 사는 작가로서의 근본사명을 다해 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가자

우리의 최고사령관이 계시는 곳

문동식

소슬한 바람결에
방울나무 단풍드는 어느 가을날
최전연 굽이굽이 경길을 넘으시여
여기 신천박물관에 몸소 찾아 오신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

그이는 그날
무거운 침묵속에 보시였어라
선량하고 정직한 조선인민을
사지를 찢고 눈알을 뽑아 내며
히히닥거리는 미제의 물골을

창밖은 락원이 꽃피는 내 조국땅이여도
여기 박물관안은 죽음의 생지옥
그이는 그날
백두령장의 거룩한 자옥을
미국의 종심깊이 찍어가셨거니

마치 마귀들의 캄캄한 동굴속에
하늘땅이 생겨 처음 해빛이 흘러 든듯
그이의 번쩍이는 눈빛앞에
미제식인종들 공포에 떨었노라
피 묻은 두손으로 눈을 가리우며

했건만 그이께선
그 악마들을 노려보시며
뒤집 지신 두 손을
곱았다 뿔다 하시기를 그 몇번

아마도
인디안의 해골우에 솟아난
피에 절은 미국의 300년
《서던》 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저지른 무수한 참화들을
하나하나 세여 보시는가

가사

그 최악의 값을 계산하시는가

소리없이 무겁게 움직이시는
그이의 두주먹...
어찌하랴
이제는 더 피할 길 없는 미제
이제는 더 살아날 구멍이 없는 미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축지법을 쓰시며
온 천하를 쥐락펴락하시는
천출명장의 두주먹안에
백악관이 쥐여져 있었고
거대한 중압의 그 주먹속에서
최 많은 《아메리카합중국》이
마지막숨을 토했고 있었노라

그이는 그날
여기 신천박물관을 나서시여
길가에 곱게 피여 살랑거리는
들꽃 한송이를 손에 따드시고
조용히 야전차에 오르셨나니

천리 또 천리
해빛속에 함께 살수 없는
그 야수들을 암흑속에 더 멀리 떨구시며
박차를 가하시는 최전연 길에
백화는 활짝 피여 만발했어라

그이는 손에 드신 한송이 들꽃으로
꽃구름 꽃바다를 온 누리에 펼치시며
가고 또 가시여라
나비가 춤 추고 새들이 노래하는
가도가도 끝없이 화창한 길로
미제가 없는 자주화된 새 세계로

병사는 고향의 아들

김재필

사랑하는 고향아 정다운 품아
군복입은 이 아들의 인사를 받아다오
나를 키운 산천이여 잘 있으라
너를 위해 이 아들은 병사가 되었노라

멀리 가니 그리워 더욱 그리워
전호에서 총 잡고 너의 노래 불렀지

나를 키운 산천이여 알아 다오
너를 위해 이 아들은 초소에 서있노라

아름다운 고향아 귀중한 품아
장군님품에서 무궁토록 번영하라
나를 키운 산천이여 믿어 다오
너를 위해 이 아들은 한목숨 바치리라

수령님추억속에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도 반세기전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정경들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보천보전투는 한마디로 말하여 생리별을 당한 어머니와 그 자식들의 상봉과 같은 사변이었다고 할수 있다. 조국은 보천보에서 울린 총소리를 계기로 하여 자기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충직한 아들딸들을 만날수 있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전투는 망국사의 흐름을 광복으로 돌려세운 결정적인 계기의 하나였다고도 표현할수 있다.》

《우리는 보천보전투를 통하여 일제란 칼로 내려 치면 동강이 나고 불을 지르면 짙검불이나 북데기처럼 타번지는 일종의 폐기를 같은 존재라는것을 보여주었다. 해와 달도 빛을 잃어 가던 조국땅에 있어서 보천보 밤하늘에 떠오른 불길은 민족의 재생을 예고하는 서광이었다.》

운명의 밤

리금주

압제의 쇄사슬에 묶이워

한숨에 눌리우던 불쌍한 운명들이

골목의 여기저기 구석마다에

막돌처럼 구겨박히고

가림천의 세찬 물소리도

침침 산으로 둘러 막힌 고요속에

거칠게 들려 오는 운명의 숨소리인양

이 나라의 한숨을 모아 싣고

더더욱 짙어 가던 보천보의 밤

어둠에 지친듯

삐딱문에 회미하던 등잔불도

이 밤이 역겨운듯 잠들어 버린

지겹게 짙어 가는 보천보의 밤

허나 모르고 있었다

보천보의 밤은

어느분이 자기를 지켜 보고 계시는지

이 숨막히는 장막이 어떻게 벗겨지리라는것을

그이는 빨찌산 김대장

그 이름만 들어로 삼도왜적 벌벌 떠는

조선의 **김일성**장군

어둠을 딛고 선 그이의 가슴속엔

이 땅을 휘몰아 타번져 질

불, 불이 재워지고 있었다

그 밤이었다

쓰러져 가는 조선의 모든 운명을

총대의 총신강에 하나로 휘감아 쥐고

총대의 조문으로 어둠없는 새 세상을 내다본

아, 운명의 밤이여

짓눌린 이 나라의 모든 운명들이

총대를 기둥으로 더 굳게 하나로 합쳐 지고

승리의 방아쇠에 새날을 맡겼으니

밤 10시

장군이 추켜든 짜창에서 불이 올랐다

조선의 새날이 고고성을 터쳤다

결사각오의 투지가 맥박치는 전투적랑만의 서정

김순림

6월이 왔다. 해마다 맞는 6월이지만 선군의 기치 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힘있게 떨칠 공격전의 해에 맞는 6월이어서인가, 《지원》의 글밭이 우리의 가슴속에 더 뜨겁게 안겨온다. 그럴수록 우리는 류다른 감회와 흥분을 안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특출한 문예활동을 뜻 깊게 되새겨본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조국해방의 려명을 안아 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앞당겨 나가면서 혁명적시가창작과 보급사업을 혁명활동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여기시고 이 사업을 혁명투쟁 전기 간에 줄기차게 벌려 나가시었다.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적문필활동에 힘 있게 관통되어 있는 사상은 선생님께서 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셨던 《지원》의 숭고한 뜻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지원>의 사상은 개인의 영달이나 림신양명을 넘두에 둔 세속적인 인생교훈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인생관이며 대를 이어가며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광복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철저히 《지원》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문필활동을 복종시켜 나가시었다. 하기에 선생님께서 고귀한 유산으로 남기신 작품들에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대를 이어 가며 싸워서라도 기어이 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 힘있게 굽이치고 있다.

김형직선생님의 시가유산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감정이 진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것과 글과 필자와의 관계, 필자의 사상과 글의 사상과의 유기적인 호상관계에 대한 선생님의 선진적인 견해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때문에 선생님의 혁명적시가작품들에는 시대성이 절절하게 맥박치고 있으며 적극적인 문제성과 함께 투쟁으로 부르는 호소성이 강하고 혁명적기백이 약동하고 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남기신 불후의 시가작품들이 근 한세기가 되어 오는 오늘에도 시대와 력사의 새날을 부르는 메아리로 만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 주는것은 결사각오의 투지가 맥박치는 전투적랑만의 서정이 웅심깊게 흘러넘치고 있기때문

이다.

찬바람 불어에는 산정에 거연히 솟아 사시장철 푸르려 변함없는 소나무의 억센 기상이 반드시 오고야 말 자주독립의 밝은 려명으로 뜨겁게 노래된 시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비롯하여 선생님의 시가작품들에는 혁명의 앞길에 어떤 풍파와 곡절이 가로 놓인다 하더라도 끝까지 변치말고 혁명의 한길을 곳곳이 걸으리라는 결사각오의 굳센 신념과 의지가 고동치고 있으며 혁명적랑만이 설레이고 있다.

몸이 찢겨 가루가 되는한이 있더라도 기어이 해방의 큰 뜻을 성취하고야 말 결사각오의 투지와 신념에 찬 전투적랑만의 서정은 선생님께서 주체12(1923)년 가을 신파, 삼수일대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때에 지으신 시가작품에서 더욱 힘 있게 풍기고 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이시기 로동자, 농민들속에 들어가 적극적인 반일선전으로 그들을 혁명조직에 받아 들이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리시는 한편 이곳 독립운동가들과 여러차례의 비밀모임을 가지시고 반일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것과 장백지구의 무장대오를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여 우수한 청년들을 선발하여 무장대오에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너럭바위 남시터에 나오시여 시 한수를 읊으시었다.

장진강 거센 물결아

너는 애국지사들의 푸른 냇과

이 나라 백성들의 뜻을 담아싱고

흐르고 또 흘러라

김형직선생님께서 가슴에 늘 품고 계시던 혁명의 큰 뜻을 장진강 푸른 물결에 담아 지우신 시 《장진강 거센 물결아》에는 무산혁명의 큰 뜻을 품으시고 무산대중을 조직동원하여 강도일제를 무장으로 때려 눕히고 나라의 해방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려는 결사각오의 투지와 확고한 결심이 격조높이 노래되고 있다.

결사각오의 투지와 랑만의 서정은 김형직선생님께서 주체12(1923)년 11월 초 삼수군 일대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때에 지으신 시에서 더욱 힘있게 나래치고 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삼수일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지도사업을 마치시고 성내리에 들리시여 삼수성 북문다락과 동문다락에 오르시었다.

선생님께서서는 이 삼수성이 너진족의 침입을 막

기 위하여 쌓은 성인데 홍범도의병들이 이 성에
진을 치고 왜놈들과 싸웠으나 실패하였다고 격분
에 넘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나라잃은
망국노의 신체는 처참하고 왜놈은 우리 인민의
원썬이며 모두다 힘과 지혜를 모아 왜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힘껏 싸우자고 호소하시
면서 걱정과 넘쳐 비분강개한 감정으로 시 한수
를 읊으시였다.

나라를 잃어 버린 민족의 슬픔
성안에도 가득히 어리였구나
잃었다 울지 말고 총을 잡자
해방의 내 나라 찾고서야 말리

사생결단으로 총을 잡고 원썬들을 몰아 내고
조국해방을 이룩하고자 말리라는 결사각오의 투
지와 랑만이 얼마나 뽕배하게 넘쳐나는 서정의
분출인가. 참으로 시에는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
를 빼앗긴 우리 인민의 비통한 체험의 눈물을 복
수로 바꾸어 무장으로 일제를 때려 부시고 기어
이 조국해방을 이룩하고자 말리는 우리 인민의
멸적의 의지와 필승의 신념이 차넘치고 있다.

결사각오의 투지가 뜨겁게 숨배여 있는 선생님의
시가에는 민족자주정신과 함께 반드시 도래하
고야 말 양춘에 대한 열망과 필승의 신념이 도도
히 굽이치고 있다. 이러한 랑만의 정서는 시 《산
종고 물맑은 아름다운 내 조국》에서 더욱 진하게
채색되고 있다.

산 종고 물 맑은 아름다운 내 조국
금수강산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산과 들엔 오곡백과 무르익고
동해의 어벌들은 헤엄쳐논다

백두의 높은 기상 곳곳이 품고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내 나라
왜놈들을 이 땅에서 때려 부시고
자유로운 회복 위해 용감히 싸우자

참으로 이 시에는 김형직선생님의 숭고한 《지원》의 사상이 강렬한 랑만의 서정으로 응심깊게
노래되고 있다.

산 종고 물 맑은 아름다운 금수강산, 금은보화
가득찬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랑이 한껏
무르익으면서 이처럼 아름다운 삼천리금수강산
을 사나운 구두발로 짓밟고 암흑의 천지로 만들
어 놓은 강도 일제에 대한 불타는 증오가 대조적
으로 이글거리고 있다.

빼앗긴 조국을 두고 타래치는 분노의 감정은
백두의 높은 기상을 타고난 민족의 기개와 반만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슬기로운 민족의 녀에 대
한 긍지의 정서로 뜨겁게 승화되면서 민족자주를
이룩하고자 말리라는 신념의 울림으로 힘 있게
메아리치고 있다.

이밖에도 가요 《전진가》, 시 《통군정의 노래》,
《짓밟힌 동포야 일어나거라》, 《철봉산》 등 김
형직선생님께서 남기신 시가유산들은 《지원》의
숭고한 철학사상이 깊이 숨배여 있고 시대의 서
정이 뜨겁게 분출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세월이
흐를수록 비상한 감화력과 견인력을 가지고 더욱
힘있게 울려 퍼지고 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혁명적시가작품들에서 확신
에 넘쳐 노래한것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 오르시고 항일혁명투쟁을 벌
리심으로써 이 땅에는 해방의 새날이 밝았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은 백두광
명성으로 높이 솟아 오르시여 선군령도로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을 빛내여 나가시는 위대한 장군
님에 의하여 곳곳이 이어지고 있으며 세기의 창
공높이 빛을 뿌리고 있다.

우리는 김형직선생님의 시가들에 맥박치고 있
는 결사각오의 투지와 전투적인 랑만의 서정을
선군시가작품들에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선군문학
의 미학정서적감화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것이다.

수령님추억속에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내가 철이 들자 아버지는 나에게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는것을 가르치면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
려면 큰 뜻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지원>이란 문자 그대로 뜻을 원대하게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뜻을 원대하게 가지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별로 특이할것은 없다. 무슨 일을
하든지 높은 리상과 포부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성공할수 없다.

그러나 <지원>의 사상은 개인의 영달이나 립신양명을 넘두에 둔 세속적인 인생교훈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인생관이며 대를 이어 가며 싸워서라도 기
여이 나라의 광복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다.》

수령님추억속에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내가 사상이나 정신면에서 아버지한테서 물려 받은것이 많지만 재물이나 금전상으로 상속받은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 우리 고향집에 전시해놓은 농쟁기나 가정도구들도 모두 할아버지가 남긴것이지 아버지가 물려 준것은 아니다.

<지원>의 사상, 3대각오, 동지획득에 대한 사상, 두자루의 권총, 이것이 내가 아버지한테서 물려 받은 유산의 전부였다. 그것은 모진 고생과 희생을 전제로 하는 유산이였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그보다 더 훌륭한 유산이 없었다.》

연포리의 함박눈은 뜨겁다

서봉재

세찬 설풍
모진 혹한에
연포천 개울도 얼음에 덮였건만
키 낮은 주막집 마당가를 거니는 이 마음
자옥자옥 옮길수록 뜨거웁다

흰눈 덮인 산천을 둘러보니
귀전에선 뽀뽀 그날의 눈보라가 온다
우리의 김형직선생님
원통케도 원쑤의 포승에 묶이워
연포리의 이 집 마당에서 뽀뽀 그 증오
내 걷는 걸음앞에 황황 불길로 인다

삼천리 온 강토, 동북 광야에
피줄처럼 이어 놓으신 조선국민회
그 조직들에 반일항전의 불씨를 심어주시려
사품치는 압록강의 깊은 물도
두대의 작대기를 놓고 건너 오신
잊지 못할 하산포의 그 엷은 얼음장
톡톡 흥벽을 치며 안겨 와라

위대한 반일의 선각자가 가시는 길
총칼의 숲 겹겹으로 막아서고
자옥마다 따라서는 경찰의 마수는
선생님의 걸음을 묶어 놓았어도
강토를 안으시고 몸부림치던 그이의 심장
광광 삼천리에 우뢰를 터치였나니

혁명의 길에 일어 죽을수도
기아를 넘어 굶어 죽을수도
세찬 채찍에 맞아죽을수도 있다는
사생결단의 3대각오가
끝끝내 일제의 죄사슬을 끊어 버리고

눈보라 휘몰아치는 뽀족봉에 투쟁의 기발처럼
펄펄 흰 두루마기자락 날리신 우리의 선생님!

빼앗겨 짓밟힌 나라를 찾기 위해
인민의 노예사슬을 풀기 위해
더운 피 식히던 동상의 그 아픔 무엇이였으랴
도탄에 우는 민족의 운명 구원하시려
연포리 주막집 이 뜨락에서 더 큰 자옥 떼신
선생님의 끝 없는 투쟁의 장정이어

아늑한 집의 아래목이 아니라
추위와 주림을 목숨과 쉬이 바꿀
강의한 정신으로 얼음끼 강토를 녹이고
불굴의 신념으로 겨레의 가슴가슴에
해방의 려명을 안겨주신 불멸의 위업이어

력사의 그날 선생님 헤치신 눈보라
천신만고로 꽃핀
어버이수령님 찾아 주신 사회주의 이 강산
위대한 장군님 빛내가시는 강성번영의 내 나라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높이신 뜻이
태양민족의 행복으로 넘치는 나의 조국!

아, 죽음을 각오한 사람 당할 자
세상에 없음을 천만심장에 새겨 주신
그 숨결 오늘도 뜨거워
송이송이 흰눈 못잊어 내리는가
선생님 지팡이를 장검처럼 짚으시고
삼천리 강토를 굽어 보시던
뽀족봉을 우리러 바라보니
나의 불을 스치는 함박눈
연포리의 눈은 뜨겁구나!

(김형직군 연포리사적지에서)

어머니의 당부

강호진

《지금부터 전국원군미풍열성자대회 토론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는 간호원처녀의 부축을 받아 침대머리에 반쯤 기대앉았다. 텔레비전에 눈길을 주던 나는 갑자기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채 아물지 않은 부상자리가 띠끌했다.

(아, 어머니!)

토론연단에 나선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비쳐 들었다. 수수한 흰 치마저고리에 반백이 된 머리, 주름 깊은 얼굴...

《아는 어머니예요?》

간호원처녀의 호기심 어린 물음에 나는 머리만 끄덕이며 텔레비전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저는 지금까지 나라에 크게 보탬을 준 것도 없고 인민군대원호사업에서 남달리 자랑할만 한 일도 해놓지 못했습니다.》

다소 흥분된듯 한, 어릴적부터 귀에 익은 조용한 목소리가 입원실안에 울려 퍼진다.

《제가 한 일이 있다면 한생 전쟁로병이며 영예군인인 남편의 뒤바라지를 해온것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군대에 내보낸것뿐입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녀인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전선시찰의 길에서 저의 아들이 세운 위훈에 대하여 보고 받으시고 그를 높이 치하해 주시었으며 오늘은 또 이렇게 저를 영광의 대회장에 불러 주시었습니다. 저의 아들은 어려서부터 문학에 남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시인이 되는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총잡은 병사로 되었습니다.》

이 세상 어머니들의 하나 같은 소원은 자식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는것일것이다. 나는 한때 이름난 시인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내가 군복부터 입기를 바랐다. ...사실 나는 병사가 될 결심을 쉽게 한것이 아니었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이름할수 없는 걱정과 추억의 파도가 뒤설레었다. ...시대의 요구에 자기의 발걸음을 맞추는것이 나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다나니 나는 우리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앞서 걸은 군사복무의 길을 뒤늦게야 걷게 되었다. 아버지의 한생이, 어머니의 소원이 나를 그 길로 떠밀어 준 것이었다.

1

내가 태어난지 1년이 되는 돌생일날이었다고 한다.

영예군인가정에서 결혼후 10여년만에 태어난 아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 하며 찾아와 축하해 주었다. 고마운 사람들의 성의 속에 차려진 생일상우에 저마다 준비해 온 기념품들이 올랐다. 깜찍한 색동옷이며 고급당과류, 맛있는 놀이감, 금촉만년필... 그리고는 내가 무엇을 집는가 하고 호기심과 기대어린 눈길로 지켜 보았다.

《만년필을 집어야 공부를 잘한다니까!》

《아니, 아니요. 남자는 우선 건강해야 돼. 먹물 걸 집어라!》

저마다 웃고 떠들며 나를 부추겨 댔다.

그때 어머니가 내곁으로 다가왔다. 어머니는 화려하고 번쩍거리는 기념품들에 가리워 잘 보이지도 않던 나무다발총을 집어 들었다. 무척 서툰 숨쉬었지만 색칠까지 정성스레 한것이였다. 한 팔밖에 없는 아버지가 오래동안 품들여서 만든것이였다.

어머니는 그것을 나의 작은 두손에 정히 쥐여 주었다. 나무총을 꼭 잡은 나는 입을 짹 벌리고 웃으며 둘러 선 사람들을 올려다 보았다. 사진기의 셔타소리가 찰칵 하고 귀맛 좋게 들려 왔다. ...

물론 그날의 일을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후날 어머니의 이야기와 사진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사진에는 다발총을 잡고 밝게 웃고 있는 나를 량옆에서 대견한 눈길로 정겹게 지켜 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찍혀 저 있었다. 나는 사진을 보면서 웃었다.

《총이 정말 멋이 없게두 생겼네. 내가 이런걸 골라 잡았댔나!》

나의 말에 어머니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그 총은 너의 아버지가 만드신거다...》

《그래요?》

나는 어머니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 보냈다.

《상점에도 좋은 놀이감총이 많았을텐데 괜히 만드느라고 고생했겠군요.》

그때 어머니의 얼굴에 비꼰던 실망의 빛을 나는 보지 못했다. 보았더라면... 하긴 왜 어머니가 실망 했는지 몰랐을것이다. 어머니도 나에게 굳이 깨우쳐 주려 하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의 소박한 기념품에 담긴 뜻을 스스로 느끼기를 바라서였을것이다.

고운 세살, 미운 일곱살이라고 어릴 때 나는 장난이 세찬 애꾸러기였다. 그래서 어머니의 속

을 많이도 태웠다. 남의 집 어머니들은 곧잘 제 자식의 편역을 들었으나 우리 어머니는 한번도 그런적이 없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엄하게 꾸짖고 가차없이 매도 들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턱없이 《너그러워》 지기도 하였다.

한번은 동네아이들을 휘동해 가지고 군사놀이를 한다면서 남의 집 터밭에 뛰어 든적이 있었다. 물론 한창 자라는 남새들이 못 쓰게 되었다. 저녁에 그 집 주인이 찾아 와서 한바탕 야단을 피우고 돌아 간 뒤에야 나는 슬그머니 집에 들어섰다. 나의 손에는 회초리대가 들려 있었다. 아무래도 맞을 일을 저질렀는데 하는 생각으로 꺾어 오긴 했으나 혹시 내가 스스로 가져 온 회초리로 는 어머니가 매를 들지 않을수도 있다는 엉큼한 생각에서 들고 온것이였다. 언젠가 어머니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스스로 잘못을 빌면 벌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던것이다.

그런데 어머니는 내가 꾸밈거리며 내드는 회초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나를 지켜 보기만 했다. 그러더니 나직한 어조로 물었다.

《너 어제 유치원에서 옆집 정향이가 탄 빨간 별을 빼앗아서 달았는지?》

나는 뜻밖의 물음에 아연해 졌다.

《네것도 있는데 왜 그랬니?》

너무도 차분한 어조에 용기를 얻은 나는 사실대로 터놓았다.

《사실은 아버지한테 보여 줄려구... 빨간 별을 많이 탔다면 좋아 할줄 알고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는 부상자리가 도져서 입원해 있었다. 병원이 멀지 않은 곳이어서 나는 자주 찾아가곤 했는데 늘 《우리 현우가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을 했나. 그래 빨간 별을 몇개나 탔니?》 하고 묻던 아버지였다.

나의 말에 이윽도록 말이 없던 어머니는 《현우야, 아버지는 그런 빨간별은 바라지 않으신다. 알겠니?》 하는것이였다.

나는 제격 머리를 끄떡였다. 그리고는 서둘러 말했다.

《엄마, 나 다시는... 총놀이라도 안할래요. 정말이에요!》

그러자 어머니는 나를 꼭 안아 주었다.

《그건 왜? 마음껏 뛰놀아라. 군사놀이도 계속 하고. 하지만 인민군대는 너처럼 남의 집 터밭에 뛰어 들지는 않아. 군사놀이를 하겠으면 진짜 군대처럼 해야지!》

《엄마!》

나는 마음을 폭 놓고 어머니의 가슴을 파고 들었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다시는 어머니의 속을 태우지 않을테야!)

하지만 그 결심은 오래 가지 못했다. 며칠후에

나는 유치원에서 낮잠시간에 몰래 도망쳐 나왔다.

그리고는 높은 담장우에 올라 가 놀다 떨어쳐서 팔과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교양원이 나를 업고 황급히 병원으로 뛰어 갔다. 어머니도 직장에서 연락을 받고 허둥지둥 달려 왔다. 와 보니 의식을 잃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의사들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날따라 몇 차례나 중환자수술을 하다보니 당장 나에게 수술할 피가 없었던것이다.

《의사선생님, 제 피를 뽑아 주세요.》

서슴없이 나서는 어머니를 교양원이 만류했다.

《현우 어머니님 안됩니다. 요즘 병원에 입원한 현우 아버지의 시중을 하느라고 무척 축갔는데 그 몸에 피까지 뽑으면... 제가 뽑겠어요.》

《나야 어머니가 아니냐요. 의사선생님, 어서...》

그렇게 되어 어머니의 피가 내 몸에 흘러 들었다. 수술이 끝난후 모두가 좀 쉬라고 권했으나 어머니는 내결에서 꼬박 밤을 새웠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일과처럼 되다싶이 한 아버지의 병문안을 하고는 그 길로 직장에 출근했다. 의사들이 현우가 깨어 나면 어머니를 찾을텐데 오늘날은 직장에 나가지 말라고 했으나 얼굴이 해쓱해 지고 눈에 충혈이 진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말은 기대가 없으면... 우리 현우야 좋은 의사선생님들이 수술했는데 어련히 눈을 안 뜰라구요.》

나는 정말 의식을 차리자마자 어머니부터 찾았다. 그러나 곁에 둘러서서 기뻐 하는것은 낯선 모습들뿐이였다.

《엄-마!...》

《현우야!》

교양원이 나의 손을 꼭 잡아 주었다. 그래도 나는 계속 어머니만을 찾았다. 둘러 섰던 의사며 간호원들은 모두 나의 애절한 눈길을 슬며시 외면했다...

《엄만 내가 밋나? 자꾸만 속을 태워서...》

《아니, 아니다. 난 우리 현우가 제일 곱단다!》

《근데 왜 날 두고 직장에 나갔었나?》

《엄마가 일을 못하면 다른 아버지, 어머니들의 일감이 더 많아 진단다. 그렇게 되면 이 엄만 현우한테도 몇몇하지 못해.》

《응!-》

나는 마치 어머니의 말뜻을 알기라도 한듯이 머리를 끄떡였다.

《엄마, 얼굴이 왜 그렇게 새하얘졌나?》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못했다.

《현우야, 이젠 자자. 응, 엄마가 이렇게 꼭 안아줄게.》

《응.》

나는 저도 모르게 아기때처럼 어머니의 가슴을

더듬었다. 어머니의 살뜰한 손길이 내 잔등을 다독여 주었다. 창밖의 검푸른 밤하늘에서 수많은 애기별들이 줄음을 청하며 깜빡이는데 둥근 보름달이 유정한 빛으로 은은하게 감싸주는듯 했다.

(애기별아, 너의 엄만 달님인게지. 그런데 너의 엄만 너를 꼭 안아 주지 못하는구나. 우리 엄만 날 꼭 안아 준단다. 부럽지? 그리구 넌 아니? 이렇게 좋은 우리 엄마가 왜 나보다 직장일을 더 고와 할까?)

애기별도 잘 모르겠다는듯 줄음 실린 눈빛으로 가물거렸다. 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살쾅이 잡들고 말았다.

2

하늘땅이 좁다고 날뛰는 눈보라, 눈보라... 대기에 얼어 붙은듯 한 어둠, 살을 에이는듯 한 추위와 자꾸만 내려 감기는 눈시울... 나는 달리고 있다. 눈이 무릎까지 치는 산길을 힘겨웁게 달린다.

입대후 처음으로 참가한 천리행군, 군사복무과정에 어느 때가 제일 힘든가고 물으면 제일 먼저 꼽는다는 천리행군이다. 오죽이나 힘들었으면 본대가 서로 허리에 끈을 이어 매고 걸으면서 줄다가 한 전사가 넘어지는 바람에 모두 눈구덩이 속에 쓰러졌으랴. 그래도 대렬은 쉬임없이 전진한다. 누구라없이 춥고 힘들고 지쳤건만 행군대 오는 순간도 멎어 설줄 모른다.

어째서인지 나의 뇌리에 오래전의 어느 겨울날 아침이 떠오른다.

...내가 열살나던 해 겨울방학때였다. 어머니가 흔들어 깨워서야 겨우 눈을 떠보니 창유리에 성애가 허영게 불렸다. 어찌나 두텁게 성애가 덮였는지 창밖이 보이지도 않는데 으쭙한 눈보라소리가 간간이 들려 왔다. 나는 몸을 웅송그리며 이불속으로 더 기여 들어 갔다.

그런데 이불이 훌 벗겨 지는것이였다. 나는 눈이 울롱해서 머리맡의 어머니를 올려다 보았다.

《일과표대로 해야지. 어서 일어 나가라.》

나는 눈살을 찌프렸다. 방학이 시작될 때 아버지는 직접 나의 일과표를 만들어서 책상앞벽에 붙여 주었다. 아침 6시 기상, 잠자리정돈, 아침달리기 및 체조, 땀수마찰...

《이담에 인민군대가 되려면 지금부터 단련해야 한다. 어때, 이대로 할수 있겠니?》

나는 자신있게 대답했었다. 그러나 막상 일과표대로 하자니 귀찮아 졌다. 방학인데 무엇때문에 아침 일찌기 일어 나야 하며 하필 오늘같이 추운 날에 달리기를 해야 한담?

《나 래일부터 달리기 할래요.》

나는 발가락으로 이불을 끄당겼다. 하지만 아무리 발가락에 힘을 주어 당겨도 이불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재미 있다는듯이 웃으면서

이불을 잡고 있는것이였다.

《그렇게 나약해 가지고 사내라구? 대장부는 한입으로 두말하지 않아. 이제부터 너희 학급 너애들 하고 치마를 바꿔 입어라.》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쳇, 내가 왜 사내가 아니란 말인가! 하면서도 자존심이 상해서 자리를 차고 일어 났다.

《어이구, 이제야 사대답구나!》

어머니는 아래목에 미리 널어놓아서 따뜻해 진내의와 체육복을 입혀 주었다. 그러나 내가 솜옷까지 꺼입자 대뜸 벗기는것이였다.

《바깥이 저렇게 추운데 솜옷도 없이 나갔다가 뽕뽕 얼라는거예요?》

《달리면 얼지 않아. 주체사상탑까지 뽕다 달려 보렴. 어디 어는가 안 어는가 보자.》

나는 두덜거리며 집을 나섰다. 현관을 나서기도 전에 맵짠 땀기가 살을 콕콕 찌르며 체육복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진저리를 치며 현관안에서부터 달리기를 《시작》했다. 내가 후닥닥 뛰쳐나오는 바람에 마당비자루를 들고 현관에 들어 서던 이웃집 어머니가 기겁을 하며 넘어질뻔 했다.

《에쿠나, 이게 뭐야?!》

막상 거리에 나가보니 아침달리기를 하는것은 나 하나만이 아니였다. 그런데 어떤 애들은 멋진 고깔 모자에 산뜻한 나이론솜옷을 입고 두툼한 털신까지 받쳐 신어서 《중무장》을 하고 있었다. 맨 머리로 체육복바람에 운동화를 신고 있는것은 나뿐인듯 했다. 남들이 부러웠다. 하지만 인차 비웃었다. 행, 그렇게 잔뜩 꺼입고 무슨 단련을 하겠어!

나는 까닭 모를 반발심과 승벽에 사로잡혀 《멋쟁이》들을 썩 따라앞섰다. 눈보라가 내 얼굴을 후려쳤으나 머리를 곧추 들고 계속 달렸다.

이마가 찌지는듯 한 모진 추위였으나 몸도 마음도 거뜬해 졌다.

(이래서 군대들이 아침마다 달리기를 하했구나. 나도 이젠 매일 해야지.)

단감을 내뿜으며 집으로 들어 서는 나를 보자 어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살아 돌아 왔니? 난 또 어떻게 되었다구!》

《배고파요. 밥이나 빨리 줘요.》

나는 시뻘해서 대꾸했다.

어머니는 만족스럽게 머리를 끄떡였다.

《추우면 달려야지 가만 서 있으면 진짜 잘못될수 있다.》

...추우면 달려야 한다. 달리지 않으면 얼어 죽고 만다! 어째서 지금 어머니의 그 말이 되새겨지는것인가? 때로는 생활의 단순한 리치속에서 시대와 사회의 진리를 발견하고 놀라게 되는적이 있다.

어머니, 전 지금 그때처럼 달리고 있어요. 그때

는 빈 몸이었지만 지금은 이 어깨우에 무거운 짐이 맡겨져 있어요. 무기나 장구류만이 아니에요. 선두에서 중대정치지도원동지가 선동구호를 웨치는군요. 《동무들, 우리 병사들의 어깨우에 조국과 사회주의의 운명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믿음과 기대가 실려 있다. 우리가 떳어 서면 조국이 떳어 선다!》 그래요. 조국이 우리 인민군대를 부르고 있어요. 시대의 선두어로. 그래서 우리 병사들은 달리고 있는거예요. 눈보라와 어둠과 시련을 이겨 내며 새날을 향해, 승리의 언덕을 향해 달리고 있어요!...

숙영의 밤, 하늘땅을 줄잡으며 미친듯이 불어 치던 눈보라도 기진한듯 어느 골짜기에 잤아 든 깊은 밤이다.

천막안에는 군잠든 병사들의 코고는 소리, 숨 소리가 차 있다. 한점의 온기라도 전우에게 더 나누어 주려는듯 서로 꼭 껴안은채 잠든 병사들의 모습을 푸른 달빛이 조용히 비쳐 준다. 마치 고향집 어머니의 다심한 눈빛인듯 싶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나온다.

초소의 병실

한걸의 천막속으로

내결에서 옮겨 간 너의 자리를 그려 본다

친형제와 같은 전우들과 지휘관들이

이제는 밤마다 너의 모포깃을 여며 주리라

...

너에게서 문득 편지가 날아 올 때면

이 어미의 가슴은 울렁거린다

닥치는 곤난앞에서 마음 약해 지지나 않았는지

나라앞에 제 구실을 다하고 있는지

바라는것이 클 때 실망도 큰 법이다. 어머니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랐는가?...

《고난의 행군》시기 아버지가 뜻밖에 돌아 간후 어머니의 머리에는 흰 머리칼이 부쩍 늘어 났다. 얼굴의 주름살도 더 깊어 졌다. 그러나 어머니는 쓰러 지지 않았고 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묵묵히, 완강하게 이겨 났다. 그 시기에는 이미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나였지만 그러한 어머니에게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언젠가는 어머니에게 건투정을 한적도 있었었다.

《일하러 안 나가겠대구?!》

어머니가 놀라와 하며 나에게 물었다. 나는 그리는 어머니를 마주 보았다.

《식량이 떨어 저 어머니가 고생하시는데 난 그저 앉아서... 그래서 이모네 집에라도 가볼가 해서요.》

《그래 너희 직장사람들도 다 일을 안나오더냐?》

나는 대답이 궁해 저 눈길을 떨구었다. 사실 제판에는 다 자란 오늘까지도 늙은 어머니에게 고생을 시킨다는 부끄럽고 죄스러운 생각에서 한 투정이였었다.

《우리 군대들을 보라. 그들도 다 너만 못지 않게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제 집형편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한다면서 초소를 버리겠다는 군대는 없어. 현우야, 지금 어떤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워지니 제 살 궁리만 하는데 그렇게 저마다 자기만 먼저 생각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니? 그런 사람들은 나라가 없어도 살아 갈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살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지. 너의 아버지는 한생을 그렇게 살아 왔다. 우리 장군님께서 온갖 고생을 다 하시면서 우리들을 위해 애 쓰시는데 그대 년 고생을 피하고 그뒤에서 편안히 살겠다는거냐. 안된다. 그렇게는 못살아!... 내 어떻게 해서든지 너만은 굶기지 않을테니 다신 그런 소리를 말고 직장에 착실히 나가거라!》

평소에 말수 적은 어머니였으나 그때만은 많은 말을 했다. 그리고는 빠스정류소까지 함께 나가 주었었다....

과연 어머니는 나에게서 무엇을 바랐던가?

3

내가 입대할 때 어머니는 배낭속에 아버지의 일기장을 소중히 넣어 주었다.

《이제부터 네가 간수해라. 아버지가 널 지켜 볼게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 졌다. 한때는 나에게 너 내 아들이 아니라고까지 했던 아버지였었다. 다 자랐다고 해서 아들구실을 하는것은 아니다.

어머니는 언젠가 나에게 말했었다.

《난 네가 아버지처럼 살기를 바란다. 아버지처럼!》

나는 이전에 드문히 어머니가 아버지의 무엇을 보고 반했었을가 하고 생각하곤 했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나이가 10여년이나 우인데다가 키도 작고 몸도 체소하고 남보다 잘 생긴것도 아닌데...영예군인이여서 동정했을가?

아무리 자식한테라도 부모들이 자기의 과거를 다 말해 주는것은 아니다. 부모들의 과거는 자식에게 있어서 언제나 많은 호기심을 자아낸다.

나는 보풀이 인 일기장을 통하여 평범하면서도 아름답고 굳센 인간들의 세계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되었다.

197×년 4월 ××일

조용하고 온순한 처녀인줄만 알았더니 고집도 섰다.

《난 이제 동무와 같은 동정자들이 싫증난 사람이요.》

나의 모욕적인 말에도 처녀는 실한 머리태만 만지작거리며 고집스럽게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리해되지 않았다. 놀람기까지 했다. 이쯤하면 웬간한 처녀들은 물러 났었다.

나는 오늘에야 비로소 처녀의 모습을 자세히 여겨 보았다. 보통 키에 수더분하게 생긴 얼굴...

철도공장에서 선반공으로 일한다고 했다. 원신옥, 내가 그 처녀를 알게 된것은 석달전 겨울날이었다.

...그날 나는 새 의수와 의족을 교체하고 합숙으로 돌아 오고 있었다. 해별이 짹짹 내리쳐여 봄날처럼 따뜻했다. 기분이 하냥 좋았다. 눈싸움을 하는 조무래기들이 서로 쫓고 쫓기우면서 내 곁을 달려 지나는데 앙증스러운 발밑에서 눈 녹은 물이 사방으로 튀겨 났다.

《애들아, 넘어지겠다. 그러다 옷이 젖으면 너희들 동태가 돼.》

《헐, 안 넘어져요!-》

조무래기들은 더욱 신이 나서 물탕을 튀기며 뛰며 다녔다. 하긴 장독하고 아이들은 얼지 않는 다지! 그 애들속에 섭슬려 마음껏 함께 웃고 떠들고 싶었다. 에이, 이놈의 팔다리만 아니라면!

나는 오른손으로 왼쪽의수를 쥐여 잡고 의족을 한 원다리를 슬그머니 굴러 보며 싱긋 웃었다.

그때 뒤에서 쟁쟁한 목소리가 날아 왔다.

《길 좀 비켜 주세요!》

얼결에 비켜 서며 보니 두 처녀가 큼직한 주철소재들이 가득 실린 팔다리를 끌고 밀고 하며 다가왔다. 펍 무거운 모양인지 포장길인데도 처녀들은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팔다리바퀴도 불평이나 부리듯 이리비를 저리비를 하면서 삐걱거리는 것이었다.

나는 팔다리채를 잡은, 채양이 하늘로 삐죽 솟아오르게 작업모를 제껴 쓴 활발하게 생긴 처녀를 향해 빙그레 웃어 보였다.

《개미역사를 하는구만.》

《어찌겠어요. 황소 같은 남정님들은 동정만 했지 도와 주지는 않는걸요.》

처녀는 시달지 않은 눈길로 나를 스쳐 보며 재빨리 대꾸했다.

《허허, 그건 잘된것 같지 않구만. 내가 좀 도와줄가. <황소>는 못되어도 <중소>는 되니까.》

《어마, 정말이에요?!》

처녀는 대뜸 반색을 지었다. 나는 성한 오른손으로 팔다리채를 잡았다.

《중이장도 맞들면 가볍다는데, 자 갑시다!》

《아니 가만, 앞에서 끄는건 사실 힘들지 않아요. 저 신옥이와 함께 뒤에서 밀어 주세요.》

그러자 뒤에 선 쌍태머리처녀가 대뜸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저었다.

《됐어. 예숙아, 난 일 없어.》

《뭘 그래. 자, 어서요.!!》

무척 쾌활한 처녀였다. 나는 《팔랭이》 처녀를 향해 익살갯게 거수경례를 붙였다.

《알았습니다. 운전사동지, 당신의 명령대로 뒤에서 밀겠습니다.》

《호호, 고맙습니다. <중소>동지.》

그리고는 까르르 웃어 대는것이였다. 나는 미안해서인지 부끄러워서인지 어쩔바를 몰라 하는 쌍태머리처녀의 곁에 다가갔다.

《함께 밟시다!》

그 처녀는 잠시 딱한 표정이더니 내가 허리를 굽히자 황황히 손에 낀 장갑을 벗으려 했다.

《아, 그만 두시오. 자, 출발-》

《호호, 앞으로!》

의족을 한 다리가 거치장스럽고 뻗뻗해왔으나 나는 있는 힘껏 팔다리를 밀었다. 한참 가는데 《팔랭이》 처녀가 뒤돌아 보더니 소리쳤다.

《아니, 왼쪽손은 출장 보냈나요. 왜 한손으로만 밀어요?》

나는 당황해 졌다.

《허, 좀 다쳐서... 그러기에 내 <중소>밖에 못된다질 않소.》

그런데 아까부터 나를 찬찬히 결눈질해 보면 쌍태머리처녀가 문득 제 동무를 찾는것이였다.

《예숙아, 팔다리를 세워.》

나는 미심결에 처녀들을 돌려 보았다.

《왜 세워요? 어서 가시오.》

《저... 동지는 영예군인이지요?》

《아, 이건 사실...》

처녀들의 얼굴에 죄스러워 하는 표정이 비쳤다.

《영예군인동지, 정말 미안합니다.》

《이 더러운 그런것도 모르고...》

《허, 이건 뭐 한팔밖에 없다고 쫓아 버리겠다는거요? 내 이래봐도 운전사출신이요. 바퀴 달린건 뭐나 다 자신 있소...》

한동안 옥신각신한 끝에 나와 예숙이가 앞에서 끌고 신옥이가 뒤에서 밀었다. 그날 나의 기억에는 어질고 조용한 신옥이보다 명랑하고 활발한 예숙이가 더 새겨 졌었다...

그런데 이 신옥이란 처녀가 나를 위해 한생을 바치겠다고 찾아 올줄이야. 하지만 나는 이미 남한테 집이 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다. 남의 한생에 그들을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처녀에게 말했다.

《돌아 가요. 나한테 볼것이 아무것도 없소. 처녀가 자존심도 있어야지.》

순박해 보이는 처녀의 유순한 눈가에 눈물이 가랑가랑했다. 보석같은 그 눈물, 깨끗한 그 진심 앞에 나는 부지중 자신을 후회했다.

《왜 자꾸... 자기를 욕되게 하나요? 그러지... 그러지 마세요. 동지는 영예군인이 아니냐요!》

처녀의 맑은 눈물이 메마른 나의 가슴속에 봄비마냥 살뜰히 스며 드는듯 싶었다.

197×년 7월 ××일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가. 나의 부모들을 대신하여 새집과 결혼식상을 마련해 준 구역당 책임비서동지, 세간살이며 가구들을 들고 온 공장의 일군들과 동무들… 이 고마운 사람들, 이 고마운 사회를 위해서라면 내 이제 남은 팔다리를 다 바친들 무슨 한이 있으랴!…

첫날밤은 사람의 일생에서 잊을수 없는 행복한 날들중의 하나라고 한다. 신옥이와 단 둘이서 신방에 남게 되자 기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였다. 신옥이도 같은 심정인지 얼굴이 발그레해져서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채 치마저고리고름만 매만지고 있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귀전을 세차게 두들겼다. 그냥 가만 있다가는 심장이 터질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할텐데! 나는 한참만에야 입을 열었다.

《저, 신옥이… 내 하나 물으랴오?》

《뭔데요?》

신옥이는 여전히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다.

《전부터 묻고 싶었는데… 나 같은것한테서 도대체 뭘 보고 …허, 이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만!》

신옥의 눈길이가 부드럽게 들려 졌다.

《전… 윤덕동지의 락천성이… 그래서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이런 사람을 위해서…》

수집어 하는 그 말마디들이 나의 가슴을 뿌듯하게 해주었다. 그래, 난 언제나 웃으면서 살테요. 신옥이, 우리 함께 한생을 웃으며 살아 가자구! 하고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우리 노래를 부를까? 내가 하모니카를 불테니 신옥인 노래를 하오.》

《아이, 노렐 어떻게… 남들이 들으면…》

《듣고서 부러워 하라지! 자, 어서!》

나는 제잡담하고 하모니카를 찾아들었다. 신옥이가 정찬 눈길로 나를 지켜 보며 맑고 명랑한 선율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

바람결 맑고 별빛도 정다워 즐거운 이 저녁
다정한 동무들 모두다 유쾌히 춤추고 노래하자
우리는 청춘 꽃피는 희망 가슴에 안고
자유론 조국 행복한 생활 다지여 나간다
…

나는 창문을 활짝 열어 제겼다. 맑고 신선한 대기가 달아 오른 얼굴을 다정히 어루만져 주었다.

밤하늘에 총총한 은빛 별들이 부러움에 차서 내려다 보며 축복해 주는듯 싶었다.

《…신옥이, 하나라도 좋으니 꼭 아들을 낳아 주오. 끝끝한 군대감을 말어요.》

신옥은 수집음과 애정에 겨운 눈길로 나를 지켜보 다가 머리를 깊이 숙였다....

199×년 8월 ×일

자식은 걸을 낳지 속을 낳는게 아니라더니, 현우가 그렇게 변할줄은 몰랐다.

오늘 아침 로병선전대원들과 함께 건설장으로 가던 길에 현우의 공장 청년동맹비서를 만났다.

내가 인차 알아 보지 못하자 제편에서 먼저 인사하는것이였다.

《아버님, 제 지금 구역에서 토론하고 오는 길인데 현우만은 집사정을 고려해서 이번 초모에서 빼놓기로 했습니다.》

처음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얼터름해 졌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듣고 나자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 드는듯 했다. 이번에 공장에서 초모사업이 있었는데 현우가 영예군인인 아버지때문에 격정하는 말을 곱씹었다는것이였다.

현우가, 우리 현우가 그러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서둘러 물었더니 초모가 이제는 끝났다는것이였다. 하긴 억지로 하는 일이 뭐가 잘될가! 천날을 공들여 쌓은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듯 싶었다. 젊은 청년동맹비서앞에서 얼굴이 뜨거워 견딜수가 없었다....

저녁에 안해가 없는 틈에 현우를 불러 앉혔다.

《사람이란 량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량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군사복무를 해야 하고. 저 하나만을 생각한다면 그건 벌써 량심이 아니다.》

혹시 현우가 이제라도 마음을 돌릴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한가닥 기대가 나를 애써 자제하도록 해주었다.

《너 왜 군대에 못 나가겠다고 했니?》

《…》

《솔직히 말해 보렴.》

《아버지, 난 자기만을 위해서 군대에 못 나가겠다고 한것이 아니예요.》

《그러니 나와 어머니를 위해서라거냐?》

《사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저한테서 무엇을 바라는지 나도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 아버지진…》

《음-그러니 넌…》

현우는 쓰겁게 웃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나의 가슴은 불로 지지는듯 하였다.

《그리고 어머니도 좀 생각해야 하지 않아요. 어머니도 이젠…》

나는 더 참을수가 없었다.

《어머닌 건드리지 말아!》

《예?》

《너의 어머니 건드리지 말란 말이다. 네가 이젠 어머니까지...》

내 얼굴이 험악해 졌는지 현우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마음이 아프고 쓰리었다. 안해가 현우의 말을 들었더라면... 아마 심장이 터졌을것이다.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네 눈엔 조국을 위해서 군대로, 어렵고 힘든 사회주의건설장으로 달려가는 청년들은 안 보이고 몇 안되는 너절한 인간들만 보이는거냐. 그래서 그렇게 살겠다는거지?

남들이 지켜 주는 이 땅에서 남들이 가꾼 열매를 따먹으면서? 네가 왜 이렇게 됐니. 왜?...

《너 정말 군대에 못 나가겠니?》

《...》

《왜 대답이 없냐?》

《아버지, 나도 이젠 어린애가 아니예요. 내가 갈 길은 내가 찾겠어요!》

나는 눈앞이 아찔했다. 앞에 웅크리고 앉은 현우가 낮 선 사람처럼 느껴 졌다. 이 애가 분명 내가 깎아 준 나무총을 쥐고서 활짝 웃던 그 현우가 옳은가? 딛고 앉은 방바닥이 꺼져 내리는것만 같았다. 나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넌...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나는 온몸의 힘을 모아 말했다.

분했다. 억울하고 괴로웠다. 내 아들이, 현우가 언제 이렇게 변했는가...

199×년 11월 ××일

아침에 집을 나서려는데 안해가 다가왔다.

《현우 아버지, 오늘은 몸도 불편한데 좀 쉬세요. 로병선전대엔 내가 찾아 가 알리겠어요.》

나는 머리를 저었다.

《가야 하오.》

요즘은 현우의 일로 해서 입맛을 싹 젖힌데다가 한달전부터 몸상태가 전에 없이 악화되고 있는것이 느껴 진다. 나는 안해에게 애 써 웃음을 지어보였다.

《우리 전쟁때 고지에서 싸우면서도 노래를 불렀소. 노래는 즐거울 때만 부르는게 아니라는걸 당신도 잘 알지 않소.》

안해의 얼굴에 근심스러운 표정이 짙게 어리었다.

《그만하세요. 제가 그걸 모르나요.》

안해의 부축을 받아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나는 이 일을 있는 힘껏, 성실하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할것이다. 가뜰이나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때에 맥을 놓고 주저앉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젠 늙었다. 한생 변함없이 나를 받들어 온 안해도 늙었다. 현우야, 이젠 너희들 차례다. 헌데 넌... 너는 우리가 너한테서 무엇을 바라는지를 안다고 했지만 어째서 그것을 바라라는지는 모른다. 언제 가면 그것을 알게 되겠는지...

나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안해는 곁에서

말없이 부축하기만 할뿐이었다.

며칠후 동안의 전쟁로병들과 함께 인민군구분대에서 공연을 마치고 돌아 오던 아버지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악화될대로 악화된 몸이 더는 견디지 못했던것이다.

아버지는 유언 한마디조차 남기지 못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싸웠다. 군인-영예군인답게.

아버지가 돌아 간후 제상에 놓을 사진을 찾기 위해 사진첩을 뒤지던 나는 아버지의 사진이 모두 옷은 모습뿐임을 알게 되었다. 한생을 웃으면서 살아 온 나의 아버지, 아버지에게는 고생도 시련도 남모르는 고민도 많았건만 언제나 웃었다. 웃음은 강한 사람만이 지을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불민한 자식으로 하여 종시 마음 한구석에 걱정을 안고서 떠나간 아버지였다. 그래서 나는 눈물도 마음껏 흘리지 못했다. 눈물은 깨끗한것이어야 한다. 인생에는 후회가 있을수도 있다. 하지만 부모에 대한 뒤늦은 후회만은 그 무엇으로써도 갚을수 없는것 같다...

후에 나는 종종 아버지가 나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무슨 말을 했을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나는 썩 후에야 아버지의 한생- 그자체가 나에게 남긴 유언이었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을 깨닫도록 어머니는 온갖 심혈을 다 기울였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생토록 변함없이 받들어 온 사회주의 조국... 이제는 내 차례, 우리 세대의 차례였다.

4

전연초소의 밤, 그것은 소리 없는 싸움의 순간들이다. 언제 무슨 정황이 생길지 모르는 분계선너머의 음침한 정적과 어둠, 여름이면 악착스러운 갈따구와 땀속까지 젖어 드는듯 싶은 차거운 가을비, 겨울에는 온몸을 얼음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는 추위와 눈보라, 질어 가는 어둠에 실려 밀려 드는 지곳은 죽음과의 격렬한 싸움속에서 밤이 지낸다. 그러한 수많은 밤마다 나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끝없이 이야기를 나눈다.

어머니는 언제나 나에게 당부한다. 《아버지처럼 살아라! 아버지처럼 싸워라!》 하고. 그러면 나는 중대오락회때면 즐겨 읊곤 하는 시의 구절을 되새겨 본다.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 가라

조국이 명령할 때

아들아 네 만약 그 길에서 주저한다면

이 어미는 이 손으로 그 가시나무를 꺾어

너의 잔등에 매를 안기리

...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김형직사범대학 어문학부에 추천 받았었다. 하지만 평소에 시를 쓴다면서 일반과목공부를 홀시해 오다나니 시험에서 그만 떨어졌다. 나는 낙심하고 실망하여 기가 꺾이고 말았다. 날고 싶은 하늘은 있어도 날개가 없었다. 선생님과 동무들을 대하기가 제일 부끄러웠다. 그지 누구도 모르는 곳에 한동안만이라도 숨어 있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구역에서 내준 공장과건장을 집어 던지고 이모가 있는 교외의 농촌으로 도망쳐 버렸다.

이모의 집에 도착하여 후한 환대를 받고나서 뜨끈한 아래목에 누워 발편잠을 자고 있던 한밤중이었다. 려행길의 피로와 식곤증에 몰려 굳잠이 든 나는 소란스러운 개 짖는 소리도 이모내외가 법석 떠드는것도 느끼지 못했다. 누군가가 거칠게 잡아 흔들어서 일어 나 앉았지만 반쯤 감긴 눈시울새로는 눈부신 전등빛과 함께 어슴푸레한 얼굴륜곽만이 비쳐 들뿐이었다. 치미는 분노를 가까스로 억제하는듯 한 귀익은 목소리가 귀전을 후려 갈겼다.

《정신을 차려라. 어서 눈을 떠!》

나는 펄쩍 정신이 들었으나 선뜻 믿어 지지 않았다.

《아-니, 어머니가?...》

《일어 나거라. 밖으로 나가자!》

이모내외가 눈이 둥그래서 어머니를 붙잡았다.

《언니, 왜 그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행색이 말이 아니우다. 여보, 얼른 세수물부터 떠오우...》

나는 켜해 진 눈으로 그제서야 어머니의 모습을 살펴 보았다. 아래도리가 온통 흠탕투성이인데다가 자동차적재함에 타고 왔는지 머리칼도 마구 형클어져 있었다. 노상 유순하던 눈에는 서늘한 빛이 어려 있었다.

내외바람으로 밖에 끌려 나간 나는 얼떠름한채 어머니가 잡아 끄는대로 마당가의 세수대앞에 다가섰다. 싸늘한 대기가 온몸을 으쓱하게 했다. 이모를 앞세우고 부엌에 들어 갔던 어머니는 두개의 바게뜨를 들고 나오는것이였다. 거기에는 찬물과 더운물이 담겨 저 있었다.

《출나?》

나는 솔직히 대답했다.

《예..》

《어서 씻어라.》

《?...》

나는 의아해 졌다. 씻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내가 무엇을 씻으라는것인가?... 영문을 알수 없었지만 나는 김이 물물 나는 더운물바게뜨앞으로 비촉비촉 다가갔다.

《가만...》

어머니가 나를 제지시키며 의미심장한 어조로 물었다.

《만약 이 더운물에 더러운것이 섞여 있다면... 그래도 넌 이걸로 씻겠니?》

《!...》

그제서야 무엇인가 생각키우는것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의 찌르는듯 한 눈길을 마주 보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는 왜 자꾸만 이러는가. 내가 뭐 어쨌다고?...

나는 반발하듯이 허리를 굽히고 섯룩한 찬물을 퍼서 얼굴에 마구 끼얹었다. 내가 허리를 퍼자 어머니의 눈빛이 다소 밝아 지는듯 했다.

《정신이 좀 드냐? 다행이다! 그럼 어서 들어가서 옷을 입고 나와라. 래일 아침엔 공장에 가서 수속을 해야지.》

나는 뿌루뚱해서 엇섰다.

《난 공장에는 안 갈래요. 시시하게. 차라리 군대에나 나가겠어요.》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나의 귀전을 두들겼다. 하지만 이윽하여 어머니의 입새에서는 뜻밖에도 낮고 갈린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시시하다구? 군대에나 나가겠어?...》

또다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명심해라. 네가 이 어머니한테는 투정질을 할 수 있지만... 나라앞에서는 그래선 안돼!》

어머니의 말은 짧았으나 내 심장을 후려치는 채찍 같았다....

오직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해

차디찬 얼음구멍으로 뛰여 들어야 할

그러한 시각에

아들아 네가 그 첫번째 용사가 되지 못하고

두번째 세번째 자리로 몰려 선다면

못난 자식을 낳아 기른 그것으로 하여

이 어머니는 분해서 울것이다

...그날도 변변치 못한 점심을 싸가지고 공장에 출근했던 나는 허전한 배속을 달래며 집으로 돌아 오고 있었다. 궤도전차의 차창결에 앉은 나는 거리의 풍경을 무심히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얼마전에 나는 교외의 친척집에 찾아 가 쌀 한 배낭을 얻어 왔었다. 일요일에 떠난 걸음이였지만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월요일 밤에야 집으로 들어 섰다. 그래도 제판에는 어머니를 돕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무척 마음이 흐뭇했다. 그러나 쌀배낭을 받아 놓은 어머니의 눈에는 노여움과 원망, 피로움이 비껴 있었다.

《너 이 쌀배낭이... 그리도 중하더냐?》

더 말을 못하고 눈물만 삼키는듯 한 어머니앞

에서 나는 고개를 수그렸다. 이 못난 놈이 또 어머니를 울렸구나. 난 언제면 어머니의 속을 태우지 않게 될가!

…문득 나는 차창밖으로 돼지를 몰고 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의혹이 내 머리를 쳤다. 어머니가 도대체 저 돼지를 어디로 가져 가는것일까? 벌써 몇마리째나 돼지를 기르는 어머니였지만 집안살림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식량도 늘 모자라 고.

서둘러 정류소에서 내린 나는 부지런히 어머니의 뒤를 따라 갔다. 뜻밖에도 어머니가 간 곳은 군인건설자들이 일하고 있는 어느 건설장이었다.

어리둥절해서 건설장으로 들어 서던 나는 입구에 세워진 커다란 대형속보판앞에서 놀라와 걸음을 멈추었다. 제법 어머니의 모습을 생동하게 그린 속보판에 《병사들의 어머니》라는 제목아래 여러마리의 돼지를 비롯하여 지성어린 원호물자를 군인들에게 바친 어머니에 대한 글이 씌여져 있었던것이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해하지 못할것 같아서?... 그럴수도 있었다. 나는 한동안이나 속보판앞에서 떠날수가 없었다.

떠들썩한 소리에 앞쪽을 바라보니 많은 군인건설자들이 달려와 어머니를 에워싸고 있는것이였다. 이제는 서로 친숙해진듯 어머니와 병사들은 허물이 없었다. 그 다정한 모습들을 지켜보느라니 어쩐지 마음이 이상해졌다. 시새움 같기도 하고 부러움 같기도 한 감정이 마음속에 갈마들었다.

《어머니, 힘드시지 않나요?》

나보다 어려 보이는 애된 전사가 스스럼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면서 물었다. 어머니는 대견한 웃음을 지으며 그 전사의 어깨를 어루쓸어주는것이였다.

《자식을 위한 일에 힘이 든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는 없어. 난 자네들이 모두가 다 내 아들만 같다네...》

어머니의 눈에는 절절한 빛이 어려 있었다. 나에게는 그 눈빛이 이렇게 말하는듯 싶었다.

《내 아들도 자네들 같으면 얼마나 좋겠나!...》

내가 쌀배낭을 지고 왔을 때 안타까와 하던 어머니의 눈빛이 생각났다. 만일 내가 저들처럼 군복을 입고 있었다면... 어머니는 군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을것이다.

《내 아들도 자네들 같은 군대라네!...》

자식의 참다운 효성은 어머니의 자량이 되고 기쁨으로 되는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저도 모르게 군인들과 자신을 대비해 보았다. 그러자 자신

이 시대의 열풍을 떠이고 달려 가는것이 아니라 그 열풍에 밀려 난 존재인듯이 여겨 지는것이였다.

그것이 안타깝고 피로와서 나 몰래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군인들을 찾아 온 어머니, 나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나도 이제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살겠어요!...》

…나는 천천히 격발기를 당겼다. 그리고 침착하게 어둠속을 주시했다.

멀지 않은 어둠속에서 조심스러운 소음이 간간히 들려온다. 그 소음은 점점 내앞으로 다가온다. 마치 먹이를 노리고 달려드는 흉악한 맹수들의 기척 같다.

나는 초소에 경보신호를 보내고나서 총신을 앞으로 내뺐었다. 이윽고 철갑모 하나가 총구앞에 나타났다. 그뒤로 둘, 셋... 얼핏 짐작에도 퍼그나 많은 적들이 분계선을 넘어 기여들고 있었다. 좀더, 조금만 더 접근해라!

나는 지그시 방아쇠를 당겼다. 연덩이마냥 무거웠던 밤의 고요가 깨어졌다. 시뻘건 불줄기가 어둠을 찢으며 적들속으로 날아간다. 단말마적인 비명소리, 악에 받친 고향소리, 그 아비규환의 복판으로 번개처럼 날아나가는 불줄기, 불줄기...

그런데 놈들의 수는 계속 늘어 나고 있었다.

네놈들이 감히... 안된다. 이놈들! 나는 이를 양다물고 방아쇠를 당겼다.

불현듯 대지가 용수철로 되어 버린듯 내 몸이 땅우에서 튕겨났다. 어깨와 왼팔이 쇠뿔등이에 맞은것 같이 움직일수가 없었다.

(어머니!...)

무질서한 군화발소리들이 가까이 조여들었다.

나는 마지막수류탄을 꺼내들었다. 주저없이 안전고리를 뽑았다.

(어머니, 나도 이제 압니다. 어떻게 사는것이 아버지처럼 사는것인지, 어머니가 그것을 배워주지 않았나요!)

내가 수류탄을 품에 안고 놈들속으로 뛰어들려는 순간 뒤에서 자동보총의 일제사격이 터졌다. 나는 질겁한 비명소리속으로 있는 힘껏 수류탄을 던지였다. 그리고 쓰러졌다.

너를 안고 처음 젖을 먹이던

그 시절이 어찌만 같은데

아들아 이제 너 멀리도 떠나갔구나

어미둥지에서 나래 돌힌 수리개가

폭풍을 맞받아 나아가듯이

(난 언제나 어머니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5

《...아들을 군대로 떠나보낸후부터 저에게는 군대들이 모두 제 자식만 같이 여겨 졌습니다. 군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더 해주고 싶고 더 해먹이고만 싶었습니다. 어느날 저는 아들한테서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글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 애가 복무하는 최전연초소의 중대를 찾으시였다는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병사들과 함께 전호가에 마주 앉으신 장군님께서서는 평양에서부터 준비해 온 파배기를 몸소 일일이 손에 들려 주시면서 <고난의 행군>때이다보니 이것밖에 없는데 고향집에서 부모가 가져 온것으로 알고 함께 들자고 말씀하셨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전선시찰에 앞서 일군들에게 내가 왜 자주 철령을 넘는지 아는지 하고 하시면서 정 깊으신 어조로 철령을 넘어 보라, 철령너머 최전연에는 로동자, 농민의 아들인 나의 병사들이 있다, 그들의 부모들이 나를 믿고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최전연초소로 보냈기때문에 내가 부모들을 대신하여 철령을 넘는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아들의 편지를 받고나서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그리도 자주 높고 험한 철령을 넘으시다니, 내가 어머니구실을 못했구나! 그후부터 저는 더 많은 패지와 토끼를 길러서 군인들에게 보내주었고 인민군대원호사업이라면 아끼는것없이 다 바치었습니다. 사실 먹고 남은것이 있어서 제가 원군길에 나선것은 아니었습니다. 군대가 없으면 나라도 가정도 없기에 못 먹고 못 입으면서도 우리 군대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온갖 고생을 다 하시면서도 전선길을 쉬임없이 걷고 계시기에 원군의 길에서 물러 설수가 없었던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후대의 행복을 바란다면 자식들모두를 군대에 내보내고 원군의 길로 나섭시다. 그러면 우리의 후대들은 영원히 어머니들을 가슴에 안고 살것입니다.》

나는 뜨겁게 불러 보았다.

《어머니...》

《어머니라고요?!...》

결에 앉았던 간호원처녀의 눈이 한껏 커졌다.

《그래, 우리... 어머니요!》

나는 자랑스럽게, 땃땃하게 말했다.

×

《강원우동무의 어머니가 오셨다!》

넓은 병실앞마당에 중대가 정렬했다. 존경과 선망의 눈길들이 련대장의 부축을 받으며 군용차에서 내리는 어머니에게로 일시에 쏠렸다.

《차렷, 가운데로 뺐. 중대는 전국원군미풍열성자대회 참가자인 원신육동지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수수한 흰 치마저고리에 반백을 머리에 인 어머니의 주름 많은 얼굴에 이름할수 없는 걱정의 빛이 어려 있다. 어머니는 두손을 앞으로 모아 쥐고 서서 어쩔줄 몰라 하다가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그러한 어머니를 향해 끝끝한 아들들이 경례를 드린다. 이 나라의 한 평범하면서도 소박하고 강의한 어머니에게 드리는 병사의 경례!

푸르른 들판으로 새날의 첫 해살이 미끄러지듯 퍼져 간다. 아침이슬이 뽀얗게 맺힌 보라빛들국화가 온 들판을 가득 덮고서 소리없이 웃고 있다. 마치 행복의 눈물속에 짓는 미소 같다. 나는 해빛에 이슬이 금빛으로 반짝이는 들국화 한송이를 정히 꺾어 어머니의 가슴에 꽂아 드렸다. 어머니는 그 작고 가벼운 꽃송이가 온 세상인듯 만족한 웃음속에 내려다 보았다. 붉은 태양이 연하먼서도 강의한 들국화송이들을 금빛해살로 따뜻이 감싸안아 더 밝고 더 아름답게 빛내준다.

어머니는 곁에 선 내 모습을 하얗 대견한 눈길로 오래도록 여겨 본다. 어머니의 손길이 내 가슴에서 번쩍이는 전사영예훈장을 살뜰히 어루 쓴다.

《네 모습을 아버지가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겠니!》

나는 품속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맨 뒤장을 번지여 어머니에게 넘겨 주었다. 거기에는 내가 적어 넣은 시 《어머니의 당부》가 있었다.

...

리수복의 어머니처럼

우리 장군님 그 이름 불러 주시는

그런 영웅의 어머니로 된다면

이 어머니는 기뻐서 눈물 흘리며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말하리라

-내가 이 아들의 어머니요!-

《고난의 행군》과 작가

리신현

제목이 요란한 느낌이 들어 잠시 붓을 멈춘다.

그러나 좀 더 작고 소박하게 바꾸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연이 있기에 그냥 둔다.

하나의 아담한 글을 쓰려고 해도 흥분과 열정이 없으면 안된다.

하물며 총서문학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작품인 경우에는 더 말할나위 없다.

나는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강계정신》의 창작에 앞서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력사의 한 시기에 온 심장을 짱그리 바치고 싶었다.

그것은 나를 창작으로 내닫게 한 작가의 불같은 마음, 충동이기전에 한 인간으로서 당시의 가혹한 시련을 뼈저리게 체험하며 후세에 전하고 싶었던 공민적인 감정이었다.

미제의 악착한 고립압살책동으로 하여 가슴 터지던 일들은 세월의 흐름속에 묻어 버릴수도 지워 버릴수도 없다.

하지만 가장 큰 아픔중의 아픔은 우리 장군님께서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혁명의 온갖 풍파를 헤쳐가시느라 잠도 휴식도 다 잊으시는걸 알면서 그 누구도 대신해 드릴수 없는 안타까움이 아니었던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쪽잠과 췌기밥으로 한두해도 아닌 수년세월 피눈물의 언덕을 넘으며 헤치신 시련과 고난은 력사가 알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것이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자신의 모든것을 짱그리 바치신 바로 그 정력적인 령도, 철의 담력과 의지가 있어 우리 인민은 《고난의 행군》을 이겨 냈다.

산다는것자체가 기적인 엄혹한 때 자강땅 로동계급은 불사신처럼 일떠서 강성대국건설의 돌가구를 열어제꼈다!

그 경이적인 사실이 나를 무한히 격동시켰고 장편소설 《강계정신》의 창작을 힘 있게 추동한 동기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이란 말만 해도 눈물이 난다고, 《고난의 행군》시기 나에게 큰 힘을 준 강계정신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어느 하루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우리 장군님의 그 감명 깊은 회억속에는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강계정신》이 반영해야 할 모든것이 다 들어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신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인간학의 체모를 갖춘 혁

명적인 문학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이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이다.

하지만 전대미문의 시련과 가혹한 생활난을 이겨내면서 싸운 조선의 녀, 강계정신을 안아온 자강도로동계급의 희생적인 투쟁을 내가 과연 총서 작품에 실감이 나게 담아 낼수 있겠는가?

걱정도 하고 우려도 했다.

나는 그때처럼 자신을 작은 존재로 느껴본적이 없었다.

우리 혁명의 가장 준엄처절한 시기, 《고난의 행군》이란 특수한 력사적환경에 뿌리를 박은 너무나도 거창한 생활이 나로 하여금 자기를 그토록 랭철히 돌이켜 보게 했던것이다.

지금도 나의 머리속에는 그 무겁고도 책임적인 창작과제를 안고 자강땅에서 흘러보냈던 현실체험의 날들이 눈에 선하다.

일년동안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찍혀 있는 현지지도로정을 수없이 밟아도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이웃처럼 다정히 지냈다.

그들은 자기들이 겪었던 지난 일들을 나에게 숨김없이 들려 주었다. 그 무서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받들고 얼음물속에 뛰어들어 발전소들을 일떠세운 이야기를 하며 울었다. 흐느낌을 참으며 말하다간 또 울고... 그 막을 길 없는 눈물때문에 그들의 말은 자주 토막나곤 하였다.

나는 피방울이 뚝뚝 떨어 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죄다 적었다. 눈앞이 흐려 저 미처 받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면 슬그머니 일어 나 세면장으로 들어 가서 얼굴을 씻고 나와서 다시 마주 앉았다. 그 몇번이나 세찬 걱정으로 떨리는 두손에 찬물을 퍼 담아 얼굴에 마구 끼얹었던지...

아버이장군님께서 설송이네 집 죽가마를 열어 보시려 하자 어린것이 가마뚜껑을 불안고 엉엉운 이야기를 할 때엔 말하는 사람도 울고 나도 돌아 앉아서 어린 설송이처럼 흐느꼈다.

설송이네 집 문턱을 넘어 서실수 없어 밖으로 나서지 못하는 장군님의 마음속 아픔이 가슴을 치며 심장을 도려 내는듯 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 모진 아픔, 고통을 억누르시며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자강도로동계급을 불러 일으켜 《고난의 행군》의 돌가구를 열어제길 구상을 무르익히셨다. 무엇때문에?... 《고난의 행군》시기 가장 어려운 형편에 처한 자강도가 일떠서야 전국의 인민들이 신심을

가지고 고난을 헤쳐 나갈수 있기때문이었다.
몇백몇천배의 무거운 짐을 걸머지실 비장한 각
오를 품고 다지신 결심,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내
릴수 있었던 대용단이였다.

나는 자강도의 현실속에서 《고난의 행군》시기
의 그 귀중한 역사적사실과 생활을 찾아 내였기
에 창작을 힘차게 밀고 나갈수 있었다.

소설에 나오는 림준, 림성실, 장강군당책임비서
김충모와 최성진, 박혜경은 머리속에서 고안해
낸 인물들이 아니다.

그들은 장군님의 명령을 받들고 결사적으로 싸
운 자강도 사람들이며 나를 생활의 진실에로 이
끌어 준 친근한 벗들이었다.

《고난의 행군》은 나의 가슴속에 실재한 생활의
본질을 진실하게 보여 주면 훌륭한 형상이라는
리치와 함께 시련에 찬 시대의 작가다운 대담성
을 심어주었다.

림준- 그는 자강도 중소형발전소건설지휘부 중
합분과 과장이였다.

우리들의 첫 상봉은 참말로 인상적이었다.

그와 만나려고 종합분과로 찾아 갔을 때였다.

림준은 책상앞에 혼자 앉아 문건을 벌걱벌걱
번지다가 고개를 들었다. 책상옆에 세워 놓은 외
지평이를 보고 그가 불구의 몸이라는 측은한 생
각이 들었다.

《누군가요?》

내가 자기 소개를 하고 찾아 온 용무를 밝히자
그는 성갈스럽게 말했다.

《과장은 출장 가고 없소.》

《언제 옵니까?》

《글쎄...》

그는 통명스레 대답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
다.

(별 사람 다 보는군.) 하고 돌아 서던 나는 굳
어 졌다. 때마침 방으로 들어 온 젊은이가 그를
《과장동지》라고 부르면서 한참 사업보고를 했다.
그런데도 과장이 출장 갔다구?... 젊은이가 방에
서 나간후 나는 어처구니 없어 웃었다.

《문전촉객이라더니... 이건 도수가 넘는걸요.》

림준은 자기는 애당초 작가들과 상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들때문에 망신을 당한 일이
라도 있는가고 묻자 그는 제편에서 오히려 섭섭
한 소리를 했다.

《시대의 대변자라는 문필가들이 랑심이 있어야
지요. 내가 그들을 얼마나 도와 줬는지 압니까.
그러나 돌아 가선 전탕 거짓말을 써낸단 말입니
다. 그따위 서퍽짜리 글을 널바에야 책상앞에서
꾸며내지 뭇때문에 현실에 나오는지 모르겠거
든... 허참.》

그는 몽둥이라도 휘두르듯이 말했다.

말은 비록 거칠어도 진실이 담겨 있어 가슴속
이 얼얼했다.

현실체험을 통해 찾아 낸 피가 뛰는 생활과 산

인간이 아니라 취재수첩에나 매달리며 그럴듯하
게 이야기를 꾸며 내고 쉽게 붓을 들곤 한 악습
은 지독하여 일단 몸에 배면 좀체로 빠지지 않는
다. 현실에 나가도 그 버릇이 튀어 나와 림준을
분격하게 만든것 같았다.

《혹시 작가를 오해하지 않는지... 그들은 실제
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진 않습니다.》

《물론 전형화해야지요. 허구도 있어야지만 허
황하게 꾸며 내거나 미화분식하는것과는 다른 문
제이지요.》

알고보니 림준은 대학을 두개나 졸업한 정열가
였다. 그가 젊어 한때 문학에 미쳐 사범대학 어
문학부에서 공부를 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기
뻐던지 모른다.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인간적으로 가까
와 지자 림준은 《난 작가의 심장이야말로 자강땅
의 산처럼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행
군>은 대담성이 없이 쓰면 아무리 재간을 부려도
진실을 진실답게 보여 주지 못합니다.

이후에 제 말을 잊지 말고 <고난의 행군>과 작
가라는 제목으로 창작수기를 꼭 쓰십시오.》라고
열정적으로 말했다.

아마 이 창작수기가 발표되면 제일 기뻐할 사
람은 림준일것 같다.

장편소설 《강계정신》에 등장한 림준은 나의
창작에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다.

나는 희천시 현지도도를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몇해동안 멈춰서 있
는 어느 한 공장을 살리기 위해 그 밤으로 또다
시 자강도를 향해 떠나신 눈물 겨운 사실, 발전
소건설장의 처녀중대 중대장 은희가 얼음물속에
뛰어 들어 장군님께서 아끼시는 로기능공을 구원
하고 희생된 이야기도 림준에게서 듣고 작품에
묘사하였다.

그런데 이 격렬한 장면들이 진실하게 안겨 오
지 않아 고심하다가 자강도의 어느 한 공장에 가
서 여려날 생활했다.

숨 죽은 텅 빈 공장, 쓸쓸한 현장안으로 들어
서신 장군님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시였으랴... 돌
아 가지 않는 공장이다보니 지배인도 어디론가
훌쩍 출장 가 버렸으나 장군님께선 불원천리 찾
아 오셨다.

피로우셨을 그이의 심증이 헤아려 지며 뜨거운
것이 얼굴을 적시였다.

건설중에 있는 장강군 군민발전소에 찾아 가선
우연히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 소동이 일
어 난 광경을 목격했었다. 귀뿌리가 쨍쨍 얼어드
는 겨울 밤이었다. 수십명 사람들이 사품치는 강
물속에서 바글바글 끓었다. 그들속엔 처녀들도
있어 강변에서는 너인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사
람을 살리려 물속에 들어간 처녀들이 고드금처럼
사지가 판아져 떠내려 가는 사태가 벌어진것이였
다.

나는 그날 밤 려관으로 돌아 와 밤새워 은희의 회생장면도 다시 썼다.

미생물연구사 림성실의 어린 아들이 죽는 장면도 마찬가지로였다.

림성실은 나와 허물없는 사이가 되자 맨 나중에야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 자기의 불찰, 가정을 버리고 연구사업에만 몰두한 가슴 아픈 후과였기에... 내가 아들의 죽음을 쓰라는가고 묻자 림성실은 눈물이 글썽해서 울먹울먹 말했다.

《쓰세요. 우리 자강도사람들이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상을 관철했는가를 그려 주세요.》

나는 썼다. 무자비하게!... 림성실이 땅속에 묻은 아들을 찾아 밤중에 산속을 헤매는 장면도 썼다.

얼마전 나는 문학신문에서 신통히도 그때의 나의 심정이 반영된 평론을 읽었다.

장편소설 《강계정신》에 대한 평론이었다. 무자비하리만큼 생활의 진실을 펼쳐 보였다는 평가는 찬사라기보다 진실만을 쓰라는 고무적인 목소리처럼 나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 주었다.

평론가는 **김일성** 종합대학시절 나의 스승이었다.

스승은 여전히 교단에 서 있고 나는 강의실을 밟는 마음이었다. 지금도 중단없이 계속되는 강의처럼 나를 진실로 떠밀어 주었다.

나는 현실체험기간 부모없는 아이들을 키워주는 인품려관으로 자주 찾아 갔다.

아버이자강군님의 따사로운 보살핌이 없다면 막돌처럼 버림을 당했을 아이들이행복하게 자라고 있었다.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그애들만은 영양가루를 먹고 밤이면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폭신한 담요를 덮고 잤다.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장 현지지도를 마치고 돌아 오시다가 한 애 어린 소녀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신 우리 장군님이 아니신가!

내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희천시 밤거리에서 방랑아들과 만나시는 장면을 눈물 흘리며 썼을 때였다.

림준과 림성실은 현실속에서 찾아낸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기뻐했다. 문학에 박식한 림준은 《고난의 행군》시기를 취급한 소설에서만 볼수 있는 우리 장군님형상이라며 나의 손을 잡고 힘껏 흔들어주었다.

나는 자강땅에 사나운 눈보라와 령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만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흉바람이 휘몰아 치는것도 현실체험과정에 보았다. 일명 《검은 바람》이라고 일컫는 흉바람이 천지를 들부실듯 세차게 불어 치는 장면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심세계를 부각하기 위한 대목에 적절히 펼쳐졌다.

나는 자주 림준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밤늦게야

려관으로 돌아 갔다. 그때면 림준은 한손에 지팡이를 짚고 자기 집을 멀리 에돌아 려관쪽의 길로 나와 함께 걸었다. 그 일이 미안하여 그를 집까지 바래워 주면 림준은 고집스럽게 다시금 려관으로 따라 왔다. 그러한 인간적인 정이 뜨겁게 깔린 밤길을 걸으면서 자강도의 옛 중소형발전소건설대 대장의 기구한 과거생활도 알게 되었다.

나는 기쁨에 잠겨 어둠속으로 멀어 저 가는 자팡이의 뚜거덕소리를 그 몇번이나 들었는지 모른다.

우리가 채 나누지 못한 이야기의 여운처럼...

나의 현실체험도 어느덧 끝났다. 평양으로 돌아 오기 전날 작별인사를 하려고 도당으로 찾아 갔다. 도당책임비서의 사무실에 들어 간 나는 《고난의 행군》시기 일부 일군들이 압록강의 벌등섬에 공동시장을 차려 놓고 돈벌이를 하자, 그러지 않으면 식량난을 풀수 없다는 바람에 애 먹었다고 여담 삼아 하는 말에 눈이 땡그래 졌다.

《왜 그렇게 놀랍니까?》

비서가 의아히 쳐다보았다.

《작별인사를 취소해야겠습니까.》

《취소라니?》

《금방 벌등섬공동시장애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꼭 알아야겠습니다.》

벌등섬공동시장문제로 하여 나는 현지에서 열흘이나 려관밤을 더 축내게 되었다.

나는 도당책임비서와 벌등섬공동시장문제관계자들을 만났고 압록강의 그 작은 섬에도 가보았다.

참말로 심각한 논쟁점으로 되었던 섬이었다. 그런줄 모르고 평양으로 돌아 왔으면 큰 실책을 범할번 했었다.

나의 러비가 바닥났다는것을 알고 려관책임자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런 중요한 일이면 일년도 더 있으라, 《강계정신》만 잘 써달라며 매일 특별봉사를 해주었다. 그것도 나의 현실체험속에 아름답게 끼여 든 생활의 한 토막이다.

벌등섬공동시장문제를 철저히 막아 나선 사람은 자강도당책임비서였다.

사람들을 다 굶겨 죽이겠는가, 자그마한 빈 땅패기를 유익하게 써먹으면서 식량난을 풀자는데 막아 나선다고 도당책임비서 강태혁이와 정면으로 맞서는 일군들도 있었다.

그러나 태혁은 사람들이 돈맛을 보면 머리속에 쉬가 쏘고 나중엔 사상적으로 변질된다, 인민을 정신적불구자로 만드는 행위는 이 자강땅에선 허용될수 없다고 책상을 쳤다. 그러면서도 식량문제를 풀지 못하는것이 태혁의 고민이었다.

극적으로 대립된 소설의 한장면 같은 생활이었다.

압록강의 벌등섬에는 항일혁명투쟁시기 태혁의 아버지 강희준이 국내공작을 나왔다가 열흘동안

이나 피신하여 초근목피를 먹으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연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이후 왕청에서 체포되어 화형을 당했다. 이 두 가슴아픈 과거사는 태혁의 형상을 뒤받침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맞물리게 되었다.

바로 그러한 진실한 생활이 있음으로 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태혁의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강희준의 유해가 없는 빈 흙무지의 한줌 흙을 가져다 합장해 주시는 장면, 자강도 인민들의 식량난때문에 몸부림치는 태혁의 편지를 받아 보시는 내면세계, 인민무력부의 비상미를 태혁에게 보내주시는 생활들을 작품의 절정으로 끌어 올릴 수 있었다.

장강도당책임비서가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양으로 올라 갔다는 말을 듣자 천리길을 달려 장군님앞에 나타난 태혁, 우리 장군님께서 그들에게 은정을 베풀어 주시는 생활도 모두 《고난의 행군》시기에 있었던 사실이었기에 자신심을 가지고 썼다.

그러나 나의 창작에는 고충이 많았다.

나는 한동안 현실에서 한보따리 듬뿍 안고 온 생활소재의 난가리속에 파묻혀 헤어나지 못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질 않는가. 서둘러 작품의 줄거리를 완성한 나는 집필에 착수하였으나 얼마후 펜을 놓고 고민속에 빠져버렸다.

현실체험을 통해 충분히 파악한 생활인데 이상하게 글줄이 나가지 않았다.

이미 집필한 원고를 펼쳐 보고는 떡심이 풀려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인간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딱딱한 사건에다 뒤까지 뻗드름하여 읽을 맛이 없었다.

작가의 흥분과 열정이 굵이치지 않는 숨결 없는 글이었다.

왜 이렇게 되는가? 며칠동안 머리를 싸쥐고 모대기던 끝에 드디어 그 까닭을 알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에 복종하는 중요인물들인 강태혁과 장관우, 전력공업부 부부장 리성하의 인간관계가 순수 생산실무적으로 맺어졌었다.

태혁이와 장관우는 난관에 굴함없이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를 관철하는 긍정인물, 리성하는 자강도에 내려와 보고 조건타발하는 부정인물로 설정되어 있었다. 결국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현실물소설들에서 흔히 나타나곤 한 생산실무적으로 얽혀진 인간관계가 나를 곤경에 밀어 넣은 것이었다.

나는 총서작품도 철저히 인간학으로 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그들 세 인물의 인간관계를 두고 새롭게 모색하면서 열흘나마 시간을 허비하였다.

자강도에 들어 가 집필하던 때이라 토론할 사람도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는 초조감속에서 대담하게 인간관계를 뜯어 고쳤다.

그리하여 전력공업부 리성하부부장이 내려오자 무척 반가와 한 태혁이가 자기 오른 팔처럼 믿고 일하던 장관우까지 동요하여 혼자서 난관을 걸머지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설정하였다.

리성하의 출현으로 하여 수많은 난관을 가까스로 이겨 가던 태혁의 힘겨운 일은 험해 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훨씬 더 어려워 진다. 그들 세 인물을 보여 주는 생활들이 눈앞에 닥쳐서 떠올랐다.

그때 나는 몹시 흥분했다.

장관우가 리성하의 영향을 받아 동요하기 앞서 태혁이와 장관우의 인간적인 믿음, 신뢰를 보여주는 생활들을 허리띠를 풀어 놓고 냅다 썼다. 원고매수를 아끼지 않고 붓이 나가는대로 힘자라는 것 펼쳐 보였다.

한편으로 장관우와 리성하부부장과 우정, 그들의 인간적인 밀착관계를 보여주는 생활들도 흥취가 나서 화폭에 그렸다.

자강도 인민들의 식량난이 극한점에 도달하여 강태혁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원목수출을 허락해 주실것을 청원한다. 그때까지도 장관우가 눈 먼 땅아지 위당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격으로 리성하를 끝없이 따라 가게 그의 생활을 끝냈다.

장관우는 태혁이가 위대한 장군님께 무엄하게 편지를 올린 사실을 알고 그의 장래문제를 우려하며 너무도 피로와 장밤 술을 퍼마신다. 결국 장관우는 자기의 인간적인 본바탕까지 버린 일군이 아니었다.

나는 장관우의 부정성을 강조하면서도 밟지 않은 인물로 그려 가며 애착을 가지고 썼다.

태혁의 안타까운 청원이 담겨 있는 편지를 받아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책망하실 대신 인민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나선 그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며 인민무력부의 비상미를 보내주시는 절정 장면에서 장관우는 비로소 자기가 어떤 너절한 인간으로 변질해 버렸는가를 깨닫고 뼈저리게 후회한다.

자강도 인민들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사랑, 크나큰 은정은 장관우의 사상적개변에서 결정적인 계기로 된다.

이제 남은것은 리성하와의 결별이었다.

리성하의 무책임성으로 하여 자강도 로동계급이 굶주림을 무릅쓰고 흑한속에서 희생적으로 투쟁했지만 발전소들의 건설기일을 보장하지 못하는 엄중한 후과가 초래된다.

장관우와 리성하의 우정을 보여 주는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리성하의 어머니이다. 장관우는 이전에 친구를 대신하여 자강도에서 홀로 사는 리성하의 어머니를 극진히 돌봐 주었다.

나는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잘못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을 관철하지 못할 난관에 봉착한 이 대목에서 기가 막혀 리성하를 찾아 가다가 눈

보라 울부짖는 겨울밤 길가에 쓰러져 숨지는 장면을 썼다. 가혹한것 같았지만 리성하의 패배주의가 빚어낸 가슴아픈 죽음이었기에 피할수 없었다.

장관우한테는 자기 친어머니를 잃은것과 다른 없는 아픔이었다.

그는 태혁의 앞에 나타나 《리성하부부장은 사람이 아니요!》라고 눈물이 글썽해서 웨친다.

나는 여기까지 써놓은 다음에야 그들 세사람의 인간관계가 마침내 생산실무적인 문제에서 탈피한 안도감을 느꼈다.

아울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태혁이와 장관우가 환멸을 느낀 리성하부부장문제때문에 자강도 현지지도를 마친후 발길을 떼지 못하시는 장면,

태혁의 승용차가 그이께서 타신 렬차를 따라 내달린 실재한 사실도 보다 생활감이 나고 눈물겹게 보여 줄수 있었다. 드디어 원고가 완성되었다.

나는 원고를 가지고 자강도에 찾아 가 도당책임비서의 책상에 놓았다. 그리고는 려관으로 돌아와 보름동안이나 안타깝게 기다렸다.

그때의 나의 심정은 《고난의 행군》시기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을 받들고 어려운 돌파전을 지휘한 당일군앞에서, 아니 독자대중앞에서 《심판》을 받는 심정이였다.

마침내 보름이 되자 그와 마주 앉았다. 어떤 의견이 나오겠는지 불안으로 심장이 뛰었다.

《강계정신이 맥박치오.

우리 장군님께서 안겨 주신 강계정신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던 자강땅 로동계급의 생활과 투쟁모습이 눈물겹도록 진실하게 안겨 오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 났다.

사실 소설은 총서작품의 고유한 생리에 맞게 형상하느라 했지만 최상의 수준에 오르지 못한 미흡한 점들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정도 현실생활을 눈앞에 보듯 진실하게 재현한것으로 하여 조금이나마 그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으리라 본다.

그때 나는 그의 말을 작품에 대한 열렬한 호응에 앞서 내가 앞으로 보다는 호흡이 크고 폭이 넓고 깊이 있게 창작할것을 바라는 높은 요구성으로 받아 들이였다.

지금도 그때를 돌이켜 보며 생각한다. 거들 말 하건대 진실한 형상을 창조하자! 현실속에서 찾아낸 독특한 종자에 맞게 기름진 생활화폭들을 진실하게 형상하자.

진실이라는 위력한 힘이 있어 내가 이처럼 우려한 문제, 《고난의 행군》시기의 거창한 생활을 총서작품에 옮기는 어려운 창작이 가능했으며 또 대담하게 쓸수 있었다.

단지 인간들의 생활이 진실하게 흘러 가는 소설을 창작하기 위한 나의 피 라는 노력이 원만히 실현되지 못한것 같은 아쉬움이 있을뿐이다.

영원한 려장

주경

그날의 귀틀집 정갈한 벽에
오늘도 걸려 있는 배낭이여

푸르른 밀림으로 아득히 뻗어 간
백두산으로 오르는 이 길에
우리 장군님 메시였던
그날의 배낭이여

아, 백두밀림에서 밝아 온 조국의 아침을
영원한 태양의 빛발로 이어 가시려
열네살 어리신 그 어깨우에
저 배낭을 우리 장군님 메시였나니

그날부터 이 귀틀집에 저 배낭은
하나의 배낭으로만 걸려 있지 않았더라
수천수만의 어깨우에
성스러운 백두의 려장을 없어 주며
세월의 준엄한 폭풍을 헤쳐 왔더라

내 그날의 배낭앞에서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는
백두의 녀을 안고
력사의 준령을 헤쳐 넘어 온

우리 혁명의 승리의 년대들을 보노라

세월의 이끼로 덮어 버릴수도
력사의 잡풀속에 묻어 버릴수도 없는
우리 수령님 헤쳐 오신
백두의 피어린 혈전만리를
주체혁명위업의 대통로로 열으시며
그날에 우리 장군님 메시였던
조선혁명의 영원한 려장이여

쓰러지면 열백번 다시 일어 나
굽주려도 피 흘려도
가고 또 가야 할
민족의 만대혈통이 이어 진
백두의 행군길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주는 배낭이여

아, 우리 장군님 진두에서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계승의 천만리를 따라
폭풍치는 백두의 행군대오와 함께
배낭은 오늘도 가고 있어라
세대와 세대의 어깨와 어깨우에...

소설가의 모습

김삼복

1

단편소설 《불 타는 섬》과 장편소설 《개마고원》, 《아들딸》 등을 썼으며 작가동맹 소설분과 위원장사업을 다년간 하였던 황건에 대한 기억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희미해져 가고 있는 때에 그를 추억하게 되는것은 자못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으며 따라서 이 글을 쓰는 나 자신이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소설가 황건은 어떤 작가이며 또 어떤 사람인가. 추억을 더듬느라니 40년전의 일이 먼저 떠오른다.

작가는 우선 자기가 쓴 작품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소개되며 사회에 알려 지기마련이다. 나는 황건(본명 황재진)을 그가 쓴 소설들인 《불 타는 섬》과 《개마고원》을 읽고 알게 되었으며 그의 문학세계에 접근하게 되었다.

바로 40년전에 나는 그의 첫 장편소설 《개마고원》을 읽게 되었다. 지금도 그때의 일이 잊혀 지지 않는다.

... 산촌의 깊은 여름밤.

캄캄한 하늘에서 비가 주룩주룩 쏟아져 내리는데 한 청년이 고향집으로 돌아 오고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누이들이 있는 정든 집을 몇달만에 다시 찾는 감회 깊은 걸음이건만 그는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비오는 밤 몰래 마을로 스며들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는 누구인가?

식구들은 무척 놀라며 반가와 한다.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순박한 산골처녀 순희는 그새 어떻게 되었는가?...

나는 장편소설을 밤을 밝혀 가며 읽었다. 손에서 책을 놓을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때 고중시절에 억제 할수 없는 독서열을 안고 소설들을 많이 읽었는데 감수성이 예민한 때여서인지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작품들은 그 인상이 오늘까지도 남아 있다. 그래서인지 황건 하면 먼저 장편소설 《개마고원》이 떠오른다.

그만큼 나는 소설에 묘사된 산간마을의 생활속에 폭 잠겨 들었으며 주인공들의 운명을 따라 가면서 그들이 겪는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었다.

장편소설을 읽어 나가고 있던 나의 눈앞에는 내가 직접 본 산간지대의 풍치와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나는 부모들을 따라 개마고원의 어느 한 골짜기에 있는 마을에 가서 근한해동안을 보냈는데 그곳은 문명세계에서 퍼그

나 뒤떨어 진 고장이었다. 바람이 잉-잉 울어대는 겨울밤이면 화로불에 감자를 구워 먹으며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와 귀신을 불러 내는 놀음으로 시간을 보냈다.

자연은 거칠고 아름다웠다. 골짜기를 따라 경사지를 올라 가면 놀랍게도 높은 지대에 잡초가 허리치게 자라고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있는 무연한 초원이 펼쳐져 있다. 그가운데로 난 달구지길로 학교를 오고 갈 때 고원을 스치는 바람소리와 새들의 지저귀음을 들으면서 거칠고 쓸쓸한 감정에 잠기게 되는것을 어찌지 못했다. 장편소설 《개마고원》은 내가 체험했던 이런것에 대한 강한 추억을 불러 일으켜 더욱 깊은 인상을 남겼을수 있다. 하지만 오늘에 와서 한 작가의 눈으로 소설을 관찰해 보고 음미해 볼 때 이 소설에서 《삼수갑산》의 질은 향토적채취가 풍기는것은

그 지대 사람들의 생활을 자연 그대로 펼쳐보였기때문만이 아니라는것을 알수 있다. 작가는 소설에서 나처럼 그 고장을 잠깐 다녀 간 사람이나 거기서 대를 이어 오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으면서도 무엇이라고 꼭 짚어 말할수 없었던것 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것들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낙후하고 진부한 생활세계가 아니라 아름다운 세태풍습과 향토적감정을 찾아내어 펼쳐 보였다. 작가는 이 소설에 묘사된 주인공들의 운명을 통하여 인간생활의 진리를 말하려 했던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늘 목격할수 있는 평범한 생활의 본질을 드러내며 평범한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 숭고한 정신세계를 전형화하여 보여주어야 한다. 예술적흥미는 바로 일상생활에 체현되어있는 깊은 뜻을 새롭게 알게 되고 고상한 생활세계에 스스로 끌려들어가는데서 생겨나는것이다.》

황건은 언젠가 인민들의 의지, 념원, 투쟁을 때려 놓고 자기의 창작을 생각할수 없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을 고향땅 삼수갑산의 다채로운 생활과 사람들의 운명을 통하여 밝히려 했기때문에 그의 소설들이 풍기는 북방의 독특한 향토적색채가 독자들에게 진정한 예술적향취를 가져다 주고 있는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평범한 산촌의 생활에서 찾아야 할 작가의 묘를 바로 보았다. 그러지 못했더라면 그는 참다운 소설가로 될수 없었을것이다.

그의 창작경험을 들어 보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이렇게 타관을 전전하는 기간 철 없던 시기에 나 철이 든 뒤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어느 때나 나의 가슴속에서 떠난적이 없었다. ...밤에 자리에 드러누워 있노라면 때 아니게 귀가에는 깊은 골짜기 바위벼랑에 메아리치며 흘러 가는 허천강물소리가 웅- 웅- 들러 오면서 낮 익은 초가집들과 고생속에서 살아 오던 사람들의 그리운 모습들이 눈앞에 선해 오는 것이었다. ...어떠한 막다른 골목을 거쳐 삼수갑산 이 산속에까지 밀려 든 사람들이었으며 얼마나 고생속에 살아오는 사람들이었던가! 그속에서도 서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며 살기 위해 애를 써온 사람들인가! 그 막막한 생활속에서도 한줄기 광명과 기대를 잃지 않고 삶의 기쁨을 찾아 피눈물로 싸워 온 사람들!...

고향에 대한 어렸을적부터의 이 오래고도 간절한 감정, 이것이 <개마고원>을 쓰게 한 것이며 그 태줄기로 되게 한 것이다.》

열한살때 고향 갑산을 떠난 황건은 이러한 짙은 향수를 가슴에 안은채 서울과 도쿄, 장춘 등 우리 나라와 그 주변을 방황하다가 스물네살때인 주체30(1941)년에 귀향하였다. 그 기간 공부도 하고 교원생활과 기자노릇도 해보았으며 글도 좀 써보려고 했으나 모든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며 특히는 일제가 조선말과 글까지 빼앗게 되자 청춘의 푸른 꿈을 포기하고 향촌으로 돌아 오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고향사람들속에 살면서 면양을 방목하다가 해방을 맞이했다.

고향땅에서의 목축생활기간은 암담하고 불우한 나날이었으나 한편 이 기간에 그는 작가로서의 값 있는 체험을, 가난하고 몽매한 산촌의 불행한 사람들의 생활과 고난속에서도 인정미 흐르고 래일에 대한 꿈을 안고 사는 소박한 사람들의 념원, 삶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목축의 로동생활을 체험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삼수갑산땅의 제한되고 뒤떨어진 눈으로가 아니라 넓은 세상에 뛰쳐 나가 세파를 겪으며 탐구와 사색을 거친 선각자의 안목, 즉 작가적인 눈으로 자기 고향과 고향사람들을 새롭게 보게 된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면양치는 로동을 했다는 점이다.(이 점은 《개마고원》의 해방전 생활장면과 인물들의 과거행적과 체취 등에 반영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 주신후 삼수갑산 사람들의 생활과 정신세계에서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로동에 대한 새로운 태도에서 나타났다. 고향땅에서의 변모는 황건을 격동시켰다. 그가 아직 체험하지 못했고 또 할 수도 없었던 사변들이 일어 나고 있었으며 그 소용돌이속에 그자신도 있었다. 그

리고 해방전에는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었던 글을 이제는 마음껏 쓸 수 있었다. 목축을 하면서 가슴속에 서리어 도는 울분과 항변을 터치고 싶어 몸부림쳤던 황건에게는 지금 그것을 마음껏 써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나 그는 그것보다도 해방을 맞은 고향땅에서의 충격적인 사변을 써내는 것이 더 급했고 시대가 그것을 요구했다. 그리하여 그는 평양의 여러 신문사들에서 일하는 한편 《산곡》, 《목축기》, 《남아의 양》 등 단편소설을 연이어 발표하여 산간지대인민들의 정신적변화과정과 로동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묘사하였다.

삼수갑산의 새 생활, 고향사람들의 새 모습은 해방과 함께 진출한 작가 황건을 배출하였다. 먼 산촌의 생활이었으나 시대의 주도적 감정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쓴 소설들은 보편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었다.

우리는 《목축기》의 주인공들인 형우와 성화의 형상에서 삼수갑산지대의 독특한 사투리를 쓰는 개성적인 모습을 보는 동시에 새로 태어나는 산촌사람들의 성격적미-해방된 우리 인민모두에게서 찾아 보게 되는 나라의 주인된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황건은 단편소설들을 쓰는 한편 자기의 풍부한 체험에 기초하여 삼수갑산일대 사람들의 생활을 해방전후에 걸쳐 폭 넓게 반영한 장편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단편소설에서의 성과가 그를 고무하였다. 그러나 장편소설을 써가는 과정에 해방전 생활은 어찌서인지 흥미가 없어 저 가고 의의가 희박해 지는 반면에 작가를 흥분시키고 있는 해방후의 생활은 이제 겨우 시작하는데 불과했으므로 주제사상을 심화시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깨닫기에 앞서 글이 잘되어 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장편소설을 더 추진시킬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생활은 더욱 격동적으로 넓은 폭을 가지고 펼쳐 졌다. 해방후 새로운 환경이 마련되고 사람들의 정신적변화들이 일어 나고 있었으나 먼 북방의 산간지대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상대적으로 굵뜨게 진행되었다. 이것은 이 지방에서의 새것과 낡은것간의 계급투쟁이 독특한 양상을 띠고 복잡하게 진행되게 된 원인으로 되었다. 이 계급투쟁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이르러 더 첨예화되고 심각해 졌으며 마침내는 결판을 보게 되었다. 개마고원에서의 이러한 심각하고 격동적인 생활의 흐름은 작가가 쓰려고 하는 장편소설의 내용을 부단히 보충하면서 드디어는 소설에 담아야 할 시대적배경과 인간관계의 폭을 작가에게 제공해 주었고 사상주제적 과제를 규정지을 수 있게 해주었다. 작가는 주체34(1945)년말에 고향을 떠난 후 주체36(1947)년, 주체38(1949)년, 주체41(1952)년 세차례에 걸쳐 고향을 찾았는데 이 과정에 우리의 혁명력사와 함

게 우여곡절에 찬 시련과 자랑찬 투쟁을 거치며 성장해 온 고향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다. 《개마고원》의 창작과정은 작가가 그 지방인민들과 운명을 함께 하면서 진척시킨 모색과정이었다.

《목축기》도 《개마고원》도 그리고 썩 후에 쓴 장편소설 《아들딸》도 작가가 개마고원지대에서 《퍼낸》 수확물들이다. 그의 소설들은 거의 다 개마고원일대를 생활의 무대로 하고 있다. 개마고원은 그의 창작의 비옥한 토양이었다.

아직 황건을 인간적으로 알기전에 내가 그의 소설들을 통하여 파악할수 있었던 소설가 황건의 모습은 이렇듯 북방의 독특하고 거친 자연과 인간생활에 뿌리를 박고 있는 향토적인 작가의 모습이였다.

2

나는 그후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에 다닐 때 처음으로 황건을 직접 알수 있었다. 물론 그때 처음 본것은 아니지만 아직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못했던것이다.

주체53(1964)년이였을것이다. 당시 어문학부 창작강좌에서는 우리 상급반학생들의 문학수업에 도움을 주며 안목을 넓혀 주기 위하여 작가동맹에서 이름있는 작가들을 초빙하여 오군 하였다. 그들이 출연하는 시간을 특강시간이라고 하였다.

그때 박세영, 리원우, 박혁, 엄호석과 함께 황건도 초빙되어 왔었다. 리원우는 아동문학작가답게 이야기를 아기자기하게 잘했다. 엄호석은 학생들이 듣기싫은 개의치 않고 결상에 앉아서 시종일관 단조로운 어조로 논리를 펴나갔다.(그러나 주의해서 그의 강의를 속기한 학생들은 큰 지식을 얻을수 있었다.)

황건은 자기의 창작경험을 정력적으로 이야기 하였지만 이야기솜씨는 없었다. 손세를 써가며 자기가 이야기하려는 내용의 뜻을 보충하고 강조하는 그는 마치도 온몸으로 말하는것 같았다. 그만큼 그는 문학도들을 위해 정열을 아끼지 않았다. 나중에는 입안이 말라 드는것 같았다.

그때 쓴 나의 문학일기책을 뒤져 보니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4월 7일에 소설분과위원장 황건선생이 김광현 선생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 왔다. 체격이 웅장하고 두 눈이 크며 목소리가 우렁우렁하였다. 그는 우리들에게 질문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말한다. 처녀작은 그것을 쓸 때까지의 자기 인생의 체험, 감정, 사회에 대한 관점 등 한마디로 인생총화라고 하였다. 그는 자기 창작에 대해서 말하기를 즐겨 하지 않았으며 신인들에게 주는 귀중한 말을 많이 하였다. 미학적리상이 낮다는것, 사색이 좁다는것, 신인으로서 독창성이 없다는것, 생활에 대한 열정, 관점

이 부족하다는것, 문학은 인간문제지 기술공정은 아니며 이 인간문제야말로 철학성이 풍부한것이라는것, 기술공정이 성격을 위해 있다는것, 성격을 잘 알며 성격을 그리는 숙련을 하라는것 등... 인간은 성격이며 성격은 개성이다. 개성이 살지 못하면 성격도 인간도 살지 못하며 인간이 살지 못하면 인간문제도 주제도 문제성도 없다.》

황건을 처음으로 직접 알게 된 이날의 인상은 이렇듯 그가 문학신인들에게 관심이 크고 진지하고 정열적인 인간이며 작가라는 느낌이였다. 첫 인상이 언제나 중요하다. 첫 인상에서 받았던 느낌은 세월이 흘러 가도 잘 지워 지지 않는다. 그런데 황건에게서 느낄수 있었던 그 첫 인상의 좋은 감정은 그후 흐려 지지 않았으며 더 짙어 졌다. 그는 일단 문학창작의 길에 발을 들여 놓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작품을 썼는가 하는 실천적견지에 따라 평가하는것이였다. 소설과 그 소설을 쓴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는 개인감정이 없었다.

대학을 졸업한 나는 작가동맹 중앙위원회에 배치되였다. 이것은 중학교시절부터 작가가 될것을 꿈꾸어 온 나에게 있어서 실로 상상밖의 행운이였다. 작가동맹에서 부원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해서 작가로 된것은 아니지만 작가로 될 유리한 조건과 빠른 길이 열려 진것만은 사실이 아닌가. 더구나 내가 그들의 작품을 읽으며 그토록 황홀해 하고 존경하여 마지 않던 작가들과 한집단속에 살아 가게 되었으니 그것이 나에게서는 꿈만 같은 일이었다.

작가동맹 중앙위원회는 인민군거리(지금의 영광거리) 련화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안에 들어 있었으며 당시 위원장은 천세봉이였다. 스물세살의 문학도가 천세봉선생과 한지붕아래서 같이 일하게 되었다! 나는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워 졌으며 누구에게나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그런데 《석개울의 새봄》과 《대하는 흐른다》를 쓴 천세봉은 매우 소박하고 겸손했으며 평범했다.

《아무도 몰라》와 《날이 밝는다》를 쓴 말을 조용조용히 하는 시분과위원장 정서춘, 어린 아이들처럼 순결하고 량심적인 참다운 아동문학작가인 아동문학분과위원장 리원우(그는 성인문학작가들이 아동문학을 《작은 문학》이라고 끌어 보면 안된다고 말하곤 했다.), 《김소월론》을 쓴 엄엄한 평론분과위원장 엄호석, 희곡 《조선의 어머니》를 쓴 활동적인 희곡문학분과위원장 박혁(그는 희곡은 드라마이고 소설은 슈제트라고 하면서 드라마이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호인이고 뚱뚱한 외국문학분과위원장 최일룡...

나에게는 그들이 무척 대하기 어렵게 생각되였던 분들이였다. 문단에서 자기의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문학도들에게 아득한 산봉우리로 쳐다보이던 이들은 다 겸손했고 부원들을

스스럼없이 대해 주었으며 인격을 존중해 주었다. 그들은 부원들이 아직 작가가 아니라 하여 절대로 깔보지 않았으며 같이 동맹사업을 놓고 토론을 했고 농촌동원도 함께 나갔다. 그들은 행정일군이기전에 작가였기때문에 작가들에게서 보게 되는 소탈한 인간미가 풍기였다. 때문에 작가동맹은 행정기관풍이 아니라 문학풍이 지배적인 《문학동네》의 중심지였다.

소설분과위원장 황건도 레외가 아니었다. 황건에 대한 초기의 기억은 거의 없다. 나는 주체54(1965)년부터 작가동맹에서 일했는데 당시는 혁명적대작을 창작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천세봉과 황건이하 대부분의 소설가들이 밖에 나가서 장편소설창작전투를 벌리던 때였다. 그래서 황건분과위원장을 동맹안에서 보기 힘들었고 혹시 만나다 해도 간단히 인사를 하는 것으로 그쳤다. 그는 통담도 잘하고 이야기를 하면 정열적이었지만 똑한 편이었고 말보다 생각을 많이 하여 쓰는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였다. 그는 분과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적었으며 분과위원장사업보다 장편소설을 쓰는데 더 정신이 쏠려 있었다. 소설분과에는 늘 보아야 부원이 혼자 앉아 있곤 했다.

황건은 그때 세번째로 소설분과위원장직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주체42(1953)년부터 소설분과위원장을 하다가 2년후에는 현역작가생활을 했으며 그후 다시 1년간 그 직무에서 일했다. 그러다가 함남도 및 량강도에서의 현역작가, 도지부장, 평양문학대학에서의 교원생활을 거친후 주체51(1962)년부터 세번째로 소설분과위원장으로 사업하였다. 그러나 이때에 와서는 혁명적대작창작에 전념하면서 분과위원장사업을 《제대로》 할수 없었다. 그렇기도 했거니와 그는 어디까지나 소설가였다. 소설가로서 그는 분과위원장을 했건 무엇을 했건 언제나 창작세계에서 떨어 저 본 적이 없었다.

나는 황건과 사귄 기회가 거의 없었기때문에 우리는 아직 서로 인간적으로 친숙하지 못했다. 그는 나를 잘 모르고 있었다. 나 역시 황건의 소설들을 읽고 작가로서 그를 어느정도 알고 있었고 존경하여마지 않았으나 인간적으로는 깊이 모르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나는 1970년대 초부터 소설분과에 옮겨 앉음으로써 황건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 그가 나를 부원으로 끌어 간것은 아니였다. 내가 일하던 회곡분과에 부원이 한명 필요 없게 된 반면에 소설분과에는 부원이 결원이 되어 자연스럽게 조동이 되었다. 대학기간 회곡을 전공했으나 원래 소설을 쓰고 싶어 했으며 소설에 애착이 깊던 나에게 있어서 이 조동은 운명적인것이였다. 우산장에서 들어온 황건분과위원장에게 내가 소개되었다. 그는 반갑게 웃으며 크고 두툼한 손으로 나의 손을 힘껏 잡아 흔들었

다.

《같이 일해 보지요.》

그런데 그는 분과행정실무와 관련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 내가 동맹안에서 이미 다년간 부원일을 했기때문에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도 그는 나와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 다시말하여 내가 소설가로 될수 있는가 하는것을 알고 싶어 한것 같았다.

《소설공부를 했는지요?》하고 그가 물었다.

나는 간부부원과 담화할 때 내가 원래 소설을 쓰고 싶어 했으며 문학대학에서 있던 창작경기때 소설을 써서 입선했었다는 말을 한적이 있었다. 분명 황건은 그것을 녀두에 두고 물었다. 그러고보면 그는 이미 나에 대하여 료해하였으며 소설공부를 했다는 점을 중시하고 분과부원으로 받는데 동의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에게는 행정사업만 잘하는 부원은 반갑지 않았던 모양이다.

나는 내가 소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것을 그에게 말하면서 그의 소설들을 특히 《개마고원》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데 대하여 한동안 늘어 놓았다. 그는 흥분하여 얼굴을 붉히면서 다리를 흔들었다.

우리는 비로소 호흡이 통했고 따분하고 공식적이던 첫 분위기에서 벗어날수 있었다.

《소설을 써야 합니다. 작가동맹에서는 작품을 써야 합니다.》하면서 그는 문학수업을 잘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다. 그러나 부원사업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았다. 사실 우산장에 나가 있으면서 분과사업에 힘을 넣을수 없었던 그에게 있어서 분과사업을 잘하는 유능한 부원이 더 필요했을것이다. 문건을 작성하고 계획을 세우고 작가들에게 료독조직을 하는 등 분과부원의 일은 험치 않았으며 부원이 자기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짐은 분과위원장이 지기마련이였다. 그런데도 그는 내가 부원의 사업능력이 있는가 하는것보다 소설을 쓸수 있는가 하는데 더 관심을 돌리는것 같았다. 물론 부원사업을 잘하자면 작품을 써야 하며 작가가 되어야 한다. 그런 리유때문에 소설을 쓰라고 했을수도 있다. 아니다. 황건은 내가 재능 있는 소설가로 되기를 바랐다. 자기가 데리고 있을 부원을 소설가로 키우고 싶었던것이다.

하기에 내가 소설을 쓰라고 하는 그의 권고에 즉시에 대답이라도 한듯 주체61(1972)년 4월호 《조선문학》에 나의 첫 단편소설 《수훈호반사람들》이 발표되자 그는 자기의 부원이 소설을 쓸수 있다고 인정했는지 상당히 기뻐했다.

《우리 부원동무를 가맹시킵시다.》하고 그는 내가 있는데서 리상현에게 서둘러 말했다.

《내가 가맹보증을 서겠소.》하고 리상현은 안경

을 번뜩이며 덮어 놓고 응했다. 하긴 그가 나의 소설에 대한 칭찬을 한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맹 문제까지 나왔던것이다.

당시 분과위원들로는 석윤기, 김병훈, 리상현, 변희근, 윤시철... 등 명망이 있는 작가들이 속해 있었다.

소설분과사업을 같이 하면서 나는 인간적으로 또 소설가로서 황건에 대한 인식을 점점 더 깊이 하게 되었다. 내가 분과사업을 토론하기 위하여 그가 장편소설을 쓰고 있는 우산장으로 찾아 가면 그는 매번 지금 무엇을 쓰고 있는가 하는것을 알아 보곤 하였다.

내가 무슨 회의가 많고 동원이 많아서 요새는 시간을 낼수 없었다고 말하면 그는 그 말을 변명으로 들으며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 소설을 써야 해! 시간이란건 쟁취해야지 저절로 찾아들지 않소.》하면서 그는 인차 평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산장창작실에 며칠 묵으면서 그동안 작품을 쓰라고 당부하곤 했다. 그리고는 그동안 웬간해서는 나를 찾지 않았다.

나는 그의 말없는 따뜻한 눈길을 받으며 후더워 오는 가슴을 어찌지 못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분발하지 않을수 없었다.

분과위원장이 이처럼 고무해 주고 떠밀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짜내어 소설을 쓰려고 애썼다. 물론 분과위원장이 쓰라고 하지 않아도 몰래 시간을 내든 휴식일이나 명절날을 바치든 어쨌든 소설을 썼을것이지만 그러한 힘있는 고무 그리고(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나의 소설에 대한 높은 요구와 채찍질이 나를 작가로 키우는데서 큰 작용을 했다고 나는 늘 생각하곤 한다.

그때 작가동맹안에서 부원들은 글을 쓰지 않고는 배겨내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부원을 거쳐서 작가로 발전해 간것이 우연치 않았다. 부원들은 분과작가들의 원고심의에 참가하여 의견을 내고 발표된 작품들에 대한 분석평가에서 한몫했으며 분과총화보고서도 썼다. 그러므로 분과부원의 사업권위가 높았다. 이렇게 되자면 분과부원이 작품을 써야 하며 기량을 부단히 높이며 작가로 되어야 하는것이다. 동원이나 잘 나가고 심부름이나 잘하는것이 부원의 표징이 아니였다. 때문에 동맹부위원장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작품을 쓰라고 당부하곤 했다.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고무적이었던가.

나는 부원사업을 할 때 매해 두권의 소설을 써서 동맹기관지들에 발표하였다.

부원들이 창작을 하도록 장려한다고 해서 그들이 동맹사업과 분과사업, 기타 행정사업에 등한시하고 사업능력을 높이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니였다. 부원은 무엇보다도 본신임무를 잘 수행해

야 하였다. 그런데 창작을 잘하는 부원들이 행정사업도 잘했다.

행정실무사업도 잘하고 창작도 하자니 몇갑절 힘이 들었다. 그때 나는 하늘이 푸르게 개였는지 재빛으로 흐렸는지 모르고 다녔다. 퇴근하면 집안일이 어떻게 되든 책상에 마주 앉아 늦도록 읽든가 쓰든가 하였다. 가슴속에서는 《불타는 섬》이나 《개마고원》 같은 좋은 소설을 써내고야 말겠다는 욕망이 항상 끓고 있었다. 아니, 그보다 더 훌륭한 세계적인 명작을 써낼듯 한 자신심과 야심을 안고 쓰고 또 썼었다.

황건분과위원장은 부원과 소설작품론의도 자주했다. 발표된 작품들에 대한 평가에서 견해일치를 보기 위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내가 지방에 출장 가서 심의하고 온 작품에 대한 의견을 말할 때면 그는 매우 심중하게 들었다. 나의 의견에 따라 작가를 우산장에 불러 작품을 완성시키겠는가 어찌겠는가 하는것을 결심해야 하기때문이었다. 내가 강계에 갔다 와서 백철수의 장편소설 《우리 마을》과 권장석의 중편소설 《대를 이어 가는 사람들》의 초고를 읽은 소감에 대하여 장시간 이야기하자 황건은 무릎을 펴면서 한동안 생각하고 나서 《우산장에 부르오.》하고 지시하였다.

그는 이렇듯 부원의 의견을 존중하였다. 그는 나를 아래사람으로, 심부름이나 하는 부원으로 치부하지 않았으며 또 부원이 그렇게 되는것을 원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해서 작가로 키운 나를 그는 평양창작실에 내보내어 전문적으로 창작을 하는 현역작가 생활을 시키려 했다. 만일 상급에서 오랜 부원들을 내보내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지 않아도 분과위원장이 늘 우산장에 나가 있는데 일을 제길만 한 부원이 분과에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내놓으며 막지 않았더라면 나는 현역작가로 훨씬 빨리 나갔을것이다.

황건은 작품을 잘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든 다 존중했으며 그에게 애정을 기울이였다. 인간으로서의 황건은 사람을 대할 때 선이 굵직 굵직했으며 부드럽거나 섬세하지 못했다. 하지만 작가로서 또 소설분과위원장으로서의 황건은 좋은 글을 쓴 사람에 대하여 각별히 친근하게 대했다. 마치도 그는 소설을 기준으로 하여 사람들을 대하고 평가하는듯 하였다.

새싹에 대한 그의 애착과 관심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것은 적지 않은 소설가들이 자기는 황건 선생에 의하여 제발되었다고 말하는것만 보아도 알수 있다.

중편소설 《포성》의 원고가 제기되었을 때 제일 흥분하고 반가와 한 사람이 황건이였다.

《대단한 재능이요. 지체없이 출판합시다.》하며

그는 서둘렀다고 한다.

그는 소설을 출판사에 넘기는 한편 신체허약으로 사회보장을 받고 있던 작가를 즉시 찾아내어 평양시 창작실에 데려다 앉히었다.

조국해방전쟁이 끝난후 이듬해 어느날, 전선동부의 어느 한 부대에 우편엽서 한장이 도착했다. 평양에 있는 조선작가동맹 소설분과위원장 황건이 보낸 이 엽서를 받은 군인은 한 상등병이었다.

모두 눈이 떠준해 졌다. 엽서에 적힌 사연은 빨리 소설분과로 오라는 간단한 지시였다. 단편소설 《명령》을 써서 군인문예잡지에 투고하고 회답이 없어 초조해 하고 있던 때에 이런 엽서를 받은 병사는 무엇인가 속에 짊어는바가 있긴 했지만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어서 흥분에 떠 제 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엽서를 자기 부대 상관들에게 가져 갔다.

일이 바로되자면 작가동맹에서 총정치국에 정식 문건을 내든가 부탁을 해서 총정치국으로부터 명령서가 떨어졌어야 할 것이었다. 사회에서도 어느 공장에 있는 사람을 작가동맹이 부르자면 해당 당조직에 문건을 내야 하는데 하물며 군대에서라! 그러고보면 사실 황건의 편지는 어처구니가 없는 《지시》였다. 그러나 또 사실 작가만이 할수 있는 《지시》였다. 그는 공식적인 경로를 생각지 않았으며 《명령》의 저자인 그 상등병을 불렀던 것이다. 그이상 더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일은 제대로 되었을뿐아니라 썩 잘되었다. 《황건》의 이름이 자필로 쓰여 있는 엽서는 놀랄만 한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행복》이라는 황건의 중편소설이 독자들속에서 읽히우고 있었는데 군대에서도 그 소설과 소설의 저자를 모르는 군관들이 없었다. 그래서 황건의 편지는 총정치국의 명령서 못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병사의 평양출장명령이 즉시에 내려지고 출장수속이 그 엽서의 힘을 빌어 어디서나 쉽게 진행되었다. 당시 작가동맹이나 작가의 권위가 그만큼 높았던 것이고 독자들의 관심 또한 그만큼 컸던 것이다.

작가동맹에 도착하니(그때 동맹은 대동강기슭에 있었다.) 남자답게 체격이 웅장하고 잘 생긴 사람이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내 황건이요.》

큰 눈을 번쩍이며 황건이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동무가 <명령>을 쓴 동무요.》 그는 대견해 하면서 분과사무실에 있던 리상현과 사무실로 들어 오는 사람들에게 병사를 거듭 소개하였다.

그 병사는 자기의 단편소설이 소설분과에까지 《진출》했고 전국문학작품현상응모에 입선되었다는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그의 소설분과 후보명원가맹까지 결정되어 있었다. 황건은 그에게 조직선전부에 가서 맹증을 받으라고

알려 주었다. 모든 일이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빨리 진척되는 바람에 병사는 정신을 차릴수 없을 정도였다.

황건이 그를 부른것은 《명령》을 쓴 그가 보고 싶었고 후보명원 맹증을 빨리 안겨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호출이 그 병사에게는 얼마나 큰 고무로 됐는지 모른다. 황건은 이런 사람이였다.

과물혀 있는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데서 황건은 우물쭈물하지 않았다. 그는 좋은 소설가를 발견하면 몹시 흥분하여 그에 대한 평가와 해당하는 대책을 취함에 있어서 이렇듯 성급해 하곤 하였다. 이럴 때면 그는 성미가 급한 사람이였다.

그런데 신인들에 대한 이러한 관심이 얼마나 귀중한것이며 필요한것인가. 그 상등병(리종렬)은 그때부터 황건을 잊을수 없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찾아 보곤 하였다.

내가 분과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던 어느날 군관복을 입은 쟁쟁한 군인이 찾아 왔다. 우리는 통성했다. 그는 군대에서 제대되어 함경북도작가동맹지부 현역작가로 배치되어 가는 어제날의 상등병이였다.

《황건선생이 안계십니까?》

《우산장에 갔습니다.》

《못만나보겠구만...》 하며 그는 몹시 서운해 하였다.

이 자리에서 나는 그때 황건이 그를 우편엽서로 부른 그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황건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들은 장례를 조용히 지냈는데 그와 가까운 소설가들이 많이 출장중이어서 몇사람밖에 참가하지 못했다. 그 몇사람중에는 그 작가도 있었다. 그는 과거의 추억들이 떠올라 묘소에서 쉽게 돌아 설수 없었다.

황건은 장편소설 《새로운 항로》를 쓰던중 뇌혈전이 왔다. 그후로 재발이 되고 다리마저 잘 쓰지 못하게 되어 침상에 눕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제는 쓰는 일은 더 할수 없었다. 하지만 읽을수는 있었으며 후배들의 소설들을 읽고 고무해주는 일은 할수 있었다. 여기서 그는 생의 마지막일을 찾았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산보하는외에 시간을 침상에서 새 사람들이 쓴 글을 읽는데 바치였다. 그를 찾아 갈적마다 나는 그사이에 내가 써낸 글(소설책이건 잡지이건)에 대한 그의 평가를 들을수 있었다.

《단편소설 <긴등벌>을 보았소.》 한번은 그가 돋보기를 벗으며 말했다.

나는 《조선문학》도 아니고 발행부수가 적은 단행본에 실려 소설분과에서도 잘 모르는 그 소설을 그가 읽었다고 하는데 저으기 놀랐다.

그런데 생의 말년에 이른 황건은 이전처럼 채찍질로 되는 말을 피하고 잘 보았다, 잘 썼다는

소리만 했다. 나는 얼굴이 뜨거워 났다. 그 말들이 더 아픈 채찍질처럼 느껴졌다. 황건선생앞에 부끄럽지 않게 다음번 소설은 잘 쓰리라, 소설가로서의 황건이 못다한 일을 우리 후배작가들이 그를 평가하여 더 좋은 소설을 써내는것이 그의 고무적인 칭찬에 대한 대답으로 될것이다. 분발하라,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3

우에서도 말했지만 황건은 신인들의 작품에 대한 요구성이 강했다. 나의 첫 단편소설이 발표되었을 때 변희근, 리영규 등이 칭찬을 줬 했다. 거기에는 물론 자기 분파의 하나뿐인 부원에 대한 애착의 감정이 크게 작용했을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황건도 만족해 하고 후보명원으로 서둘러 가맹시켰을뿐이지 사실 그는 내용 있는 평가는 하지 않았다. 그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전혀 만족할만 한 소설이 아니었던것이다.

그후에 내가 어느 단편소설의 초고를 그에게 보인적이 있는데 그는 딱한 표정으로 간단하게 그러나 절절한 어조로 말했다.

《성격들을 깊이 파오!》

하고 그는 두손을 삼팔처럼 세워 가지고 무릎을 파는 동작을 해보이며 말했다. 그의 의견은 간단했지만 거기에는 황건식의 소설적요구가 집약되어 있었다.

나의 그 단편소설은 끝내 해빛을 보지 못했다. 나는 《성격들을 깊이》 팔수가 없었다. 황건과 스펀이 달라서일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성격을 깊이 판다는것이 주관적인 노력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성격을 깊이 파자면 그렇게 할수 있는 정황 즉 《마당》을 만들어야 하는것이다. 여기에 작가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황건은 말했다.

언젠가 우리는 《불타는 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자기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황건이었으나 나를 위해서 이날은 입을 열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에서 돌아 온 황건은 월미도에서 최후를 마친 리대훈해안포중대원들의 전투기록을 읽어 보고 이들이야말로 인민군대의 전형이며 조선인민의 참된 아들들이라는 생각으로 계속 가슴이 메여 왔으며 이들에 대한 소설을 써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받았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그 소재를 가지고 소설을 만들지 못했다. 영웅적인 전투행동에 대한 신문기사나 실화를 쓸수는 있겠지만 소설을 만들만한 사건이 없었다. 그런데 사건이란 무엇인가? 월미도를 지켜 싸운 그 영웅적행동이 사건이 아니란 말인가?

황건은 어느 기회에 이렇게 썼다. 《소설이란 인간에 대한 이야기, 성격에 대한 이야기이다. 따라서 소설에는 성격이 발현될수 있는 사건들이 주어져야 하며 설명으로써가 아니라 생활을 통하

여 묘사되어야 한다. 전투를 잘했다는 그것은 성격이 가지는 일면에 불과하다. 성격의 복잡성과 비반복성을 해명하는 노력은 작가의 최대의 고심으로 된다.》

리대훈중대원들의 영웅주의를 어떻게 산 형상으로 그려 낼수 있겠는가. 이렇게 모색하면서 중군작가로 전선에 계속 다니던 어느날 그는 신문에서 읽었던 인천의 여자교환수에 대한 이야기가 문득 머리를 때렸다. 리대훈중대원들이 최후를 마친 뒤 인천시가에 쓸어 든 적들이 우편국안에 뛰어 들었는데 그 순간까지도 녀교환수는 끝까지 남아 사령부에 적정을 보고하였다.

이 전화교환수를 통신수로 바꾸어 월미도에 가져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6개월간 고심해 오던 작가의 구상은 비로소 비약을 하기 시작했다.

사실 이 단편소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해군통신수 명희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말할수 있다. 그만큼 소설은 명희의 시점에서 그의 심리적굴곡을 타고 전개되고 있으며 극적체험도 그 녀주인공에게 주어져 있다. 리대훈이는 월미도를 지켜 최후의 순간까지 싸우다 희생될 운명에 처해 있는 인물이다. 그도 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싶다. 그러나 그는 전투임무앞에서 자기 개인의 행복과 생명을 서슴없이 바칠 사상적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러한 그의 영웅적성격의 내면세계를 전투행동만으로는 도저히 그려 낼수 없는것이다. 그런데 이 중대에 세명의 통신수처녀들이 (작가의 구상에 따라) 나타났다. 그리고 최후가 가까와 지면서 사령부에서는 통신수들에게 철수명령을 내렸다. 처녀통신수들은 부대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살아 남을수 있게 되었다. 이로부터 명희의 극적인 심리세계가 펼쳐지게 된다. 리대훈과 그의 중대원들을 두고 떠나자니 발걸음이 떨어 지지 않았다. 《자기 생애에는 이보다 더 절박하고도 더 중대한 시간이 있지도 않았지만 있을것 같지도 않고 이 시간이야말로 자기의 가장 귀중한것이 결정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처녀는 자기만은 남아서 적정과 포중대원들의 전투성적을 계속 보고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며 허락을 받는다. 명희가 자기의 운명을 중대원들과 함께 하기로 결심한 이 고귀한 행동을 직접적으로 가져 오게 한 동기는 리대훈중대원들의 영웅적투쟁에 대한 깊은 동정과 공감이었다. 말하자면 명희의 심리적체험세계와 고귀한 행동을 통하여 리대훈이를 보여 주었던것이다. 소설이 성공한 비결이 여기에 있다. 조성된 정황에서 심리묘사는 자연스럽게 전개되며 성격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해 들어 갔다.

황건은 신인들을 위한 글에서 이렇게 썼다.

《소설이란 결국 인간문제의 해명을 의미하는것 만큼 성격이 문제의 핵으로 될수밖에 없고 따라

서 그 내면정신세계를 그럴수밖에 없고 심리의 묘사는 필수적입니다.》

심리묘사, 이것이 성격을 깊이 파는데서 필수적인 요소로 되는것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의 묘사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심리묘사이다. 인물의 내면세계를 펼쳐 보여주는데서 기본은 사색과정을 깊이 있게 그리는것이다. 인물의 사색과정을 잘 묘사하여야 성격의 본질적특징과 사고방식을 집중적으로 발현시킬수 있다.》

황건은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을 창작에 구현하는데서 성격창조와 심리묘사에 공헌한바가 컸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고 창작실천에 구현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성격을 깊이 파며 심리를 깊이 드러내도록 사건을 조직하라는것은 황건이 신인들에게 한 요구였을뿐아니라 작가생활 전 과정에 그가 자기자신에게 한 엄격한 요구이기도 했다.

그는 정서라든가 감각적인 묘사라든가 하는 부차적인 요소보다 소설의 본질적인 요소인 성격의 내면세계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묘사를 항상 요구했으며 그것을 놓치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높은 요구성으로부터 그는 자신을 무자비하게 혹사하였다. 그는 늘 시간이 모자라했으며 꾸준히 쓰고 또 썼다.

우산장에 나가지 않을 때면 그는 집에서 글을 썼는데 물론 낮시간에는 행정사업을 해야 했으므로 밤에 글을 썼다. 우산장창작실이 생기기 이전에도 그가 특별히 시간을 받아 소설을 쓰곤 할 때면 주로 밤에 집필했다고 한다. **김일성** 경이장 앞에 있는 10층짜리 살림집 4층 1호에는 밤새 불이 켜져 있어 무슨 일로 늦게 들어 오는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며 황건선생이 지금도 소설을 쓰고 있구나 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으며 한아파트에서 그와 같이 살고 있음을 긍지로 여겼다고 한다.

황건이 술을 좋아했다는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창작할 때는 그 좋아하는 술을 입에 대지 않고 밤과 낮을 이어 앉은뱅이책상에 마주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황건이 집에서 소설을 쓴다고 하면 친구들도 찾아 오지를 않았다고 그의 가족들은 말하고 있다.

그는 이야기솜씨가 없고 연설보다 쓰기를 좋아했지만 그렇다고 하여 결코 글을 쉽게 술술 쓴것은 아니였다. 그는 글을 매우 책임적으로 썼다. 즉 그는 소설을 힘을 들여 썼다. 성격들을 깊이 파고들자니 고심어린 탐구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것이다. 그가 인간의 복잡한 심리세계를 다면적으로 그려서 독자들에게 생동하게 보여 주기 위해 애쓴 흔적들을 우리는 그의 소설의 글줄마

다에서 찾아 볼수 있다. 그렇게 노력하다보니 문장이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맥이 잘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서 성격의 굵이 느껴진다.

그는 육체적으로도 힘들게 썼다. 그의 만년필은 늘 보아야 축이 몹시 닳아서 글들이 거칠고 굵게 씌여 졌으며 원고지우에 육박전을 한듯 한 자한자 씌여 진 글자들은 뺄뺄뺄했다. 찾아 온 사람과 말을 하거나 생각에 잠겨 있을 때면 무릎을 몹시 흔들었다. 말년에는 다리를 흔들지 않는 순간이 있는것 같지 않게 그것이 심했다. 어떤 때는 어찌도 세차게 무릎을 흔들어대는지 그가 앉아 있는 걸상과 팔굽을 올려 놓은 책상까지도 뺄뺄뺄 신음소리를 냈다. 흥분했을 때는 불편이 푸들푸들 떨렸다. 이러한 외형적인 버릇은 아마도 힘들게 창작하며 글을 쓰는 과정에 생겨났을것이다. 내적인 흥분의 외부적인 표현이라 할가.

황건은 온넛과 힘을 다 기울여 주인공의 성격을 탐구하면서 어려운 창작의 길을 걷은 노력가-소설가였다. 수천수만매 원고지의 매 칸살에 도장을 새기듯 한자한자 글을 써가야 하는 소설가의 직업보다 더 큰 노력을 요구하는 창작분야가 있을까?

4

나는 얼마전 우연히 서가에서 단편소설집 《개선》을 발견하고 읽어 보게 되었는데 해방후 평화적 건설시기에 우리 선배작가들이 쓴 단편소설들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었는가, 당시에 활동한 작가들이 시대와 호흡을 같이 하며 얼마나 정열적으로 글을 썼는가 하는것을 새롭게 느끼며 깊은 자책에 빠졌었다.

새 세대의 작가들은 선행세대 작가들이 쓴 성과작들에서 부단히 배워야 할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적하면 외국소설들을 읽기 좋아하며 경탄을 금치 못해 한다. 그렇다고 외국문학에서 성과작들만을 골라서 출판하니까 거기에는 졸작들이 없는듯이 생각하는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외국문학의 성과만을 존중하는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들이 자기의 성과들에 대한 연구와 그것에서 배우려는 노력이 적은것만은 사실이다. 사실 선배들과 동년배들이 쓴 소설이 우리에게는 더 가깝고 경험을 섭취하는데서는 더 현실적이지 아니겠는가. 여담이긴 하지만 자기 소설가들이 쓴것에 애착을 가지며 동료들의 자그마한 성과도 같이 기뻐할줄 아는것이 같은 소설가로서의 도리이기도 하거니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단편소설집에는 리기영의 《개벽》, 한설야의 《개선》, 리복명의 《로동일가》, 천세봉의 《호랑령감》, 황건의 《탄맥》 등 당대의 시대상을 생동하게 반영한 단편소설들이 여러편 실려있다.

그 단편소설들이 거둔 성과의 예술적 측면에 대해서는 나 자신의 분석능력이 성과에 따라가지 못하기도 하거니와 이 글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때에 그 소설들을 썼던 작가들이 시대와 함께 살면서 시대의 주도적 감정을 소설에 담기 위해 애쓴 노력과 열정, 작가적 사명감에 대해서이다. 우에서 든 단편소설들은 해방후의 벅찬 감격과 참다운 인간의 권리, 새 생활, 행복한 로동을 가져다준 우리 제도, 우리 당,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 이로부터 우리의 근로인민들속에서 발현되고 있는 새로운 정신적 면모에 대하여 다양한 생활령역에서 구가하고 있다. 억압 받고 무권리한 인생의 슬픔을 주도적으로 그렸던 해방전의 그늘진 소설들과 대비해 볼때 그것은 밝은 해월에 비쳐진 소설의 새 세계였다. 시대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한 작품들을 쓰기 위해 노력한 그 열정과 작가적 책임감에 대한 자각은 불피코 성과작을 낳기 마련이었다.

황건의 《탄막》을 읽으며 나는 그 생각을 더하게 되었다. 이 소설은 로동계급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과업을 받고 작가가 의도적으로 쓴 것이다. 당적작가는 시대가 절박하게 요구하고 당이 바라는 것이라면 자기에게 생소한 생활령역이라도 뛰어들어야 한다. 삼수갑산지대 산골사람들의 생활을 창작의 토양으로 삼고 있던 작가가 본격적인 로동계급의 생활을 써야 하였으니 사실 어려운 과제였다. 하지만 황건은 주저하지 않고 탄광주제작품을 쓰기로 결심했으며 오늘의 학송탄광으로 진출하여 거기서 6개월간 현실체험을 하였다. 한편의 단편소설을 쓰기 위하여 그는 여섯달동안을 탄광로동자들과 함께 살았다.

인민과 운명을 같이 하고 혁명발전의 역사적로정을 자기 창작에 일치시킬 때 작가는 자기의 사명을 옹기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성과작들로써 자기의 뚜렷한 자취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당의 손길아래 해방후에 창작을 시작하여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40여년간 소설창작생활을 해온 황건은 이 기간 우리 혁명이 걸어온 간고하고도 자랑찬 로정의 중요단계마다에 그 시기의 본질들을 형상적으로 재현한 소설들을 창작함으로써 자기의 뚜렷한 자취를 남기었다.

해방후 평화적건설시기에 《목축기》, 《탄막》을 창작한 황건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인민군대위의 견장을 달고 종군작가로 활약하면서 중편소설 《행복》과 단편소설 《불타는 섬》 등을 써냄으로써 싸우는 조선인민의 영웅적성격을 전형화하였다. 이 작품들은 다 해당 시기 우리문학의 화원을 이루는 대표적인 작품들로 문학사에 남아있다.

전후에 들어 서면서 해방직후로부터 조국해방

전쟁시기에 이르는 기간 우리 인민이 헤쳐온 투쟁과 사랑의 력사를 한 산간지대에서 굴곡많은 생활을 통하여 일반화한 장편소설 《개마고원》을 발표하였다. 뒤이어 역시 그 산간지대를 무대로 하여 전후 농촌경리를 발전시킬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주체43(1954)년 11월전원회의 결정을 실천하기 위해 일떠선 한 국영목장 돼지사양공들의 생활을 묘사한 중편소설 《새벽길》을 창작하였다.

중편소설 《새벽길》은 조국해방전쟁의 시련을 겪으며 승리자로 된 우리 인민이 모든것이 파피된 엄혹한 환경속에서 어떻게 당과 수령을 받들어 재더미를 헤치고 다시 새 생활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가, 또한 그 투쟁과정에 어떻게 낡고 진부한것이 제거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것이 빛을 뿌리게 되는가, 그리고 전쟁이 남긴 마음의 상처들이 어떻게 가셔지며 사람들의 가슴속에 무엇이 가득차게 되는가 하는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작품은 전후 우리 인민의 념원과 시대적요구에 대한 예술적해답으로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53(1964)년 11월 7일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한 력사적인 교시를 하시었다. 장편소설들이 우리 인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며 그들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복무하도록 하기 위하여 혁명적대작들을 많이 써내야 할 시대적요구앞에서 소설가들의 어깨는 무거워 졌다. 소설분과위원장으로서 황건의 책임감은 그 누구보다 더 컸다. 그는 이 중대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의 앞장에 서게 되었다. 장편소설 《아들딸》은 이러한 환경속에서 석운기의 《시대의 탄생》, 천세봉의 《고난의 력사》에 이어 창작발표되었다.

엄호석이 그때 평론한것처럼 시대를 포괄하는 그 서사시적화폭의 크기로 보나 작품세계의 폭과 깊이로 보나 우리 작가들의 사상예술적시야가 급격히 넓어지고 있는 시기, 혁명적대작창작을 축으로 일대 전환을 일으키면서 움직이고 있는 바로 그 즈음에 《아들딸》이 발표됨으로써 혁명적대작창작에 주목이 집중된 우리문학을 더욱 흥성거리게 하였다. 우리 혁명의 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1930년대 항일혁명투쟁을 력사적배경으로 하고 당시 항일혁명투사들이 걸어 온 영광스러운 혁명의 로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아들딸》은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둔 열매로 되었다.

그후에 황건은 장편소설들인 《자라는 대오》, 《새로운 항로》를 창작하였다. 우에서 간단히 스치였지만 《새로운 항로》를 완성하던 때에 그는 뇌혈전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였다. [주체69(1980)년이었다.] 그때 그의 첫 생각은 이제는 소설을 다 썼는가 하는 아픔이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소생하여 장편소설을 완성할 수 있었으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랑의 불사약을 보내주셨던것이

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귀중한 약들은 황건의 피줄기로 뜨겁게 흘러들었다.

소설가 황건의 창작생활에 대하여 제일가는 관심을 돌려주신분은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장군님께서 일찌기 황건이 쓴 《불타는 섬》이 처음으로 당보에 발표되었을 때 친히 읽어보시고 작가의 높은 정신세계와 창작적재능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월미도해안포종대원들이 조국에 바친 생은 영원하며 그들의 고귀한 넋은 조국과 함께 영원히 살아 있다고, 바로 여기에 이 소설의 핵이 있다고 밝혀주시였다.

황건은 창작생활의 전 기간 세권의 단편소설집과 8권의 장중편소설 등 10여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으나 본인은 늘 자기가 해놓은 일이 적다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작가들의 자애로운 스승이시며 어버이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40여년간에 걸친 그의 창작활동을 높이 평가하시어 《김일성상》을 수여하도록 값높은영예를 그에게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계시어 소설가 황건의 정치적생명은 영원히 빛나고 있으며 작가적삶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맑은 그 눈동자들에

림공식

나는 딸을 안고
그 귀여운 눈동자를 바라본다
그 눈동자에 정이 있고 빛이 있고
이 세상 모든것이 다 담겨있구나

참된 인생은
후대들을 위한것이고
가장 긍지높은 삶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그 고결한 마음이라더라

그러나 나의 딸아
너의 그 고운 눈동자엔
마음껏 뛰놀 마당이 있고
마음껏 꺾어들 꽃밭이 있어도
하나로 된 조국만은 없구나

아, 아버지의 이 피로움
너의 눈동자에
찢어진 하늘
갈라진 바다
이것만은 답아줄수 없어
저 프락의 꽃밭이 가슴에 맺힌다

나의 딸아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 눈동자에
하나된 이 강산을 답아주지 못한다면
내 어이 아버지라 하라
이 아픈 세월을 멈춰세우지 못한다면
이 땅의 아버지들이여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지 말라!

가사

제일입니다

김성옥

붉은기폭에 인민을 안은
장군님의 로동당은 세상에 으뜸
사상도 령도도 장군님 똘은
어머니 우리 당이 제일입니다
장군님이 이끌어 제일입니다

해빛넘치는 인민의 락원
장군님의 조국은 세상에 으뜸
인정도 덕망도 장군님 똘은
내 나라 내 조국이 제일입니다
장군님이 이끌어 제일입니다

일심단결의 꽃을 피우는
장군님의 인민은 세상에 으뜸
신념도 모습도 장군님 똘은
순결한 우리 인민제일입니다
장군님이 이끌어 제일입니다

무적필승의 위력떨치는
장군님의 군대는 세상에 으뜸
담력도 배짱도 장군님 똘은
불패의 우리 군대 제일입니다
장군님이 이끌어 제일입니다

단편소설의 흥미와 묘사의 속도감문제

리윤근

더 높이, 더 빨리!

이것은 총대를 앞세우고 부강조국의 래일을 향해 질풍같이 내닫는 선군시대 조선의 기상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벽찬 숨결이다. 공장을 하나 건설해도 토지를 정리하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도 최상의 수준에서 더 빨리 하려는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하나같은 지향이고 투쟁기풍이며 일본새이다.

력사의 새로운 진군길에 들어 선 오늘의 선군 시대는 사람들의 미학적기호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람의 미학적기호는 시대와 함께 변화발전한다. 지난 시대에 쓰던 낡은 형상수법으로써는 오늘 우리 인민의 새로운 미감에 맞는 소설형상을 창조할수 없다.》

선군시대의 문학은 선군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새로운 미감에 맞게 창조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문학의 형상수법을 새롭게 탐구하고 대담하게 혁신시키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단편소설의 형상수법을 새롭게 탐구하는 문제에 주목을 돌려야 한다. 물론 우리 소설가들이 선군시대 인간들의 미감에 맞는 보다 이채롭고 독특한 형상수법들을 탐구하는데 사색과 열정을 아끼지 않고 있는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단편소설들은 아직 독자들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 요인은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을 여러 측면에서 논의할수도 있겠지만 적지 않게는 묘사의 속도감문제와 관계된다고 볼수 있다. 확실히 오늘 선군시대 인간들은 시작품은 물론 한편의 단편소설을 보아도 묘사의 밀도가 짙이고 속도감이 있는 작품을 즐겨 한다. 느리고 처진 작품은 좋아 하지 않는다. 그런것만큼 묘사의 속도감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선군시대 인간들의 새로운 미감으로부터 결코 무관심할수 없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로 나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지난해 《조선문학》에 발표된 단편소설 《까툴골사람》(안동춘, 4호), 《따뜻한 꿈》(최련, 1호), 《군복 입은 사람들》(조인영, 3호), 《고운별》(한원희, 3호), 《별무리 흐르는 곳》(공승길, 3호) 등 일련의 작품들에 주의를 돌리게 된다.

1. 비약과 련상

묘사의 속도는 본질에 있어서 묘사의 밀도이다. 묘사의 밀도는 비약과 련상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

이것은 인간과 그 생활을 전모에서 다 드러내여 보여 줄데 대한 소설창작의 일반적요구와 모순되지 않는다. 비약은 인간과 생활을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그리면서도 구태여 설정하지 않아도 독자들이 련상할수 있는 생활은 대담하게 생략하고 인간성격을 특징짓고 작품의 사상미학적의도를 해명하는데 반드시 필요되는 생활단면들만을 짚이게 맞물려 나가는 묘사의 기교문제로 된다. 비약은 련상을 전제로 한다.

독자들의 련상에 맡길것은 대담하게 맡기면서 최대한 묘사의 밀도를 조이고 전진시켜 나가는 여기에 단편소설의 속도감이 있고 흥미가 있는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일부 단편소설들의 경험과 교훈이 그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단편소설 《따뜻한 꿈》의 경우를 보자.

소설은 우리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꿈이 진정으로 아름답고 고상한것으로 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비교적 흥미있게 밝혀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이 주는 흥미는 어디에 있는가.

소설은 유압기계연구소 연구사인 최윤경과 채취공학연구소 유압전문가 리남진 그리고 《○○관리국》 립성무과장과의 관계 등 그로부터 형성발전하는 생활과 사건들을 비교적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형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새형의 전자유압조종식굴착기 연구과제를 안고 언니 하경이와 헤어져 렬차에 오르는 생활단면과 련이어 맞물려진 회의장, 여기에 밀착된 최윤경과 립성무와의 관계, 리남진과의 첫 교감 등 생활단면들을 빈틈없이 맞물려 설정하고 있다.

특히 언니 하경이와 작별하여 렬차에 오르는 장면과 련이어 설정한 회의장장면은 확실히 비약이다.

새형의 전자유압조종식굴착기를 연구완성하는 것은 갓 대학을 나온 처녀과학자 최윤경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꿈이고 희망이다. 하지만 그 꿈, 그 희망을 쫓 피우자면 많은 난관을 이겨 내야 할것이다. 특히는 자기의 소중한 첫 사랑을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린 타산적이며 리기적인 인간 립성무의 밑에서 새형의 굴착기를 연구완성한다는것은 미지의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는것보다

더 참기 어려운 심리적 고충을 동반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그래서 비록 결심을 하고 떠난 최윤경이었으나 렬차안에서의 그의 생각은 참으로 복잡했을것이다.

그러나 소설은 이 모든것을 독자들의 련상에 맡기고 있다. 이미 하경이와 헤어지는 장면에서 집약적으로 시사해 주었던것만큼 대담하게 비약해 버린것이다. 하지만 독자들은 피로운 추억과 번민을 털어 버리고 새로운 의지와 결심을 가다듬는 최윤경의 모습을 보았고 그의 복잡한 심리적변화를 감수하였다. 그리하여 비약은 했어도 생활은 자기의 논리를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것이다.

이와 함께 소설은 리남진의 평양출장과 열교환기의 부분품제작에 필요한 합금소재를 얻기 위해 밤새 백여리길을 달린 사실, 새형의 굴착기연구와 성공과정 등 많은 생활들을 독자들의 련상에 맡기고 있다. 다만 소설은 최윤경의 형상에 초점을 두고 그와 시점에서 리남진의 정신적높이와 림성무의 낮은 사상 관점을 대조적으로 예리하게 밝혀 내고 있다.

여기에 바로 집약적인 묘사에 의한 비약이 있고 묘사의 밀도를 짚이게 보장할수 있는 요인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그리하여 소설은 속도감이 있고 흥미가 있으며 비교적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단편소설 《군복 입은 사람들》도 일정한 궁정적 측면을 보여 주고 있다.

작품은 우리 인민군대가 지니고 있는 진실한 의리와 사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한 중대에서 같이 소대장을 하던, 지금은 한부대의 부대장인 김경진과 대대장인 강창덕과의 관계속에서 그것은 동지애와 헌신에 있다는것을 감명깊게 형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김경진과 강창덕의 어제와 오늘의 생활, 사랑하는 자기의 분대장 림성철의 불구된 육체를 두고 마음 쓰는 강창덕, 사단군의소 간호장인 김경진의 딸 명애로부터 환기된 강창덕과 김경진의 심리적교감, 물주머니타개책을 놓고 보다 흥미 있게 발전하는 그들의 관계 등 생활과 사건들을 유기적으로 밀착시키고 있다.

그리고 강창덕과 혜옥이와의 관계, 김경진과 안혜와의 관계, 특히 림성철이와 명애와의 관계선은 직접 보여 주지 않고 주로 강창덕의 시점과 사단군의소 소장의 방계적인 선에서 집약화의 수법으로 시사만 해주고 대담하게 비약하고 있다.

결과 소설은 묘사의 밀도를 보장하고 비교적 속도감을 줄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작품에 대하여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다시금 분석적으로 투시해 볼 필요도 느끼게 된다. 그러면 아직 집약화의 수법

으로 묘사의 밀도를 더 조일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것을 알수있다. 물론 주관적인 욕심이기는 하겠지만...

단편소설 《따뜻한 꿈》에서 리남진의 편지내용이 바로 그런것이다.

과학에 대한 리남진의 관점과 림장, 그의 사상 정신적높이는 이미 최윤경이나 림성무에게 한 그의 열기 띤 대사에서 기본적으로 밝혀 주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다만 대학시절 이름 모를 처녀(최윤경)에게서 뜻밖에도 꽃다발을 받게 되었던 사실만을 독자들에게 생활론리적으로 납득시키면 될것이 아닌가. 그외의 형상적의도는 리남진과 그리고 최윤경의 시점에서 다 해명하고 있고 독자들도 충분히 납득하였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결속부분에서 리남진의 장문의 편지내용을 빌어 작가의 의도를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대담하게 함축하여 뒤가 처지지 않게 하였더라면 더 좋았을것이라고 본다. 뒤가 길면 여운이 짝아 진다.

단편소설 《군복 입은 사람들》에서는 또 어떤 요구를 제기할수 있는가.

그럼 이 작품에서 갓 군사대학을 졸업하고 부대장으로 배치되어 온 김경진과 강창덕이 뜻밖에도 물길굴현장에서 만나는 한장면의 묘사만을 떼들어 보자.

《(강창덕이라.) 이름이 귀에 익었다. 하나 같은 이름은 한둘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경진은 스무해이전에 한중대에서 함께 소대를 지휘해 온 강창덕소위를 문득 상기하였다. 한데 지금의 이 중좌 강창덕은 그때의 소위 강창덕과는 비슷하지도 않다. 얼굴에 매닥질된 흰 돌가루물이며 폭 눌러 쓴 안전모, 턱밑을 바짝 조여 맨 방수비옷... 하긴 이름이면 용모로서 스무해전의 전우를 가려 본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보는바와 같이 독자들은 이 묘사를 통해서 벌써 김경진과 강창덕과의 관계를 예상하고 있다. 더우기 《...그때의 소위 강창덕과는 비슷하지도 않다.》라는 표현에서는 예상한다기보다 뒤생활이 거의 뻔드름히 보이고 있다.

뒤이어 김경진이 강창덕이와 몇마디 말을 주고 받는 과정에 그의 류다른 역양에서 지난날 소대장시절의 강창덕임을 알아 보고 뜻밖의 감격적인 상봉이 이루어지는 생활을 통하여 그들의 관계가 독자들이 예상하고 내다본것처럼 소대장시절의 전우관계라는것을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자들이 예상하고 내다보이는대로 맺어지는 인간관계나 그들의 생활을 보는것처럼 따분한 때가 없다. 지루감만을 줄뿐이다.

이런 조건에서 우에서 레든 묘사부분을 대담하게 생략해도 생활론리상 무리는 없을것이라고 본다.

이와 함께 김경진과 강창덕의 숭고한 정신적높

이를 반복하여 강조하는 결속부분도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소설은 이미 물주머니타개책과 불구가 된 림성철분대장을 두고 그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다 밝혀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속부분에서 그것을 새삼스럽게 또 반복하여 주는것은 일종의 로파심때문이 아니겠는가.

물론 작가의 의도가 있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작가의 의도를 이렇게 말짱 다 뒤집어 보이면 형상이 처지고 흥미를 잃게 되는것이다. 독자들에게 맡길것은 대담하게 맡겨야 한다. 작가가 말하자고 하는 문제를 직선적으로 다 드러내어 강조할것이 아니라 묘사전반을 통해서 독자들 스스로가 그대 보고 납득하게 하면 될것이다.

이러한 부족점은 협동농장유치원 교양원인 경희에 대한 애착심을 인상적으로 주기위해 그의 어머니의 시점에서 그리고 리당비서의 대사와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여러번 반복강조함으로써 묘사의 밀도를 웅당한 높이에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단편소설 《고운별》과 그밖의 일련의 작품들에서도 다분히 느낄수 있다.

2. 다양한 굴곡과 변화

묘사의 속도감은 생활의 흐름에 다양한 굴곡과 변화를 주는데서도 보장된다.

원래 단편소설이 담는 생활의 폭은 작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단순화해서는 안될것이다.

생활은 복잡하고 다양한것만큼 비록 단편적인 생활을 담는다고 하여도 단순화하지 말고 굴곡과 변화를 다양하게 주어야 한다. 그래야 기대감도 있게 되고 묘사의 속도감도 보장되게 된다. 가령 그 어떤 사건의 심각성을 부여한다고 하여 한두 인물의 대사나 작가의 분석적묘사를 한 장소에서 지나치게 추구한다면 형상전반의 속도가 처지게 되고 흥미를 떨어 뜨리게 될것이다. 소설의 흥미는 부단히 새롭고 굴곡이 있는 생활과 그에 대한 기대감에서 온다.

단편소설 《까툴골사람》이 독자들에게 흥미를 주고 있는 요인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비전향장기수인 엄한규의 기나긴 인생사를 단편이라는 짧은 형식의 소설에서 비교적 감명깊게 형상할수 있는것은 그의 인생사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인상 깊은 생활과 사건들을 립체적으로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는것과 관련된다. 생활반영의 폭은 넓으나 굴곡이 다양하고 생활흐름의 변화가 있어 속도감이 있는것이다.

까툴골전경과 그 유래에 대한 소개, 여기로부터 줄기를 뻗은 엄한규의 운명선,련이어 뒤바뀌는 장주사와의 관계선, 그로 하여 겪게 되는 온갖 육체적 고통, 그러나 결코 비판없이 유쾌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그의 성격적특징을 보여 주는

다양한 생활세부들, 장주사의 맥고모를 건지려 돌개소에 뛰여 든 급전적인 사건, 그후 세월이와의 관계, 특히는 해방후 뜻밖에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만나뵈고 따뜻한 사랑과 크나큰 은정을 받아 안게 되는 감동 깊은 화폭 등은 거의나 중편이나 장편에 담을수 있는 그런것이다.

그러나 소설은 가장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생활 단면들만을 설정하고 치밀하게 맞물리면서 재치 있게 굴곡과 변화를 주고 있다. 그리하여 설정된 생활단면들은 많으나 독자들에게 부단히 기대감을 주면서 전진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여기에 바로 이 작품의 형상이 단순화되지 않으면서도 묘사의 밀도를 보장하고 시종 기대감과 흥미를 줄수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있다고 본다.

단편소설 《따뜻한 꿈》에서도 이러한 긍정적 측면을 보여 주고 있다.

주인공 윤경이 언니 하경이와 헤어져 렬차에 오르는 생활단면, 림성무가 주관하는 회의장, 리남진의 반갑지 않은 출현, 윤경이를 무도장으로 이끄는 처녀들, 대학시절추억, 리남진의 공동연구 과제제기, 인형세부와 림성무의 집, 여기서 당하는 모멸감, 과학적문제를 놓고 악화되는 리남진과 윤경의 관계, 윤경의 《소환》요구, 반대하는 리남진, 그에 대한 윤경의 생각, 공동연구, 실패 아닌 실패, 림성무와 리남진의 대결, 윤경의 충격 등 소설은 생활의 흐름에 다양한 굴곡과 변화를 주고 있다. 그리하여 작품은 독자들에게 시종 기대감을 주면서 흥미를 주고 있는것이다. 비교적 속도감을 주고 있다. 물론 아직 묘사의 밀도를 더 조일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생활흐름의 다양한 굴곡과 변화에 의한 묘사의 속도감문제를 논의할 때, 단편소설 《별무리 흐르는 곳》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

소설은 영사구병원 조산원 리선화와 그의 옛 동창생인 시급양관리소 인수원 한명애와의 인생관적대조속에서 우리 인간들의 행복관에 관한 문제 즉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비교적 새롭고 의의 있는 문제를 해명하고 있다. 생활단면들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이야기를 재미 있게 구성하려는 시도도 좋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담한 소설이다.

그렇지만 어쩐지 묘사가 처지는감을 주고 있다. 짧으면서도 지루감을 주는 작품은 필경 거기에 그 어떤 요인이 있을것이다.

그것을 다른 측면에서도 볼수 있지만 중요하게는 생활의 흐름에 굴곡과 변화가 없는것이다. 매우 평이하고 완만하다.

소설은 도요섬까지 나란히 함께 가는 선화와 명애의 선에서 주로는 두 인물의 대화과정과 그로부터 펼쳐 지는 생활, 결혼한지 이태가 되었어도 태기가 없는 영옥이를 찾아 고무를 주고 희망

을 주는 선화의 형상, 그 이후 반가운 소식과 선화의 기쁨, 그래서 영옥이의 해산방조를 위해 이곳 도요섬으로 오게 된 선화, 그를 마중나온 섬사람들, 그들이 커든 수심계의 해불, 이것이 전부이다. 이렇게 굴곡이 없고 변화가 없는데로부터 독자들에게 그 어떤 기대감도 주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 척추변형에 의한 랭병으로 아이를 낳을수 없다는 문제를 놓고 심각히 벌여 지는 기술부원장과의 대화과정 그리고 선화가 조산원이 된 사연, 명애의 집에서 그의 아들문제를 놓고 원심을 쓰는 선화, 이 모든것은 선화의 아름다운 풍모, 의간에 대한 정성을 보여 주기 위한 삽화적인 묘사에 불과할뿐 그 어떤 극적기대감도 주지 못하고 있다. 독자들이 뻔히 내다보고 있는 생활 그대로의 흐름대로 굴곡과 변화가 없이 끝은 줄거리를 따라 매우 완만하고 평이하게 묘사하고 있는 여기에 바로 묘사의 밀도가 처지고 속도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있는것이다. 그런데로부터 주인공의 성격은 인상깊게 안겨오지 않으며 흥미도 크게 주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예술적흥미는 강요할수 없다. 그것은 작가의 주관적욕망만으로도 해결할수 없는 문제이며 반드시 독자들 자신의것으로 되어야 한다.

문학의 묘사는 리듬감이 나고 다양한 굴곡과 변화가 있어야 속도감도 있고 흥미도 있게 되는 것이다.

3. 묘사문체의 짜임새와 밀도

묘사의 밀도는 묘사문체의 짜임새와도 관계된다. 묘사문체가 짜일수록 묘사전반의 밀도가 보장되고 속도감을 주게 된다. 그런것만큼 소설가는 묘사문체를 짜이게 다듬어 쓰는데 각별한 주목을 돌려야 할것이다. 사실상 소설가의 언어문체적기교는 여기에서 많이 나타난다.

묘사문체를 짜이게 다듬어 쓰는데서 중요한것은 불필요한 묘사문장, 군더더기 어휘들을 극력 피하고 최대한 집약하고 보폭이 크게 묘사하는것이다.

단편소설 《까툴골사람》이나 《따뜻한 꿈》이 독자들로부터 비교적 흥미 있게 읽히우고 있는 요인의 하나가 바로 이것과도 관계된다고 볼수 있다.

《엄한규는 종이 되고 만것이다. 그 억센 체격과 락천적인 행동거지는 어찌하든 그는 장주사의 입짓, 눈짓에 따라 개처럼 움직이게 된것이다.》

《그러나 그의 뒤모습을 반한 눈길로 보던 처녀들도 일단 그가 접근하고 수작을 불일라 치면 외면하였다. 입이 살찬 서당집 춘영이는 <체, 부자 표랑지같은거.>하고 맵싸게 싸붙이기도 하였다. 그럴 때도 한규는 성을 내지 않았다. 겨우내 트

고 여름내 탄 적동색얼굴이 약간 어두워 졌을뿐 오히려 웃었다. 그렇다 해서 바보스럽게는 보이지 않았다.》

단편소설 《까툴골사람》에서 보는바와 같이 억센 체격과 락천가형의 인간이건만 종의 신세를 면할수 없었던 엄한규의 불우한 운명을 《입짓, 눈짓》, 《개처럼》 등의 표현들로 집약하고 있을 뿐아니라 마을처녀들의 야멸찬 조소를 받는 그의 변화되는 인상적특징들을 섬세하면서도 군더더기가 없이 짜이게 그려 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외로움과 설움, 그것을 짐짓 내색하지 않고 살려 는 그의 내면심리세계를 매우 감미롭게 보여 주고 있는것이다.

단편소설 《따뜻한 꿈》에서 한두개 묘사문장을 보자.

《창밖에서 거칠은 바람이 백양나무들의 가지들을 후려 치며 이리저리 불어 치는 광경을 물끄러미 내다보던 사람들은 주섬주섬 앓음새를 고쳤다.》

보는것처럼 이 문장은 새형의 전자유압조종식 굴착기생산과제를 놓고 팽팽하게 긴장된 회의장, 앞으로 겹쌓이게 된 난관들을 예견하는 그들의 무거운 마음, 그것을 창밖의 자연현상과 결부하여 짜이게 집약적으로 묘사한 하나의 실례로 된다.

《순간 립성무와 윤경의 눈길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쳤다. 립성무는 인차 부드럽고 유연한 표정을 지었다.》라는 문장만 보아도 작가의 기교를 엿볼수 있다. 립성무와 윤경이의 야릇한 관계, 특히 처세적이고 위선적인 립성무의 변화되는 심리를 짧은 한문장속에서 집약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묘사문장들은 소설전반의 밀도를 짜이게 보장하는데 적극 바쳐지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측면들은 물론 다른 작품들에서도 찾아 볼수 있다.

그러나 일부 작품들의 묘사문체들인 경우 어딘가 어설픔고 짜이지 못한 감도 없지 않다.

대표적으로 단편소설 《고운 별》의 한두개 문장만 떼들어 보자.

《경희를 따라 보내서 그를 돌봐 주도록 하고 싶은 마음은 하늘 같고 땅 같지만 처녀를 어떻게 오늘 당장 떠나보내겠는가.》

어머니의 속생각을 담고 있는 문장으로서 문체론리상 별로 무리는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경희》와 《처녀》, 《하늘 같고》와 《땅 같이》라는 표현들은 어딘가 군더더기라는 감을 준다. 물론 어머니의 속 깊은 마음을 강조하려는 작가의 의도는 충분히 안겨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사문장이 어설픔게 느껴지는것은 《경희》와 《처녀》라는 같은 대상을 한문장속에서 반복하여 쓴 것과 관련되며 특히는 《하늘 같지만》이라는 표

현과 《땅 같이》라는 생소한 표현을 곁놓은것과도 관계된다고 본다. 좋기는 단순문, 단일문으로 다듬어 썼더라면 어설픈 감이 없이 짜이게 되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한성룡이는 멋지게 웃으며 변속기를 넣어 불도젤을 앞으로 전진시킨다》라는 문장을 보아도 그렇다. 불도젤을 앞으로 전진시켰다는것은 변속기를 넣었기때문이 아니겠는가. 구태여 《변속기를 넣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될것이다. 굳더더기라고 본다.

다음과 같은 경우도 묘사의 밀도를 보장하는데 장애로 된다.

《어느 사이 그들의 앞에는 자그마한 나무다리가 나졌다. 샘골과 버들골사이를 흘러 내리는 개울우에 놓인 다리다.》

《다리를 다 건느자 그는 차를 멈춰 세웠다.》

《대장동지, 다리가 시원치 못합니다.…. 다리를 좀 봐야 하겠습니까.》

《<다리가 불도젤중량을 이겨 내겠는지 모르겠소.>》

《세사람은 다리밋으로 내려 갔다. …통나무교 각이 솟아서 다리를 떠받들고 있었다. 그들은 다리를 간간히 살펴보았다. 다리는 오래전에 세워져서…》

《돌격대장은 다리를 건느기 시작하였다.》

런속 반복되는 《다리》, 비록 이것은 스쳐 지날수도 있을것이지만 그것으로 하여 묘사문체의 짜임새가 보장 못되고 밀도가 처지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는것이다.

묘사문장은 될수록 반복되지 않게 다듬어 써야 어설피지 않고 밀도를 보장할수 있다.

여기에 바로 묘사의 속도감을 주고 흥미를 줄수 있게 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오늘 선군시대 단편소설에 대한 미학적요구는 더욱 새롭게 높아 졌다. 그런것만큼 소설가들은 묘사의 밀도를 더욱 높일수 있는 수법들을 부단히 탐구함으로써 선군소설문학의 화원을 보다 풍만하게 꽃 피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분홍저고리 내 누님네들

김정철

즐거운 봄명절에

분홍저고리들 나섰구나

꽃분이, 향단이, 옥별이

아릿다운 모습처럼 이름도 고운

누님네들은 어디로 가나

복슬강아지 달랑달랑 앞서는

느티나무 저 아래 휘늘어진 그네줄

하얀 버선발로 사뿐히 밀어 차면

모내기 끝낸 벌이 밭밀에 오락가락

구름 너머 전선길도 마주올듯 가물가물

원군경쟁의 마지막 조항이

웃가락에 던져 지는 그곳도 좋구요

분홍저고리 곁에만 있어도

제대군인 그 총각 대항소를 탄다고

성화로다 씨름판을 또 어찌 지날까

좋구나 어디서나 찾는 그 이름

봄명절의 패청한 하늘가에

꽃잎같이 떠올라 달님처럼 웃는 누님네들아

슬기로운 민족은 딸 자랑하자고

아마도 이땅에 봄명절을 냈던지

소백수의 진달래에 물들여 지고

철령의 진달래에 붉게 물들여져

폭풍속을 헤쳐어도 눈비속을 거쳤어도

흐려지지 않고 덮어 지지 않고 구겨지지 않는

분홍저고리 분홍저고리

어버이장군님 선군의 전선길을

비단공장 구내길에 이으시고

봄향기 기대앞에 펼치시어

한껏 가꾸어 내세운

아 천하의 절색 민족의 딸들아

내 조국을 보려거든 우리를 보라고

날도 좋은날에 밝게도 웃어라

눈부신 그 빛말로 누리를 물들이며

래일의 내 민족의 어머니들

분홍저고리 누님네는 간다네

한생의 밀천

최영학

《따따따-》

새벽의 고요를 깨뜨리며 발파준비 신호나팔소리가 50 메터의 수직굴속으로 울려 왔다.

이웃의 수직갱과 관통시키기 위해 수평굴진하는 막장에서 함마를 휘두르던 금석은 마지막 메를 정머리에 힘껏 안기고나서 옆으로 비켜 앉았다.

짜패인 금향이 암벽에서 정대를 뿜아 냈다. 병어리장갑을 벗고 한뼘두뼘 박혔던 길이를 재었다.

《다섯뼘 반이예요.》

그러니 1 메터 나마 들어간 셈이다.

그들은 등잔불빛에 마주 보며 흐뭇이 웃었다.

수굴깊이가 곧 그날의 굴진속도다.

이만하면 오늘도 저 갱구우에 꽂혀 있는 붉은 기발을 다른 수굴조에 빼앗기지 않을것이다. 제일 먼저 수직굴진을 끝내고 수평굴진을 시작한 금석이네지만 야심만만한 다른 대대의 수굴조들이 바투 따라오고 있는것이다.

금석은 처녀가 정구멍에서 돌가루를 파낼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 주면서 수직갱쪽으로 물러 났다.

원손에서 장갑을 마저 벗으면서 엄청나게 큰 귀이개처럼 생긴 쇠꼬챙이를 찾아 드는 금향의 거동에서 금석은 은근한 기쁨을 느꼈다. 온밤 휘두른 함마질이 조금도 헛되지 않도록 정구멍에 단 한방울의 돌가루도 남기지 않고 파내려는 처녀의 성의가 그 서두르는 자세에서 엿보였던것이다. 지친 몸에 달콤한 기분이 남 몰래 피어 오르느것을 느끼면서 금석은 10 전짜리 쇠돈만큼 작게 보이는 푸름한 굴아구리를 향해 눈길을 올려 보냈다.

거기서 보장조의 웨침소리가 찌르릉 울려 왔다.

《어-어!》

금석은 기꺼운 화답을 보냈다.

《오-어!》

곧 바줄을 타고 쭈그러진 쇠초롱이 흔들흔들 내려 왔다.

금석은 쇠초롱을 받아 내려놓고 그 안의것들을 꺼냈다. 정구멍에 먹일 폭약과 찰흙으로 빚은 발파떡... 그리고 금향기와 나누어 마실 따끈한 콩국도 한그릇! 함마질로 깡그리 맥을 뽑은 그들이 50 메터의 수직굴을 뚫아 오를 기운을 돋구라고 내려 보낸것이였다.

금석은 도화선이 달린 폭약을 정구멍 끝까지

지그시 밀어 넣고 순대처럼 빛은 발파떡을 다져 먹이였다.

장약을 끝낸 후 그들은 서로 양보해 가면서 콩국을 나누어 마셨다.

속이 뜨끈해 지면서 금시 힘이 생겼다.

빈 초롱에 뒤따라 금향이를 먼저 올려 보냈다.

50 만산등성이에 벌둥지처럼 뚫어 놓은 57 개의 수직굴속에서 모든 수굴조의 처녀짜패들이 다 나오면 전체 갱안에서 소발과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신호로 된다.

금석은 아찔한 수직굴을 침착하게 뚫아 올라가는 금향을 마지막까지 지켜 보았다. 언제나처럼 금향은 돌부스레기 하나도 떨구지 않고 끝까지 올라 갔다. 마침내 파란 갱구에서부터 맑은 처녀의 목소리가 울려 왔다.

《아-에!》

무사히 올라 갔음을 알리는 신호였지만 금석에게는 매양 하늘에서부터 울려 오는 사랑의 메아리처럼 신비롭게 들리였다.

《어-어-!》

금석은 마치 하늘을 향해 화답하듯 금향이 앞에서는 어림도 없는 사랑의 환희를 담아 웨쳤다.

그리고 나서 수평갱쪽으로 한치 들어 앉았다. 이제 담배 한대 태울 썸이면 점화신호나팔이 울릴것이다.

금석은 함마질을 하느라 누빈숨옷우에 덧줄라 띠였던 가죽혁띠를 느슨히 풀어 놓고 나서 속주머니에 끄끄 손을 쭈서 넣었다. 돌가루에 트고 굳은 살이 박혀서 감각이 무디어 진 손가락으로 아직 한두대 남았을 담배를 찾아 더듬었다. 그런데 좀처럼 담배가 손에 걸리지 않았다. 대신 다른 물건들이 손가락에 걸려 방해를 놀았다.

에익! 금석은 속주머니의것을 모조리 끄집어 냈다. 망랑했다. 납작해진 《해당화》갑속에는 씨 빠진 헛대 하나가 웅색하니 들어 있었다. 까짓 단념하고 납작해진 담배갑을 버렸다. 그리고 끄집어 내였던 소지품들을 다시 집어 넣으려는데... 이게 뭐든가?... 비닐주머니에 든 네절로 접은 종이가 유난히 눈에 띄였다.

《!...》

아버지의 유서였다.

그것을 알아 차리는 동시에 금석은 놀랐다.

퍼그나 오래동안 이 유서를 잊고 살아 왔던 자신을 놀랍게 의식했던것이다.

이것은 그저 유서가 아니라 금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기에게 남긴 그 금의 유일한 증

서이다. 바로 그것때문에 금석은 여기 고속도로 건설장에 탄원하여 오지 않았던가. 이 유서를 발견한 그날부터 그는 어느 한 순간도 잊은적이 없었다. 도리어 너무도 믿기 어려운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번씩 숙주머니에 손을 넣어 만져 보곤 하던것이였다.

그런데 어느새 이 유서에 대한 생각, 집에 두고 온 그 금을 잊어 버리게 되었을가.

놀라운 의문과 함께 한편으로는 방금 금향이의 청신한 목소리를 향해 짜장 환희에 찬 화답을 웨쳐 보낸 자신이 게면쩍어 졌다.

화가 났다. 모처럼 잊어 버렸던 이 남 모르는 위축감이 아버지의 유서와 함께 되살아 난것이였다.

그것은 정말 지킴기 짝이 없는것이였다.

그것은 언제나 금석의 주위에서 맴돌면서 그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고 자부심을 가질라치면 사정없이 비웃고 날카로운 면박을 들이대는것이였다. 《금석이 네가? 흥!》

《따따따...》

점화를 알리는 신호나팔소리가 울려 왔다.

금석은 마치 판 세계에서 울려 오는것 같은 랑랑한 나팔소리에 흠칫 놀랐다. 머리를 세차게 흔들어 어지러운 기분을 털어 버리면서 현실에도 돌아 왔다.

익숙된 동작으로 폭약이 장진된 암벽에 다가가 길다란 쥐꼬리처럼 휘우듬이 드리워 진 도화선에 등잔불로 불을 달았다.

《시-익》

불꽃이 달렸다.

금석은 등잔을 바위쥬에 넣고 재빨리 굴을 뒤흔아 올라 왔다. 갱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금향이가 그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여 끌어 당겼다. 그들은 갱구에 꽂혀 있는 붉은 기발을 뽑아 들고 함께 대피구역으로 달려 갔다. 돌파편에 상하지 않도록 기발도 일시 철수해야 하는것이다.

얼마후 대피구역에 전원 철수한 수굴대원들과 려단지휘관들의 긴장된 눈길속에서

《짱!》

첫 발파가 터졌다.

뒤따라 려단장의 썸세기가 확성기로 울렸다.

연방 폭음이 터졌다.

《짱!》

《짱!》

여기저기 수직갱아구리마다에서 팽창된 가스와 함께 돌파편이 뿜어 오르고 폭음이 뒤따랐다.

《짱!》

확성기를 든 려단장과 함께 온 결사대가 입을 합쳐 썸세기를 하였다.

《다섯!... 여섯!...》

37 까지 세면 모든 수직갱이 순조롭게 발파되는것이다.

금향이와 함께 기발을 세워 잡고 선 금석은 눈썹리가 빠지도록 자기네 갱구를 주시하였다. 자칫하면 자기네 갱구가 튀는것을 놓칠수 있었다.

《서른 하나... 서른두-울...》

금석은 불안해 졌다.

려단장의 썸세기가 마지막 수차에로 다가가는데 자기네 갱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것이다.

《서른다섯-엇... 서른여섯-엇...》

이제...

이제...

이제...

고막이 쨍-울리는 정적속에 초조한 순간들이 지나고 질긴 분초가 철떠마냥 가슴을 짝 조였다.

하늘땅과 사람이 얼어 붙은 정적에 금석은 숨이 막혔다.

어느 순간에 터질가?...

불발일가?...

금석은 방금전 장약을 하고 불을 달던 갱안에서 정경이 생생히 떠올랐다. 분명 실수는 없었다. 실수할게 따로 있지 발파과정에서 실수를 범한단 말인가.

그러나 자기네 갱구는 여전히 침묵이다.

불발이구나!

마침내 이런 절망적인 느낌이 들었다.

소름이 끼쳤다.

그렇게도 두렵던 불발이 우리 갱에서 생기고야 말았구나.

이제 온 수굴대가 손발을 묶이운채 불발이 자연해제되기를 기다려야 할것이다.

흔히 도화선의 화약심이 습기를 먹거나 궁굴은 구간에서 불꽃이 꺼져 불발이 생기는데 간혹 불이 아주 죽지 않고 면피복을 따라서 뜸불로 타들어가기때문에 어느 순간에 터질지 모른다.

그러니 웅근 열일곱시간이나 되는 규정된 자연해제시간을 기다릴수밖에 없는것이다.

아, 그동안 결사대원들의 원망과 비난을 어떻게 받아 낸단말인가.

치열한 경쟁으로 하여 마주 보는 눈길과 스치는 어깨사이에서도 불꽃이 평곳평곳 일어 나는 수굴전투장에서 피끓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손발을 웅근 하루동안이나 묶어 놓게 되었으니 제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할 체면도 없고...

어차피 한번이라도 불발을 낸 갱은 려단의 전진을 하루동안 가로막은 《죄》로 두고두고 원망과 미움을 사야 하는것이다.

진땀이 났다.

아, 이런 땀 내 몸이 작은 새가 되어 저 수직굴속으로 순식간에 날아 들어 갈수 없을가. 하여 도화선의 불꽃이 아예 꺼져 버렸는지 혹은 뜸불이 타들어 가고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제격해제해 치울수만 있다면...

《누구네야?》

숨을 죽이고 모자라는 마지막 한방이 터지기를 기다리던 무거운 정적을 깨뜨리면서 러단장이 소리쳤다. 그 소리에 기발대를 함께 잡고 서 있던 금향이 어깨를 흠칫 떨었다. 순간 그들은 어깨우에 드리워진 기발사이로 눈빛을 마주쳤다.

이 패배를 인정해야 하는가? 이 기발을 이제는 다른 조에 넘겨야 하는가? 이때까지 앞장에서 기치를 들고 나가던 우리가 이제는 러단의 미움거리로 나떨어져야 하는가?

금석은 금향의 눈동자속에서 그날 밤 타오르던 대대의 우등불을 보았다. 온 대대의 믿음어린 눈빛을 한몸에 받아 안던 그 격동적인 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나란히 서서 맹세했었다.

《제 한몸 죽더라도 동무들을 망신시키지 않겠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갱인가 말이야?》

러단장이 다시 소리쳤다.

금석은 기발을 들고 서 있는 자기가 《우립니다.》 하고 대답해야 하니 목이 꼭 메였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야!

금석은 이 죄스럽고 굴욕적인 처지를 세차게 부정했다. 옥 솟구치는 비장한 충동에 피가 끓어 오르고 목이 부르르 떨렸다. 세찬 열풍이 그의 등을 때렸다.

금석은 금향의 손에서 기발을 나뉘쳐 들고 폭풍에 뿌려 지듯 뛰쳐 나갔다.

남먼저 사태를 의식한 금향이 등뒤에서 새된 비명을 질렀다. 뒤이어 러단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왔다.

《서라!》

몇몇 청년들이 추격하는 기척도 그는 등뒤로 느끼었다. 금석은 기발을 추켜 들고 자기네 갱구를 향하여 필사적으로 내달렸다.

갱구에 다달은 금석은 기발을 제 자리에 꽂은 다음 뒤돌아 볼 사이도 없이 굴속으로 뛰어 들었다.

좁고 깊은 수직갱은 인차 캄캄해 졌다. 하지만 여기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맨손으로 한치한치 뚫어 내려간 굴이어서 굴벽에 나 있는 등잔홈이며 바위모서리가 척척 손발끝에 걸렸다. 손발을 벌려 짚으면서 쉿쉿 가재걸음쳐 내려 가던 금석은 갑자기 머리위의 적막과 함께 아득한 굴속에서 밀려 오는 죽음을 의식하였다.

몸이 굳어 졌다.

좁은 굴벽에 벌려 디딘 두 다리아래에 놓인 캄캄한 허공이 영영 헤여날수 없는 죽음의 흡반처럼 그의 몸을 빨아 들이고 있었다. 맥이 쭉 빠져 나가고 싸늘한 공포가 밀려와 가슴을 얼구었다.

밖에서 지켜 볼 때에는 온종일 기다려도 안터질것만 같던 불발폭약이 지금은 금시 터질것같이 생각되었다.

금석은 머리를 한껏 젖히고 우를 올려다 보았다.

10 메터도 안되는 과란 갱구가 영영 되돌아 갈수 없는 아득한 생의 문어구처럼 바라보였다. 뽀얀 봄기운이 서린 푸른 하늘밑에 흐르는 삶! 방금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속해 있던 삶이 목메이게 안겨 왔다.

《서라!》

아까는 무시해 버렸던 러단장의 다급한 명령이 되돌렸다.

그렇다. 그때 그는 섰어야 했다. 그리고 자기의 즉흥적인 행동이 반드시 필요한 영웅적행동인지 공연한 희생인지를 생각해 보았어야 했다.

금석은 마음을 가다듬고 기운을 모았다.

빨리 올라 가자! 한초라도 빨리...

그러나 몸을 움직이는 동시에 또 다른 주저가 생겨 났다. 너는 정말 되올라 가려느냐?...

금석은 방금 새된 비명을 지르던 금향이의 눈으로 비실비실 되돌아 가는 자기의 물결을 보았다. 처음엔 다행으로 여기겠지만 곧 뒤따르게 될 비겁하고 추한 느낌에 아연해질 금향이의 당황한 눈빛!... 그래도 너는 나가려느냐? 당장 터질것만 같은 이 불발이 막상 하루종일 가도록 터지지 않는다면 너는 죽음에 쫓겨 나온 비겁한 물결로 청년돌격대원들속에 어떻게 서있겠느냐...

당초에 이런 객기를 부리지 말고 로동안전규정의 울타리안에서 죄 없는 미움이나 묵묵히 받아 들였더라면... 아, 이런 미련둥이! 어찌자고 생명을 이렇게 내던졌는가.

금석은 너무도 짧은 자기 인생이 슬프게 떠올랐다.

... 《아버지, 애들이 나 보구 <문지>래요.》

소학교때였던지 유치원때였던지... 하여튼 금석은 자기의 존재를 의식하던 첫 시절부터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 모욕적인 별명을 때버리지 못했다.

《아버진 왜 자꾸만 공장먼지 날라 오나요?》

그때문에 아버지는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고 자기는 아이들한테서 놀림을 받지 않는가. 그러나 아버지는 심상했다.

《그건 그냥 먼지가 아니야...》

어째서인지 아버지는 그 더럽고 새까만 공장먼지속에 금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아버지는 그를 앉혀놓고 어른을 대하듯이 정색한 어조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군대에서 제대되어 XX제련연합기업소에 온 아버지는 뜻밖에도 제금직장에 배치되었다.

《제금직장?》

《금을 만드는 직장이란 말이요.》

로동파에서 깨우쳐 주었지만 아버지는 좀처럼 그 말이 믿어 지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금이라는것은 실재하는 물질이 아니라 옛말에 나오는 환상적인 존재였다.

《...옛날 옛적에 길을 가던 두 형제가 어느 한 나루터에서 금덩이를 하나 얻게 되었단다.

의좋은 형제는 집에 돌아 가서 이것을 똑같이 나누어가지기로 하였지.

그런데 금덩이를 넣은 보따리를 가운데 놓고 배전에 마주 앉아 강을 건느는 형제의 마음속에서는 어느 새 흉악한 생각이 꿈틀꿈틀 일어나기 시작했단다.

<만일 형을 배전에서 밀쳐버리면...>

<만약 동생을 강물속에 빠뜨리면...>

금덩이는 몽땅 내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던 형제는 서로 마주 보기도 참 무서워지고 나중엔 서로의 마음이 다같이 흉칙해 진것을 알아차렸단다.

형이 먼저 말했지.

<동생, 우리 이 금덩일 강물속에 처넣는게 어떤가?>

<나도 바로 그 생각이요.>

형제는 얻은 금덩이를 강물속에 침병 집어던졌어.

그러자 다시금 마음이 깨끗해지고 의좋은 형제로 돌아온것을 느끼면서 기뻐했단다....

그런데 아버지가 바로 옛말에서나 나오는 금을 직접 만들어내는 로동자가 되었던것이다.

아버지는 직장장을 따라 현장으로 갔다.

네 벽과 바닥에 온통 흰 타일을 붙인 현장안에는 커다란 수직육조들이 여러줄로 배치되어 있고 그 위로 색깔이 서로 다른 전극이 레루처럼 뻗어 있었다.

파연 옛말속의 금이 이런 곳에서 만들어진단 말인가? 아버지는 믿어지지 않는 눈길로 현장을 휘돌러 보았다. 아버지의 눈길은 문득 높은 창문가에 가서 멎었다.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속에서 떠도는 먼지들이 온통 금빛으로 반짝였던것이다.

아버지는 로동파에서 자기를 데려온 직장장에게 창문쪽을 가리키면서 흥분하여 소리쳤다.

《금먼지!》

직장장은 웃었다.

《들뜨지 말게.

금을 처음 볼 때에는 가끔 그런 착각이 들군한 다네.》

그러나 금생산에 몸을 잠그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는 그것이 절대로 착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상 생산공정에 금먼지가 생겨날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있었던것이다.

그런데 금먼지라는 느낌이 확실해 질수록 아버

지는 속이 타고 살이 내리는것 같았다. 일하면서도 자꾸만 공중에 떠도는 금먼지에 눈길이 가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것이 마음에 걸려 잠들수가 없었다.

《저 금먼지를 말짱 잡아내야지요.》

아버지는 처음에 직장장을 납득시키다가 편한 지배인까지 찾아갔다.

《동무의 말대로 진짜 금먼지가 떠돌아 다닌다 칩시다. 그런데 그게 공중에 떠돌아 다닐 정도라면 아마 분자보다 조금 더 크겠는가?...

그걸 어떻게 잡아내겠는가 말이요.

글쎄 지금의 제진장치로 미처 못잡아 내는것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그거야말로 정말 새발의 피나 같은게 아니겠소.

그러나 동무가 좀 연구해 보오.》

끝을 싸매고 《연구》하다가 문득 단순한 방법을 생각해 내었다. 공중에 떠돌던 먼지들도 종당에는 바닥에 가라앉지 않겠는가.

현장을 청소한 먼지를 물로 일어 보았다. 그러나 금같은것은 티끌만큼도 걸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두 웃었다.

《그것 보라구. 판 생각말구 일어나 착실히 하라구.》

그러나 아버지는 고집했다. 하루분의 먼지에서는 몰라도 1년분의 먼지속에는 다문 몇그람의 금이라도 있을것이다.

《그럼 1년에 몇그람의 금을 얻자고 술한 로력과 설비를 들어서 공정을 또 차려 놓는단 말이요? 산 허물어 쥐잡기요.》

아버지는 코를 때우고 말았다. 직장장의 말이 파연 옳다. 쥐를 잡자고 산을 허물수는 없지 않는가.

아버지는 멋지게 단념해 버렸다.

그런데 햇빛속에서 반짝반짝 떠도는 금먼지가 아버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래도 저것은 쥐가 아니라 금이 아닌가... 10년 모아 1그람이라도 잡을수 있으면 잡아야지 저 귀한걸 공중에...

얼마간 지나서 아버지는 직장장에게 예둘러 요구했다.

《저에게 현장청소를 맡겨주십시오.》

직장장은 어처구니없는 사람의 성가신 매달림을 제폭지에서 물러나게 할수 있게 된것이 다행인지라 제법 식을 차려서 아버지를 편제없는 청소책임자로 임명하였다. 온 직장이 웃었지만 아버지는 웃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날부터 하루일이 끝나면 현장을 쓸어 모은 먼지를 점심밥꼭에 담아 집으로 가져왔다.

《산 허물어 쥐 잡는 일》을 직장에다 벌려놓을수는 없는것이요 집에라도 먼지를 모아 들였다가 어느 때건 여가가 생기면 혼자서 해야지...

정문을 나올 때마다 아버지는 경비원에게 먼지

를 담은 밥곽을 들어보이면서 소리쳤다.

《나 금 내가오!》

먼지속에 펴경 금이 있다고 확신하는 아버지로서는 단 1그람의 금이라도 잡아서 다시 제련소에 가져오리라는 자기의 결심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였던 것이다.

그때문에 처음에는 소동이 일어나고 말다툼이 벌어 졌지만 얼마후부터는 생각이 좀 모자라거나 혹은 지내 남는 사람의 분수없는 행동으로 웃어버리고 말았다...

《...그렇지만 나는 오히려 나를 비웃는 사람들이 우습다.

너도 이만큼 컸으면 어느쪽이 우스운지 알수 있을거다.

먼지라고 놀려대면 뭐라니. 먼지라도 우리 아버진 금먼지다, 하구 생각하렴.》

천만에!

어른들한테도 통하지 않는 생각이 아이들속에서 통하리란 말인가.

《아버진 20 년나마 먼지를 내왔지만 금은 한방울도 안 나왔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버지는 그저 씹쓸하니 입을 다시고 말았다.

그때가 중학교 몇학년이었던가?

김득순이라고 이름이 유별난 역사선생님이 있었는데 재미나는 세계일화들을 많이 들려주곤 하는 그 녀선생의 시간을 모두가 즐겨 기다렸다.

어느 날 그 선생이 과학적대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결가지를 쳐서 련금술자소리를 꺼냈다.

《한때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황금에 미쳐 금을 만들어 내겠다고 달라붙은 련금술자들이 많이 생겨 났습시다.

그들은 무작정 모든 물질들을 반응시키고 열구고 녹이고 하면서 한생을 허황한...》

이야기도중에 학급애들이 히들거리면서 금석이 쪽을 흘금흘금 돌아보기 시작하였다. 겨금메기로 자기를 돌아보는 그 눈빛들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울려왔다.

《선생님! 우리 학급에도 <련금술자>네 아들이 있습니다.》

금석은 모멸감에 얼굴에 뜨거워 졌다.

아, 나는 왜 하필 《련금술자》의 아들로 태여 났단 말인가.

금석이는 아버지가 부끄러웠다.

그가 커서 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온지도 여러해 지났지만 아버지는 먼지에 미친 자기의 놀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고립압살책동으로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던 그 피눈물나는 해에 아버지는 년로보장으로 공장을 마치고 들어왔다.

한끼한끼가 어려웠던 그 눈물겨운 나날에도 아

버지는 줄창 먼지에 몰두했다.

제금직장이 현대적인 설비로 갱신될 때까지 공장에서 날라들인 현장먼지를 그날그날 물에 이루어 무거운것만을 따로 모았는데도 창고에 가득 찼다.

아버지는 부엌 한구석을 작업장으로 정하고 하루종일 먼지를 물에 풀어 일었다.

이따금 가마에 닦아내기도 하고 어떤 액체에 담그어내기도 하였다.

금석은 집안생활에는 아랑곳없이 그따위 허황한 일에 몰두하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중세기의 련금술자들도 바로 아버지처럼 저렷을것이다.

《한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을 어찌겠니.

네가 그런다구 고쳐살겠니?

그저 마음이라도 편하게 내버려 드리렴.

어머닌 한평생을 그런 아버지와 살아왔을라니...》

아버지때문에 누구보다 속태우고 고생하는 어머니만은 오히려 아버지를 깨끗이 이해하고 위해 줄줄 알았다.

《요새 아버지가 날마다 쇠약해 지고 곁늘어가는데 얼마 오래 사실것 같지 못하구나. 그러니 우리가 참구서 아버지질 지금껏 살아 온 모양대로 내치 살도록 해드리자꾸나.》

그런데 뜻밖에도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

별치도 않은 병이 어머니를 영영 쓰러뜨렸던 것이다.

매일 매끼 평범하게만 보던 쌀이, 그 한알한알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을 그는 그 나날에야 톡톡히 깨달았다. 어느 책에선가 본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 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론하지 말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되새겨 졌다.

아, 지금도 어머니의 령구가 나가던 날 문밖에 나와 서서 외롭게 바라던 아버지의 파리한 모습에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머니의 장래가 끝나자 마치 늦은 길을 재촉하듯 서둘러 먼지처리에 달라붙었다.

《아버진 그 일을 계속하려나요?...》

금석은 너무도 무참해서 말을 삼켰다.

아버지는 일손을 멈추었다. 현 작업복을 두벌 꺼입은 아버지의 잔등이 굳어졌다. 자라목처럼 여윈 아버지의 목덜미에서 원망과 동정이 얹힌 서글픔이 밀려왔다. 먼지속에 금이 섞여 있다는 생각이 지나쳐서 그렇지 나라의 재산을 허실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야 얼마나 깨끗한가.

그래서 어머니도 허황한 일인줄 알지만 아버지 살아온 모양대로 내치 살도록 해드린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고난의 행군》 시기이다.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계속 먼지를 뒤져야 하는가.

아버지는 머리로 돌리지 않은채 대꾸했다.
 《끝나간다. 금석아.
 네가 나가서 공장을 지키는데 아버지가 뒤바라질 못해서 죄스럽구나.》
 금석은 아버지의 답답한 소리에 기가 막혔다.
 《내겐 아버지의 뒤바라지 같은게 필요 없어요. 기업소에서 부업지를 개간하기 위해 간석지개간 돌격대를 조직했는데 나도 거기 가겠어요.
 제발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건어치우라요.
 한집안 먹을것도 얻어내지 못하는 이따위놀음이 나라엔들 무슨 소용 있겠나 말이에요.》
 아버지는 일어났다. 그리고 경계어린 눈빛으로 금석의 얼굴을 한참동안이나 여겨보았다. 이윽고 한숨을 내쉬었다.
 《금석아, 이건 알쑤히 나라의것이다.》
 아버지는 바가지에 든 시꺼먼 감탕물(먼지를 물에 푼것이였다.)을 들어보이면서 저으기 간곡한 어조로 말했다. 《...아버진 굶어도 마음이 편해야 좋다. 너도 종당에는 이걸 알게 될게다.
 금덩이를 얻었던 두 형제의 이야기를 너는 꼭 명심하거라.》
 아, 아, 어리석은 아버지! 그 새까만 먼지가 정말로 금가루이거나 한듯이 경계심을 품으면서 진정으로 아들에게 충고하는것이다.
 어머니가 생전에 쓸쓸하게 하던 말이 떠올랐다.
 《어찌겠니... 지금껏 살아온 모양대로 내치 살도록 해드리 자꾸나.》
 금석은 어머니의 말을 자기의 감정에 맞게 고쳐 해석했다.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를 어쩔수 없다는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것이였다.
 금석은 먼지에 미친 아버지를 집에 남겨두고 간석지개간에 나갔다.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작별이 될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어느 날 아버지의 직장 세포비서아바이가 금석을 찾아왔다.
 《금석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 아버지! 끝내...
 아바이는 공장으로 가는 차안에서 금석을 위로하였다.
 《너의 아버지는 참된 로동자였지.
 제련소를 찾아오셨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제금직장을 돌아보시면서 금을 다루는 로동자들은 금보다 더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금석이 아버지가 현장먼지를 모아다가 금을 찾아 내겠다는것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헛된 일로, 우스운 일로 보였을수 있겠지만 우리 직장사람들은 모두 아버지의 그 깨끗한 량심앞에 마음속으로 머리를 숙였지. 그러니 아버지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해.

정말 금보다 깨끗하게 산 사람이지...》
 금석은 오래동안 아버지와 함께 일해온 세포비서 아바이한테서 이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졌다. 내가 허전하게만 생각했던 아버지의 한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듯 참담고 고귀한것으로 남아있단 말인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후 금석은 아버지의 유물을 정리하였다.
 별로 유물이랄것도 없었다. 한생 먼지에 미쳐 살아 온 아버지에게 무슨 남길만한것이 있었겠는가.
 금석은 이미 세상을 떠나간 아버지의 일기장을 유별난 마음으로 펼쳐보았다.
 그것은 일기장이라기보다 당원으로서의 자기생활을 혼자서 총화해 보곤 한 기록이라고 할수 있었다. 일기장은 그다지 두텁지 않았다. 워낙 과묵하고 말이 없었던 아버지인지라 일기도 그렇게 썼다.
 터실터실한 필적으로 단조롭게 씌여진 아버지의 일기장을 쓸쓸한 감회속에 번져읽던 금석은 마지막장에서 류다른 글줄을 발견하였다.
 -내 아들 금석에게...-
 《?...》
 금석은 다시 보았다.
 《내 아들 금석에게...》
 금석은 마침내 아버지가 자기에게 유서를 남겼다는것을 알았다.
 금석은 대뜸 글줄에 빨려들어갔다.
 -...아버지는 일을 끝냈다.
 순금 726.3 그램을 먼지에서 얻어냈다....-
 금석은 머리가 핑 돌았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분명 《순금 726.3 그램》이였다.
 심장이 터져나올듯이 쿵쿵 울렸다.
 순금 726.3 그램!
 이것이 지금 현실인가, 꿈인가?
 -...일을 끝내고나니 마음이 편하구나
 그런데 내 몸이 건잡을수없이 쇠진해 간다.
 아마도 꼭 끝내야 했던 일때문에 내 몸이 지금껏 유지되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할 일을 다했으니 마음만은 편하구나...
 아버지는 지금 네가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전번에 거기로 가는 인편에 너를 며칠 보내달라고 부탁을 보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네가 돌아오지 않아 금을 어찌지 못하고 있다.
 금을 기업소에 바쳐야겠는데 네가 딱 마음에 걸리는구나. 공장에서 내왔던것이니 고스란히 공장에 돌려주는건 너무도 당연하지만 지금은 그전과 사정이 다르지. 원썬들의 고립압살책동으로 굶으면서 공장을 돌리고 사회주의를 지켜야 하는 어려운 《고난의 행군》 시기다. 전에는 어썬비슷

하던 사람들의 금새가 이런 때에 날날이 갈라진다.

지금이야말로 참다운 인격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데 너는 아직... 인격이 모자란다.

네가 떠날 때 하던 말이며 오래도록 집에 발걸 한번 안하는걸 보면 뻔하다.

아버지가 먼지에서 얻은 금을 한톨도 안남기고 공장에 말짱 내갔다는것을 알면 너는 필경 이 아버지의 처사를 야속하게 여기고 몹시 원망할것이다. 조금만 덜어서 은행에 수매하면 홀로 남은 아들하나 밑천은 되겠는데, 그런다고 해서 누가 나무람할 사람도 없겠는데... 하고 말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 아버지를 원망하다나면 너의 마음이 영영 뻘뻘어지고 그것이 너의 앞길을 망쳐 버리는 역결과가 될것만 같아 아버지는 몹시 두렵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이 금을 기업소에 못 내고 있다.

나라의 금이 공중에 날아나는것이 마음에 걸려 거기에만 빠져서 살아왔더니 그통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놓쳐버리고 말았구나. 평소에 너에게 주의를 돌리지 못한것이 마음에 걸린다.

금석아, 세상엔 금보다 귀하고 값비싼것이 있는데 그건 사람의 량심이다.

흔히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것을 인생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하기는 쉽지 않다.

일생 먼지속에 섞여 있는 금을 골라 내어 나라에 보태게 되었다는 기쁨보다도 내 아들을 마음 곱고 깨끗한 량심을 지닌 참된 공민으로 나라앞에 세우지 못했다는 슬픔이 더 크구나. 실상 나라의 재부는 한번 써버리면 없어지는 금이 아니라 공장을 돌리고 농사를 짓고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아버지는 나라앞에 작은것을 보태고 큰 빛을 진셈이 되었구나.

하지만 금석아.

아버지는 너를 믿고 싶다.

행복만을 알고 자란 네가 갑자기 부닥친 고난의 시기에 주춤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뒤걸음치기도 하겠지만 종당에는 자신을 이겨내고 보다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하리라 믿는다. 아무렴 우리 당이 키운 너희들 세대가 다르게야 되겠니.

그래서 아버진 너를 기다리기로 했다.

다름아닌 너의 손으로 이 금을 기업소에 가져가게 하자고 말이다. 네가 어지러운 유혹을 물리치고 이 일만 해낸다면 그 대가로 한평생 끔찍없이 의지하고 살수 있는 큰 밑천을 가지게 될거다.

그런데 너는 좀처럼 집에 오지 않는구나.

네가 이 아버지의 일생은 허무하게 여기지나 않는지... 아버진 그제 제일 두렵다.

게다가 기다리는 너는 오지 않고 방구석마다에

서 죽음의 그림자같은것이 기어나와 점점 내 몸을 에워싸는구나. 이러다 혹시 너를 기다려내지 못한채 끝날것 같아 무섭다.

그래서 너에게 이 유서를 써두기로 했다.

금석아.

너 만일 살아있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다해도 너에게 말하고 가는 아버지의 한생을 이어주기 바란다. 더 훌륭하게...-

금석은 가슴이 찢어졌다.

목이 짹 메였다.

아버지!

아, 우리 아버진 이런 사람이였다! 먼지속의 금이였다!

금석은 불시 감격에 떠밀려 당장 아버지의 일기장을 가지고 집을 나섰다.

보라!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먼지같은 사람으로 놀림을 받아야 했단 말인가.

금석은 제련소의 커다란 아치형정문으로 들어섰다. 이제 온 제련소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다시 추억하면서 그 훌륭한 인격에 새삼 감동할것이다.

아찌면 신문에 나고 온 나라에 알려질지도 모른다.

련합당위원회청사로 꺾어드는 구내길에서 련합청년동맹부원 리금향을 만났다.

현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초급청년동맹비서를 할 때에는 허물이 없는 아름다운 처녀였는데 금성정치대학을 졸업하고 와서 련합청년동맹일군이 된 지금은 그 현숙하고 틀잡힌 자세에 어려움까지 느껴진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지요... 정말 안됐어요.》

금석은 먼저 인사를 건네는 처녀에게서 야릇한 모멸감을 느꼈다. 진정으로 깊은 동정이 어린 그의 눈동자에서 지금까지 아버지를 보아온 제련소의 측은한 눈빛이 비껴있는것을 보았던것이다.

《지금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을 청년동맹이 맡아서 해체길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받들고 청년돌격대추천사업이 한창이에요.

공장청년들이 저저마다 탄원해 나서고 있어요. 하지만 동무야 어떻게...》

금향은 몇마디 덧붙여 고무를 안겨주었는데 청년일군다운 처녀의 인품에 금석은 어쩔수 없는 차이감을 느꼈다.

련합청년동맹쪽으로 건뜻건뜻 멀어져가는 처녀의 어엿한 뒤모습을 바라보느라니 왜서인지 마음이 어수선했다.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금지로 하여 부풀어 올랐던 가슴속 격정은 가라앉았다. 발걸음도 떠졌다.

처녀가 남기고 간 말마디가 귀가에 맴돌았다.

《동무의 가정사정을 고려하여...》

그렇다. 아버지는 지금 이 세상에 없다. 사람들이 아버지를 다시 알게 된다 해도 아버지 자신은 생을 다시 살수 없는것이다.

금석은 자기 행동의 뜻과 정당성을 좀더 생각해 보고 싶었다.

첫 감동이 가라앉으면 사람들은 인차 생각할것이다. 아버지가 유서에 쓴것처럼 공장에서 내온것을 공장에 돌려 주는거야 응당하지 않은가고...

아버지는 그 대가로 나에게 한생 의지하고 살아 갈 든든한 밑천이 생긴다고 하지만...

금석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아버지의 한생으로 얻어 진 금을 나라에 보탠대야 바다에 물 한방울을 떨구는 격이다. 하지만 나 하나를 위해서는 말그대로 한평생 의지하고 살아갈 밑천이다.

아버지가 한평생 현장 먼지를 쓸어모아 얻어낸 금은 아들인 내 일생의 밑천으로 되여야 하지 않겠는가...

문득 아버지가 들려준 옛말이 생각났다.

《...얻은 금덩이를 가운데 놓고 배전에 마주 앉아 강을 건느는 형제의 마음속에서는 어느새 흠직한 생각이 꿈틀꿈틀 일어나기 시작했단다...》

먹은것이 없힌것처럼 명치들이 무직했다.

어떻게 할것인가?

금석은 마음을 종잡지 못한채 연합당청사에 이르렀다.

당직을 서던 부원이 접수구를 통해 물었다.

《무슨 일로 왔습니까?》

중년나이의 당일군이 폐의를 차려 묻는 소리에 금석은 당황해 났다. 덤비지 말라. 어쩌면 일생일대의 행운을 즉흥적인 말 한마디로 잃어버릴수 있다. 이런 기회는 두번다시 오지 않을것이다.

《저-》

금석은 문득 방금전에 만났던 금향이 생각났다.

《돌격대에 탄원하러...》

연합당부원은 빙긋이 웃었다.

《그거야 청년동맹조직을 찾아가야지요,》

얼뜬한채 물러나온 금석은 식은 땀이 내뿜었다.

마치 위기일발의 순간을 모면한 심정이였다.

금석은 일결에 둘러친 자기의 말을 좇아 청년동맹청사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렇다. 고속도로건설장에 나가자.

거기서 살이 터지고 뼈가 부서지게 일하여 금보다 값비싼 위훈을 세우자. 그동안은 이 일을 미루어 두자. 한순간의 충동에 못이겨 서둘러 금을 바쳐 버린 다음에 서서히 돌아올 후회를 안고 일생 자신을 탓하기보다 충분한 여유를 두고 진실로 마음이 우러날 때까지 나를 시험하고 단련시키자...

연합청년동맹에 찾아들어간 금석은 가정사정을

고려하여 돌격대탄원을 만류하는 1비서에게 자기도 고속도로건설장에 내보내 달라고 강경하게 제기하였다.

그때 1비서의 방에서 일을 보고 있던 금향이 감동어린 눈빛으로 금석을 건너다보았다. 금석은 그 눈길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처녀의 눈빛을 얼굴 뜨겁게 느꼈다. 자기가 지금 이 순간 금향이라는 청년동맹일군을 크게 감동시키고 있다는것을 분명 의식하였다. 그것은 틀림없었다.

며칠후 연합대대편성모임에서 리금향이 결의토론을 하였는데 바로 금석에 대한 이야기로 서두를 떼었던것이다.

《동무들!

새로 조직된 우리의 대오에는 부모를 잃은 슬픔을 딛고 일어나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돌격전에 용약 탄원한 X×직장 청년동맹원 김금석동무가 있습니다...》

금석은 얼굴이 달아올랐다. 어데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버리고 싶었다. 아, 저 처녀를 감동시킨 나의 마음이 이렇게 부끄럽지 않다면 얼마나 좋으랴.

금석은 아버지의 유서를 뜯어서 품속에 간수하고 집을 떠났다.

이곳 고속도로건설장에 온 금석은 아버지와 사회앞에 남모르게 지고 있는 죄의식에 쫓기며 모든 일에 앞장섰다.

어느 날 금석은 대대부앞에 세워진 대형속보판에서 멀리 바라보곤 하던 그 처녀의 사진을 가까이 보게 되었다. 려단정치부에서 일하던 그가 전투단위인 소대대원으로 자진해 왔던것이다.

리금향!

중대가 서로 다른 그들은 서로 먼발치로 흠쳐보곤 하였지만 때로 대대속보판에 나란히 이름이 나곤 하였다. 그것을 볼 때면 금석은 남몰래 가슴 울렁이였다. 그 처녀와 자기가 점차로 가까와져가는것이였다. 누가 알랴. 언젠가는 서로 스스럼없이 마주 보며 이야기를 나누게 될는지...

그러나 이처럼 가슴 설레이는 기대는 가슴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그 죄의식에 밀려나고 말았다.

줄곧 마음을 괴롭히는 이 죄의식에서 벗어날수 있는 길은 일밖에 없었다.

날마다 진행되는 대대의 전투총화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금석은 나쁜 육체의 피로와 배고픔속에서 비로소 죄의식을 잊고 마음의 안정을 느끼였다.

그러나 그것은 견고치 못하여 육체의 피로가 회복되고 배가 부르는 동시에 다시금 죄의식이 기여드는것이였다. 금석은 점차 항구적인 자부심을 자기의 마음속에 든든히 세우지 못한다면 이 지점은 죄의식에서 영영 헤어나지 못하리라는것

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때에 려단에서는 각 대대들에서 가장 우수한 남녀돌격대원들을 선발하여 50만산대발파를 위한 수굴대를 조직하였다.

가장 우수한 돌격대원들이 선발된다는 거기에 금석은 부쩍 마음이 끌렸다. 거기서라면 어떤 죄의식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부심을 굳건히 세울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대대적으로 남녀 한명씩 선발하는 결사대에 자기가 뽑히리라는 자신은 없었다.

지금까지 대대에서 확보해 온 자기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남모르는 죄의식에 늘 쫓기우고 있는 금석이로서는 자신에 대하여 당당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것이다.

100여명이 탄원하여 1대 50의 선발경쟁을 벌리었다.

여기서 바로 그들이 뽑히었다.

리금향! 김금석!

마치 오누이와도 같은 이름을 가진 그들은 려단수굴결사대로 떠나는 우등불모임에서 대대앞에 나란히 섰다. 대대장은 긴 말을 하지 않았다.

《동무들은 지금부터 일개 돌격대원이 아니라 우리 제련련합대대를 대표하는 결사대원들이라는 걸 명심하시오.

결사대에 탄원했던 많은 돌격대원들과 대대의 전체 성원들이 바로 동무네 두사람에게 자기의 명예를 맡겼단 말ियो.

동무네가 뒤떨어지면 대대가 망신이고 동무네가 앞장서면 대대가 자랑이고...

그렇지 않소, 동무들.》

온 대대가 목놓아 웨쳤다.

《그렇습니다!》

뜨거운 전율이 온몸에 굽이쳐갔다.

《그렇습니다!》

어둠을 밀어내는 우등불빛속에서 자기들을 바라보는 수백명 대원들의 눈빛을 통하여 고무와 격려의 감정이 세차게 밀려왔다. 아, 이런 동무들을 실망케 할바엔 죽고 말테다! 이러한 생각이 옥 치밀었다. 하여 그는 준비했던 토론문을 무시하고 한마디로 화답하였다.

《제 한몸 죽더라도 동무들을 망신시키지 않겠습니다.》

환희와 박수속에서 금향이도 불쑥 나섰다.

《저도요!》

그때 그들은 얼굴에 손을 잡았는데...

아름답고 행복했던 밤이었다.

남모르는 죄의식을 말끔히 태워 버린 그 불타던 밤 금향이의 깨끗한 눈!

바로 그 밤 금향이가 자기의 손을 잡던 그 순간부터 금석의 마음속에서는 집에 두고 온 금에 대한 생각이 깡그리 사라지고 말았다.

금석은 금향이와 함께 《제련련합대대를 대표하

는 사람》으로서 깊이가 제일 깊은 산정점의 수직수굴을 자진 맡아나섰다.

그로 하여 매일 전투실적에 따라서 순회우승기로 수여하기로 한 붉은 기발을 수굴전투 첫날에 수여받았다.

금석은 자기네가 맡은 정점의 표식말뚝옆에다가 통굽은 정대로 암반에 구멍을 내어 붉은 기발부터 든든히 꽂아놓았다. 이 기발을 절대로 다른 수굴조에 양보하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이렇게 보여준것이다. 사실상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단 한번도 붉은 기발을 다른 수굴조에 넘겨준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기발과 함께 그동안 이룩했던 모든 공지와 자부심을 포기해야 하는것이다.

금석은 지금 죽음에 쫓기여 기신기신 올라가고 있는 자기의 추한 앞날을 보았다.

그는 더이상 금향이의 아름다운 사랑의 메아리를 듣지 못할것이다. 《아-에-!》

더이상 환희에 넘친 화답을 보내지도 못할것이다.

《어-어-!》 아, 이런 생활을 잃고도 나는 살수 있을가.

《서라!》

려단장의 명령이 아버지의 목소리로 변조되어 울렸다. 금석아. 너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단 한 번 참되게 행동하지 못하면 영영 아무런 기쁨도 자부심도 없이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서라요!》

금향이가 목메어 소리쳤다. 대대의 우등불가에서 자기의 손을 잡으며 《저도요!》하고 웨치던 금향의 흥분한 숨결이 들려왔다. 금석동무! 그때 다진 동무의 맹세는 거짓이었나요? 지금까지 붉은 기발을 들고 려단의 진격로를 열어가던 동무의 훌륭한 모습이 허상이었나요? 저의 가슴속에서 동무에 대한 따뜻한 공감, 우리의 생활에 대한 열렬한 사랑, 아름답고 행복할 우리의 미래를 다 빼앗으면서까지 동무는 살아야겠나요?

서라요!

금석은 흠칫 멈춰섰다.

그리고 뜨거운 우등불가에서 밀려오는 대대돌격대원들의 눈빛에 휩싸이고 《저도요!》 금향이가 자기의 손을 잡던 그날 밤 그 순간의 환희가 되살아나 부르르 몸을 떨었다.

짧은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그렇다. 살아서 그 행복을 잃어버릴 바에는 죽어도 그 행복을 지켜야 한다.

금석은 손더듬으로 굴벽을 더듬어 위치를 가늠했다.

그런데...

《...?》

이게 어찌된 일인가? 등잔곶옆에 있는 이 가는

정구명은 언제인가 다리아픔을 꽃았던 자리가 아닌가.

그날은 중간경쟁총화가 있는 날이었다. 30 메터를 뚫어 내려간 금석이네 조가 단연 1 등이었다. 뭉뚱한 산등성이우에 온 러단이 모인 가운데 특이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러단장의 량어깨에 정치부장과 참모장이 팔을 걸어 만든 《삼두마차》우에 금석을 태우고 돌격대원들의 머리우를 헤엄치면서 37개 대대의 사열을 받게 하였던것이다. 그날 목마를 태울수 없었던 처녀썩패 금향에게는 특별히 마련한 흰 다리아 한송이를 안겨 주었다. 아직 물웅덩이나 산비탈에 녹지 않은 눈들이 남아 있던 때여서 그보다 더 값진 상은 없었다. 그날 그들은 등잔흙열에 다가 가는 정을 깊이 박아 구멍을 내고 거기에 물을 넣은 다음 꽃을 꽃았다. 금향은 꽃송이사이로 그를 정겹게 바라보았다. 금석이도 탐스럽고 깨끗한 꽃송이너머로 금향을 보았다.

꽃보다 깨끗한 눈! 꽃보다 탐스러운 얼굴!

꽃보다 싱싱하고 아름다운 처녀와 함께 승리를 이룩했다는 긍지를 느끼었다.

금석은 바로 그때의 그 지점에서 멈춰선것이다.

30 메터지점!

금석은 놀랐다. 분명 갱박으로 되올라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팔다리는 자기의 의사를 거슬러 아래로 더욱 깊이 내려왔던것이다.

이제는 갱박으로 나가는 시간보다 막장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더 빠르다. 생명은 나의 의지에서 벗어 났다. 어차피 참되게 살아서 나가던가 참되게 죽어서 나갈수밖에 없는 위치에 나는 서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금석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다.

비장한 마음속에서도 후날 금향이와 러단돌격대원들의 마음속에 홀룡한 모습으로 살아남게 될 자신을 생각하니 헌신의 희열이 북받쳤다.

금석은 자신있게 손발을 내려짚었다.

그의 눈앞에는 얼마후 러단의 진격로를 열고 희생될 자기의 모습이 떠올랐다.

...돌격대원들이 수직굴벽에 층층이 붙어 서서 피 흐르는 자기의 시신을 이어 안아 올릴것이다.

아침해가 비치는 땅우에 올라 온 나의 곁에 금향은 꿇어 앉아 눈물을 흘린다. 금향의 머리우에서 러단장도 정치부장도 대대장도 그리고 모든 돌격대원들이 온다. 그들의 뜨거운 눈물이 가슴을 적실 때 죽은 나는 참으로 영원한 행복을 느낀다. 금향은 마침내 나의 죽은 넋을 깨우려는듯 가슴을 쥐어흔들며 오열을 터친다. 사람들은 금향을 인차 뜯어내려고 하지 않는다. 금향은 행여나 숨결이 남아 있지 않을가 싶어 나의 앞자락을 헤치고 가슴에 불을 댈다. 그 순간... 금향은 죽

은 나의 가슴에서 아버지의 유서를 발견한다... 그것을 본 금향은 흠칫 일어나 뒤걸음 친다. 금향이 떨어뜨린 아버지의 유서를 돌려보면서 모두가 죽은 나의 곁에서 물러난다.

흥! 생명은 바치면서도 이걸 못바쳤군!...

《으-옥!》

금석은 죽어서 당하게 될 사람들의 비난에 신음을 토했다.

가슴이 미여지는 괴로움속에서 금석은 구원의 등대인양 우렁이 떠오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부엌바닥에서 일어난 아버지의 손에서는 감탕바가지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진절머리 나도록 못난 모습이었다. 그리하여 영영 등을 돌렸던 아버지였다.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살테다고... 그런데 아버지의 그 마지막모습이 지금은 자기를 구원해줄 유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안겨왔다. 금석은 목이 메어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저에게 손을 주세요. 내 만약 살아서 돌아가 생을 계속할수 있다면...

금석은 희미한 등잔불에 비쳐진 갱바닥을 보았다.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도화선의 화약심 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면심에 뜰불이 달려 있다면 어느 순간에 《팡!》 할지 모른다.

이제 한발만 내려짚으면...

내 만일 살아서 돌아가면...

이제 한발만...

살아서 돌아가면...

금석은 불발을 해제하였다.

그리고 갓 떠오른 아침해가 비치는 땅우에 살아서 올라왔다. 맑은 공기가 가슴속에 흘러들었다.

그는 기발대를 부여잡고 쓰러지려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해가 떠오른 평양쪽의 하늘에 뽕안뵈미 서린것을 그는 보았다. 먼 도시의 은빛하늘을 원경으로 소나무가 들성들성한 숲속에서 한 처녀가 머리칼을 훑날리며 뛰어나왔다. 그 뒤로 결사대원들이 우- 달려나왔다. 남먼저 발파구역에 들어선 처녀는 버럭더미들사이로 사라졌다 나 타났다 하면서 넘어질듯 엎어질듯 달려왔다.

금향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활이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푸른 봄하늘가에서 그를 부르는 금향의 목소리가 메아리쳐 왔다.

《아-에-!》

그는 가슴 뿌듯한 환희에 휩싸였다. 《어-어-!》 금석은 마침내 돌가루가 뽕양게 앉은 처녀의 속눈썹에 맺힌 눈물을 보았다. 눈물과 함께 그윽한 미소가 샘솟는 그 맑은 눈동자속에서 금석은 아름답게 비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았다.

강선땅 집집마다...

류춘선

내앞에 정히 놓여있습니다
여기 강선땅
이름없는 수수한 살림집방안에
침대가 정히 놓여있습니다

56년...

나라가 시련도 많던 그날
쌓이신 피로 잠시나마 푸시라고
우리 수령님께 정히 퍼드렸던
하이얀 이불
정갈한 조선베개

바라볼수록
우리 수령님 따스한 체온이
이 몸에 뜨겁게 스며듭니다
그날의 수령님말씀
이 가슴 적셔줍니다

그날엔 미처 몰랐습니다
한가슴에 안으시기엔
너무도 어려웠던 나라사정
우리들과 먼저 의논하시려
강선땅에 오시였던
수령님의 높이신 그 뜻

전쟁의 참화가 너무도 심했던 탓에
모진 시련을 이겨낸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잘 살게 하시려
전설속의 천리마를 불러
그 억센 고삐를 우리에게 남먼저 쥐여주시려
마음쓰신 깊은 그 사연

생각할수록 눈시울 후더워 집니다
나라가 허리를 펴일
더 생산해야 할 만톤의 강재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며
종시 잠 못드시고 일어나신
우리 수령님 그날의 그 로고...

아버지를 마음 편히 모시려면
가정의 맏아들이 제일 마음써야 하듯
나라의 맏아들
강철전선의 로동계급 우리들이
몇백 몇천밤을 지새우더라도
언제나 제일 큰 기쁨만을 드려야 함을

아 수령님
목메여 부르고 또 불러보아도
다시 뵙지 못하는 오늘에야
더 깊이 알았습니다

깊이깊이 뉘우치며
마음속에 다지고 다져갑니다
우리 장군님
쪽잠도 달게 여기시는 우리 장군님만은
언제나 편하도록 모셔가리라

마흔일곱해 하루와 같이
그날에 정히 퍼드렸던
눈처럼 하이얀 이불
정갈한 조선베개를
강선땅 집집마다 마음속에 안고 삽니다
나라의 유산으로 소중히 간직하렵니다
세월을 넘어 세대를 이어...

강선의 추억

권오준

어느덧 세월은
복숭아 나의 볼에
이 많은 수염그루 박아놓았구나

지나간 세월의 흔적이
내 얼굴에 새겨지듯이
그 세월속에 새긴 생의 흔적은
이 땅에 뚜렷이 남겼더냐

항시 삶의 그림자처럼 찾아와
내 넋을 흔들어 깨워

나를 이끄는 추억이여
철의 고장에서 뼈를 굳힌
강선의 추억

목숨과 쇠물을 바꿀줄 아는
50년대 그 시대에 내 마음 세워주며
한방울 흘린 쇠물을 두고도
심각히 량심을 심판하는
나의 추억속엔 쇠물만이 끓어라

내 날마다 부어내는 쇠물이여

정녕 네가 무엇이기에
우리 수령님 12월의 찬눈 맞으시며
강선의 구내길에 오늘도 지워지지 않는
그리도 뜨거운 자욱 남기셨던가

나의 추억
강선의 추억은
나는 오직 동무들을 믿는다시던
수령님의 그 말씀
만톤의 강재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그들의 심장밑에 만톤의 강철을
억년초석으로 고여주신
수령님의 그 믿음

오 정녕
강선의 추억은
수령님 어깨우에 내리였던
12월의 찬눈
어제도 오늘도

필필 끓는 쇠물의 불노을
계획량우에 더 없어진 6만톤의 강재

추억이여
오늘도 그날의 백양나무 그 설레임처럼
내 마음 휘젓는 추억이여
자기를 바쳐 끓여내는 쇠물과 함께
오늘도 용해공의 하루하루를
엄격히 보증하는 량심이여

걸어온 길에 세운 이정표처럼
아름다운 래일로 떠미는 추억이여
가야 할 인생의 끝까지
아름답게 삶을 이끄는 추억이여

언제나 꿈결에도 찾아와
내 심장 쇠물처럼 끓여다오
불노을 피는 강선의 하늘아래서
내 삶을 이끄는 추억이여
강선의 추억이여

아버지의 발자욱

김춘식

내 걷는 초소길엔 보이지 않는다
전화의 그날
총창을 추켜들고 돌격전에 나가던
아버지의 발자욱
이제는 세월의 이끼와 락엽에 묻혀...

허나 병사 내 마음속엔
뚜렷이 찍혀있노라
군복입은 아버지의 모습과 함께
불타는 고지에 피로 찍은
아버지의 발자욱 피젖은 발자욱이

그 발자욱이었다
힘에 겨운 천리 강행군길
아슬한 벼랑길에 내 잠시 주저할 때
아픈 채찍이 되어
나의 발걸음에 용맹의 나래 달아준것은

때없이 울리는 비상나팔소리에
번개같이 초소길 함께 달리며
이 땅을 겨누는 원쑤의 총구앞에

어떻게 심장을 내대야 하는가를
병사의 가슴에 피로 새겨준것은

눈비오는 진펄길도 함께 헤쳤노라
사품치는 강하도 함께 넘었노라
조국의 천리산발 고지마다 함께 걸으며
병사의 걸음새를 가르쳐주노라

결사의 순간에 뒤로 물러선 자욱
자신을 위한 자욱은 없었다
조국수호의 공격전에서
한치의 드림도 없이 앞으로만 나아간
앞서간 세대의 그 발자욱

오 그 발자욱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병사생활의 매 순간마다
심장에 새겨 안노라
50년대 조국결사수호의 길에 찍은
성스런 삶의 흔적
언제나 위훈으로 불러세우는
아버지의 발자욱 피젖은 발자욱을...

평범한 생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속에서

-최근 《조선문학》에 실린 과학자현상주의의 단편소설들에 대한 소감-

안성

선군시대의 격동적인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줄기차게 창작되고 있는 단편소설들가운데는 과학자의 형상창조에 바쳐진 작품들도 들어 있다. 우리 작가들은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 오늘의 거창한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더운 우리 과학자들의 진실하고도 풍만한 형상을 안아 올리기 위해 창작적사색과 열정을 남기지 않았으며 《조선문학》잡지는 자기의 지면을 아끼지 않았다.

그 갈피에 새겨진 단편소설 《해 저무는 백사장에서》(김유권, 주체90년 1호), 《행복의 무게》(리라손, 주체90년 3호), 《함께 가는 길》(공천영, 주체90년 11호), 《따뜻한 꿈》(최련, 주체91년 1호)...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관철하는데 이바지하는 이런 작품들이 새 세기의 첫 문어구에서부터 활발히 창작된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보다도 우리를 더욱 기쁘게 하는것은 시대정신이 구현된 평범한 생활에 대한 심오한 탐구속에서 참신한 인간성격을 형상하려는 작가들의 높은 창조정신이 이 작품들에서 안겨 오기때문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늘 목격할수 있는 평범한 생활의 본질을 드러내며 평범한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 숭고한 정신세계를 전형화하여 보여주어야 한다.》

개성적이며 진실한 인간성격은 평범한 생활속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리 독자들은 작품에서 결코 그 어떤 비사한 생활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때로는 비범한 생활에 대한 형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일상적인 평범한 생활속에 체현되어 있는 깊은 뜻을 새롭게 알게 하고 그 생활속에서 발현되는 인간의 고상하고 참신한 성격적미에 끌려 들어 가게 하는것이 더욱 중요하다. 바로 여기서부터 예술적흥미가 생겨 나는것이며 바로 이렇게 하는데 작가의 높은 창작적기교가 있다고 말할수 있다.

때문에 작가는 그 어떤 요란하고 웅장한 사변속에서가 아니라 평범한 생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하여 시대의 전형, 참신한 시대성격을 진실하게 그려 내려는 진지한 창조정신을 지녀야 하는것이다.

우리 시대 과학자의 전형을 창조하는데 지향된

단편소설들은 평범한 생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하여 시대정신을 뚜렷한 개성으로 체현한 인상적인 인간성격들을 형상한것으로 하여 짙은 공담과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선군시대 과학자의 참신한 형상으로 새 세기의 첫호를 이채롭게 장식한 김유권의 단편소설 《해 저무는 백사장에서》는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다.

작품에 반영된 생활은 비상한것이 아니다. 있을수 있는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하여 화학공장에서 빈번히 벌어 놓곤 하는 압축기보수작업, 그를 둘러싼 평범한 인간들의 생활이 흘러 가고 있다. 그러나 그 흐름속에서 숭고한 조국애를 지닌 한 청년과학자의 모습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부각되어 뚜렷이 안겨 온다.

화학공장의 타보압축기와 같은 대형설비들의 사고를 미리 막을수 있는 기계진동진단체계프로 그람을 개발하기 위해 압축기보수현장에 달려 온 수학연구소 연구사 리주렬, 그의 실험이란 닢아 떨어진 치차나 메달들을 일추 땀질하여 축에 맞추고 돌려 보는것이 고작인 단순하기 짝이 없는 것이였다. 그의 연구내막을 충분히 리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보수기일을 늦잠게 하는 주인공을 달갑지 않은 눈으로 보았다. 마치도 《남의 초상에 와서 민속학을 연구하는것 같은》 행위라고 생각하면서 《6308베아링이 어느 축에 붙었겠는지도 몰라》 하는 그를 두고 비웃기까지 하였다. 이 모든것을 그는 혼연히 대하였다.

그러나 필요한 실험수치를 얻기 위해서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압축기옆에서 연구를 계속했고 의식을 잃고 실려 간 병원침대우에서도 프로그람의 개발을 위하여 사색과 심혈을 깡그리 바친다. 그는 압축기사고는 피할수 없는것이며 사고가 나면 재래식으로 보수를 하면 되는것이지 공연히 시간을 낭비한다고 연구사업을 시답지 않게 대하는 사람들을 놓고 《말귀도 알아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과 무슨 일을 치르겠는가... 나라의 전도까지 어두워 보였》다고 열변을 터친다. 또한 중학교를 졸업하고 로동현장에 진출한 애젊은 로동자 서인철이 대학을 마다하고 힘든 건설장으로 찾아 가는 청년들도 있는데 대학입학시험을 준비한다는것이 몇몇치 못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인철이는 이제 어느 대학교정이나 연구실로 간다고 생각하나. 나라의 장래운명이 결정되는 전선으로 가고 있어. 우리가 다시 일어 서는가,

아니면 후진국으로 밀려 나는가를 판가리하는 대결장이 준비된 청년들을 부르고 있어.》라고 준절히 깨우쳐 준다.

이런 리주열의 형상이 어째서 우리에게 새롭게 안겨 오는가. 어째서 도식과 류형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고 공감과 흥미의 세계에 독자들을 이끌어가는가.

물론 지난 시기에도 자기의 의무를 자각하고 성실한 탐구와 자기희생적인 노력을 바쳐 가는 참된 과학자의 모습을 능히 볼수 있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오늘의 어려운 시기에 내 조국을 지키고 빛내이는 또 하나의 결사전으로 가슴에 새긴 인간, 선군시대가 안겨 준 사생결단의 각오와 의지로 탐구의 길을 걷는 과학자의 모습은 새롭게 안겨 온다.

《확실히 화구를 막을 기질이에요.》 리주열이 병원으로 실려 간 뒤 깊은 한숨까지 내쉬며 서인철이 하는 이 말은 그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시대의 부름에 따라 선 주인공에 대한 생동한 평가라고 할수 있다.

지금은 《전기도 원료자재도 설비도 부족한 조건에서》 어려운 행군을 하고 있다. 하여 과학연구에서는 실패도 있을수 있고 사람들의 오해도 받을수 있으며 지어는 생명을 내대야 하는 위험한 순간도 겪을수 있다. 그러나 과학자는 탐구의 길에서 한결음도 물러 설수 없다. 《현실은 과학자들이 주저앉으면 백년이 가도 뒤떨어 진 처지를 면할수 없다고 ...우리의 힘을 믿고 일어 서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에 우리 과학자들이 분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조국은 남들을 따라 앞설수 없고 강성대국을 건설할수 없다. 조국의 배일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 ... 이런 자각이 그의 가슴속에서 세차게 끓어 번졌다. 이런 지향을 안고 그는 시대의 격류에 뛰여 들었던것이다.

조국의 오늘과 배일에 자기의 삶과 운명을 하나의 숨결로 굳게 이어 놓고 사생결단의 의지로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가는 여기에 선군시대 과학자로서의 리주열의 성격적핵이 있고 시대적높이가 있는것이다. 아울러 바로 이것이 그대로 시대를 보고 생활을 대하는 작가자신의 높이가 아니겠는가.

평범한 생활에 대한 심오한 탐구의 초점은 주인공에게만 바쳐 진것이 아니였다. 과학발전에 대한 각이한 태도를 나타내는 각이한 인간들의 모습에서도 작가의 깊은 탐구정신이 울려 나오고 있다.

결으로는 《과학중시》를 운운하면서도 《이 몇 줄짜리 공식》으로 사고를 막는다는것을 믿을수 없다면서 《지금이 과학이나 논할 때》가 아니라 고 꺼리낌없이 내뱉는 지배인, 《기껏해야 수자나 풀고 시비공론이나 하겠지요. 당초에 그 량반들을 부른것 부터가...》 하면서 연구사가 오는것을

못마땅해 하는 수리반장 박승규, 공부는 하지 않고 장기놀음에 빠져 돌아 가다가 과학기술의 시대에 뒤떨어진 자기를 깨닫고 깊이 자책하는 젊은 노동자 서인철, 대학을 졸업한후 초기에는 심전도곡선을 해석하는 프로그램도 짜느라고 했지만 《일에 몰려》 컴퓨터와 멀어 지고 나중에는 거기에 화려한 무늬의 꽃보자기를 씌워 놓은 공장병원 의사 서인경...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수 있는 《낮익은》 모습들이다. 그러나 주인공과의 대비속에서 우리는 생활에 의례히 있을수 있는것으로 여겨 지던 그 모습들이 오늘에는 더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라의 과학기술에 무관심하고 그 발전을 더디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과연 강성대국건설위업은 어떻게 될것인가.

작가는 이런 인물들이 리주열의 정신세계에 공감되고 마침내는 그와 숨결을 같이 해나가는 형상을 통하여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 있게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 지식은 광명이고 무식은 암흑이라는 명언의 진리성을 절감하고 실력전의 불바람을 일으켜 나가는 우리 시대의 자연스러운 귀결인것이다. 작품은 정보산업시대인 새 세기의 요구를 민감하게 감수하고 현실을 정면에서 예리하게 투시해 보며 절박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했을뿐아니라 그 예술적해명을 위하여 평범한 생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속에서 청년과학자의 참신한 시대성격을 그려낸것으로 하여 쉬이 지울수 없는 여운을 남기였다.

단편소설 《행복의 무게》도 평범한 생활에 대한 심오한 탐구를 통하여 우리 시대 녀성과과학자의 성격적면모를 특색 있게 형상화였다.

젊은 녀성작가는 자기 주인공의 생활을 결코 독서, 토론, 논쟁, 실험 등의 과학자특유의 직업적인것에서만 찾지 않았다. 소설의 녀주인공은 과학자이기전에 한 가정의 안해였고 어머니였으며 살뜰한 주부였다. 가정생활도 과학연구사업 못지 않게 그의 중요한 세계였다.

작가는 가정생활의 한 단면을 통하여, 《고난의 행군》의 나날에 누구나가 목격할수 있었던 평범한 가정생활에 대한 심오한 탐구를 통하여 한 녀성과과학자의 내면세계, 시대적성격을 진실하고 참신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과학자들의 생활에서, 더구나 그가 녀성인 경우 가장 힘겨운것은 무엇이라고 말할수 있을것인가. 실험에서의 실패, 아니면 연구에서의 좌절?...

작가는 바로 그것이 생활의 어려움앞에서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지키는것이라는 심오한 생활의 진리를 녀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감명 깊게 밝히고 있다.

생화학연구소 연구사 유경이 처녀시절에 간직

한 꿈과 리상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가장 힘든 첨단분야를 개척하는 여성으로서 조국의 과학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장군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연구사가 되고 싶》은 그였다. 하여 여성으로서선 뜻 나시기 저어하는 촉매연구를 택하고 자기의 재능과 열정을 바쳐 연구원을 졸업하면서 벌써 학사학위를 받았다. 결혼후에는 남편과 함께 공동연구로 우리 나라 원료인 아민법에 의해 《Z》촉매를 합성할수 있는 이론적기초를 완성하여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들부부는 신문에까지 소개되었다...

그러나 유경이도 가정을 가진 평범한 여성이었다.

《시약, 실험기구, 연구조건만이 아니라 가정을 유지하기조차 힘든 때》가 닥쳐 오자 그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과학자로서의 본분과 가정의 주부로서의 의무, 이 두가지를 놓고 망설인다. 어느것을 택할 것인가.

끝내 연구사인 남편이 출장 나가고 없는 사이에 연구사업을 포기하고 연구소의 과학기술통보실에 돌아 앉고 말았다. 《엄혹한 오늘날 가정살림을 도맡아 나시고 건강한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들을 여전히 사회적인무에 충실하도록 떠미는 여기에 녀인들의 강의성과 아름다움이 있는게 아니겠는가.》고 자신을 위안하면서...

그렇다. 이것은 조금도 부인할수 없는 생활이었다. 사실 고난의 그 나날에 다른 녀성들보다도 녀성과학자들이 마음고생을 더 많이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리라.

그러나 고난의 그 나날은 단순히 생활상의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만이 아니였다,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이기는 자신과의 투쟁의 나날이기도 하였다. 생활의 어려움앞에서 주저도 하고 고민도 하며 시대정신의 높이로 성장해 가는 소설의 주인공 유경은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인간이었다.

자신에 대한 이름할수 없는 불만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몸부림치는 유경이,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자신을 스스로 기만하고 있다는 허무감으로 하여 까닭없이 반발심이 솟구치곤 하였다. 그는 자신이 《한 가정의 의무만을 홀가분하게 지고 가는 평범한 주부》, 《단순한 보통 아낙네》가 되어서는 안되며 《지치도록 자신을 깡그리 바쳐야 할 대상을 촉매연구로 규정한》 과학자임을 잊지 않았던것이다.

작품에서는 굴곡 많은 심리적체험을 겪던 유경이가 과학탐구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 가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서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을 심각히 돌이켜 보며 마침내는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이겨 내는 과정을 녀성작가다운 섬세하고 담담한 필치로 진실하고도 생동하게 그려 보이고 있다.

유경이부부가 공동연구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

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발명을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30대의 젊은 박사가 되어 국제과학기술축전에서 《제네바 금은상》을 수여 받고 돌아 와 어린 아들과 만나는 소설의 마감 장면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다.

《유경은 두팔을 한껏 벌리고 아들을 향해 마주 달려 갔다. 높이 안아 올린 아들애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눈동자를 들여다 보니 어쩐지 목이 메였다. 환희로운 이 자리에 진정 유경이 자신이 서있단 말인가!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자신을 이겨 내는것처럼 힘겨운것은 없다고 한다. 그러기에 인생의 극한점에서 끝내 자기자신을 이겨 낸 사람만이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의 참무게를 느끼게 되는것이다.》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가, 얼마나 숭고한 행복인가. 한 가정의 주부로만이 아닌 이 땅에 사는 과학자의 신성한 량심과 의무를 다하고저 고난앞에서도 끝끝내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이겨 낸 모습이며서, 그래서 안겨 진 행복이며서 우리에게 는 더없이 진실하고 소중하게 안겨 오는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도 있을것이다. 만일 작가가 유경이를 생활의 그 모든 어려움에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자기의 길을 곧바로 걸어 가는 완성된 인간으로 그렸더라면 현재 작품이 도달한 사상예술적높이를 가늠해 볼 때 그런 경우라도 능히 형상적으로 소화해 내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시련을 이겨 내고 또 자기를 이겨 낸 그 모습이 더 친근하고 아름답게 안겨 오며 그것으로 하여 녀성과학자 유경이의 형상은 더욱 돋구어 지는것이다. 바로 이런것을 두고 생활을 깊이 있게 탐구했다고 말하는것이다.

생활에 대한 깊은 탐구는 《따뜻한 꿈》에서도 찾아 볼수 있다. 작품에 반영된 생활은 우리에게 전혀 낯 설고 생소한것이 아니였다.

새형의 전자유압조종식굴착기의 제작을 위해 기계공장에 내려 온 처녀연구사 최윤경, 그가 맡은 열교환장치의 미완성으로 인한 일군들의 독촉과 요구, 그를 도와 주기 위해 온 다른 연구소의 연구사 리남진. 서로의 주장을 놓고 벌여 진 두 사람의 충돌, 자기의 과학적신념과 생활의 신조앞에서 모대기는 최윤경, 새롭게 완성한 열교환기의 시험, 그 과정에 깊어 지는 서로에 대한 리해... 과학자를 형상한 작품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레사롭고 어찌 보면 관 박은듯이 느껴 질수 있는 생활이다. 그러나 이 생활속에서 살아 숨쉬는 청년과학자들의 형상은 작가에 의해 새롭게 탐구되고 체현된 시대성격으로 하여 참신한 예술적향기를 풍기고 있다.

최윤경, 그에게는 세계적수준인 II 방식의 열교환회로를 완성해 보려는 아름다운 꿈이 있었다. 하지만 《빈번히 실패하는 실험, 더욱더 묘연해

보이기만 하는 성공의 앞날》을 두고 《자신의 꿈은 도저히 실현할수 없는 공상이 아닐가 하는 생각으로 모태기군 하였》으며 끝내는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방식에서 그치고 말았다.

그의 꿈은 아직 두뇌에서만 자라는 그 개인의 것이었다. 조국을 위해 바쳐진 불타는 심장에서 시대의 지향과 합쳐진 것이 아니었다. 하기에 부닥치는 난관앞에서 쉽사리 주저앉기도 했고 판리국과장 립성무의 정당한 요구앞에서 과학자의 책임감보다 개인적감정을 앞세우기도 했다. 리남진, 그에게서 꿈은 결코 허황한 공상이 아니었다. 《우리의 래일에 대한 깨뜨릴수 없는 믿음이고 그것을 당겨 오기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치는 사랑이고 헌신》이었다. 《넋이 있고 피가 있으며 맥박이 있는》 조국을 위한 또 하나의 생명이었다. 하기에 설계의 과학적담보를 믿지 못하는 립성무에게 《과학자들을 설계도면의 한장한장을 대하듯이 대해서는 안》되며 그들이 그리는 도면에 깃들여 있는 《꿈을 짓밟는것은 그 어떤 리유로도 정당화할수 없는 범죄》라고 웨친다. 개인적감정에 못이겨 자기의 꿈을 버리고 떠나라는 최윤경을 《동문 누구한테서 배반 당했소. 조국이요? 아니면 타산이요? 그런데 오늘 동문 무엇을 배반하고 있는가.》라고 깨우쳐 준다.

언제인가 한 평론에서는 이 작품을 론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한 끝에 《새로운 주장을 내세운데 맞게 과학자형상에서도 새로운것을 들고 나왔더라면 더 좋았을것이라는》 여지를 밝힌바 있다.

자기의 꿈과 리상을 숭고한 조국애와 결합시키려는 불타는 지향과 열렬한 헌신, 바로 이것이 작품의 주인공들에게서 찾아볼수 있는 새로운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과학자의 꿈은 소중하다, 거기에 조국의 보다 아름다운 래일이 비껴있는것이기에. 그러나 그것은 숭고한 조국애와 헌신의 열정을 떠나서 참된 가치를 가질수 없다, 불굴의 의지도있을수 없으며 현실로 꽃피날수도 없다. 조국애로 불타는 심장을 가지라, 그 심장에서 자라나는 꿈을 안으라. 이런 열렬한 웨침을 우리는 주인공들의 모습에서 힘있게 듣고 있다.

녀성소설가의 체취가 함뿍 풍겨지는 작품에서 최윤경의 내면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추구와 생동한 생활세부인 《산산이 깨어 버린 인형의 사기 조각》에 대한 의미 깊은 탐구는 성격형상의 품위를 한결 돋구어 준다.

과학자형상주제의 단편소설들을 더듬어 보며 이런 요구를 제기해 본다. 더 깊이 있게, 더 진실하게 인간성격을 형상할 여지는 없는가. 우리 시대 과학자의 전형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게끔 미흡한 점은 참말로 없는가. 형상의 여지는 아직 있으며 미흡하게 여겨지는 점도 없지 않다.

작가가 아무리 성격형상을 참신하고 진실하게 하려고 하여도 생활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새로운 시대적성격을 발견할만한 높은 지성과 열정이 없으면 그 지향은 옹당한 결실을 맺을수 없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단편소설 《함께 가는 길》이 거둔 일련의 사상예술적성과를 긍정하면서도 몇마디 의견을 언급하지 않을수 없다. 이 작품에는 자기나름의 사상적주장도 있고 형상화의 수준도 일정하게 엮여있고 있다. 그러나 성격형상은 시대정신이 굵이치는 현실생활에 대한 심오한 탐구속에서 뿔뿔히 지지 못한것으로 하여 우리는 허전한 마음으로 마지막폐지를 넘기게 된다.

작품은 평범한 생활속에서의 과학자성격형상을 위한 보다 깊은 문학적탐구가 없이 주제로서 한 몫 보려는 경향에 치우쳐 버린듯 하다. 작품에서는 장항농장 관리위원장 리택훈의 시점에서 60나이에 이른 몸이지만 나라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미생물비료연구를 걸머지고 성실한 노력을 바쳐가는 녀성과학자 김옥심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여기에는 심각한 사회적문제도 없고 문학적인 이야기도 없으며 생신한 인간성격도 보이지 않는다.

계획외에 화학비료를 더 받으려고 출장을 떠났던 리택훈이 출장지에서 미생물연구사에 대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야 그의 《가치》를 깨닫고 미생물비료에 무관심한 자신을 뉘우쳤다는것, 농장에 돌아오자마자 김옥심을 찾아가 그의 생활을 돌봐 주었다는것, 그런데 김옥심은 장항농장에서의 미생물비료도입은 완성되었으니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난다는것이 전부이다. 작품은 주인공의 정신적지향, 내면세계를 깊이 있게 파고 들지 못하고 그의 농장생활을 평면적으로 전개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물론 분조장 영실이의 회상담을 통하여 김옥심의 가정생활의 한토막이 비쳐진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에게나 상식처럼 알려진 《인간적인것을 희생해야 하는 과학자특유의 생활》인바 연구사업때문에 외지에 나가 있다가나니 외동딸의 해산방조도 옆에서 해주지 못하고 또 돌아와서도 갓 태어난 손자애와 같이 하루밤을 지내지 못하고 연구지로 떠나야만 하는 생활인것이다.

생활에 대한 깊은 탐구속에서 발견한 성격적핵이 없이 《미담》식으로 작품을 꾸미다보니 주인공은 개성이 뚜렷한 산 인간으로 안겨오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땅의 진짜 거름이 되는게 내 인생의 목표였어요.》라는 그의 진정은 독자들의 가슴을 울리지 못한다.

시대정신이 내려치는 평범하고도 깊이 있는 생활로써 참신하게 밝혀지지 못하는 인간성격은 독자들에게 인상깊이 새겨질수 없으며 시대의 전형으로 될수 없다.

단편소설 《따뜻한 꿈》에서 녀주인공 최윤경과

림성무의 관계도 생활론리에 맞게 다듬어 지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소설의 시작을 보아서는 마치도 림성무로 하여 최윤경의 연구사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림성무가 최윤경의 가슴에 쉬어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긴것은 사실이다. 사랑하는 청년의 아버지였던 림성무는 최윤경을 만나보구 그가 생활과 꿈과의 차이를 이해 못하는 순진한 처녀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결렬을 요구했던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열교환회로를 새롭게 개발하려는 최윤경의 꿈이 실현되지 못하는 까닭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루빨리 새형의 굴착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모두가 자기가 맡은 연구사업을 다그쳐 끝내야 한다는 림성무의 요구, 또 그것을 위하여 《다른 연구소의 재능 있는 동무를 망라》시킨 그의 처사는 그리 무리한것이 아니다. 그런데 최윤경은 열교환기제작을 제 기일내에 끝내야 한다는 그의 요구에 《그건 담보할수 없습니다. 필요한 시험공정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고 대답하며 《과학에는 주관과 인연이 없는 자기의 생리와 법칙이 있다는것을》 새삼스럽게 연명한다.

림성무의 요구는 결코 필요한 시험공정들을 건너 뛰라는것이 아니며 과학의 생리와 법칙을 무시하라는것도 아니다. 그러함에도 《필요한 시험공정의 준수》, 《과학의 생리와 법칙》을 내걸며 지어는 당앞에 결의 다진 날자를 《담보할수 없다》고까지 응당한것처럼 말하는 최윤경의 태도는 림성무에 대한 순수 개인감정적인 도전과 반발로

밖에는 달리 볼수 없으며 이것은 지성인으로서의 그의 품격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 물론 자기의 꿈과 리상, 사랑이 모욕 당한 울분이 림성무를 대할 때마다 되살아 날수도 있다. 하지만 공공연히 《필요한 시험공정의 준수》와 《과학의 생리와 법칙》을 조건으로 하는 최윤경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생활론리에서 탈선된듯 한 느낌을 준다.

사실 윤경의 꿈이 실현되지 못하는것은 필요한 시험공정이 준수되지 못하고 과학의 생리와 법칙이 무시되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꿈을 굳센 의지로 실현해 나가지 못하는 그자신에게 까닭이 있었던것이다.

이런 점들이 더 가꾸어 졌더라면 신인소설가의 작품이 보다 훌륭해졌으리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 오늘의 벅찬 투쟁은 과학자들의 역할을 떠나서 생각조차 할수 없다. 그런것만큼 우리 문학은 마땅히 과학자의 참된 전형을 더 품위 있고 더 깊이 있게 형상하는데 보다 열렬한 관심을 돌려야 하며 보다 훌륭한 열매를 풍만히 거두어야 한다.

부연하고 싶은것은 과학자형상주제의 작품들이 시대의 요구, 독자들의 기대에 비추어 볼 때 아직 만족스럽게 창작되지 못하고 있다는것이다.

《조선문학》의 갈피에서 오늘보다 더 기쁘고 만족스럽게 과학자의 모습을 보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무겁게 이 붓을 놓는다.

명언해설

《광활한 미래는 위대한 노력을 요구한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이 명언에는 위대한 노력만이 광활한 미래를 앞당겨 올수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주체형의 참다운 혁명가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몸 바칠 큰 뜻을 품고 광활한 미래를 앞당겨 나가는 선봉투사이다. 광활한 미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자신의 모든것을 바칠것을 요구한다. 광활한 미래는 오직 위대한 노력의 대가로만 앞당겨 올수 있다. 참된 혁명가는 자기는 오늘에 비록 락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래일에 우리의 후대들이 락을 보고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할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받아 안고 뛰고 또 뛰는 숭고한 인생관의 소유자이다.

남강마을사람들

김정곤

남강마을사람들

터밭에
첫물 오이가 달려도
강 건너 고지로
먼저 마음이 가는 사람들

집밖에
군화소리만 들려도
새벽잠 차고 일어 나
활- 앞문을 열어 놓는 사람들

기총탄에 날리는 조이스
마지막이삭까지 피 타게 털어
총알처럼 세여 군량미 더한
그 마음 대를 물리어
여기 사람들의 일본새가 되고

불기둥 뒤번지는 남강에
탄약을 넘기자고
가보인 농작도 깨어 배를 무어 띄운것이
세월 따라 풍습으로 된

여기 사람들의 인심이고

장군님 오르신 351고지
그 험한 참호길에 이랑들을 당겨 세우며
제초기 총대처럼 떠메고
병사들의 군가를 부르며 벌로 나가는 사람들

잔등을
구들바닥에 대고 있을 때에도
가슴은 늘
전호벽에 맞붙어 살아
고지와 한 맥박으로 뛰는 사람들

아 아 최전선고지
사관장의 점검명부예
그네들 이름은 올라 있지 않아도
대오끝에 우줄우줄 병글거리며
산악같이 서 있는 사람들
이네들이 남강마을사람이다

남강 네 이름을 부르면

남강
네 이름을 부르면
탄약을 이고 지고
물살 헤가르던
꼬리 긴 사민종대가
불줄기인듯 열풍거린다

고지에서 뿜는 총탄의 탄피가
마치도 남강에서 풀려 올라
사수의 약통실에 채워 지는듯
수염발 로인도
앞치마 두른 녀인도
여기서는 다
전선좌지의 부사수들

남강
네 이름을 부르면
왕청과 처창즈에 뛰던 원군줄기가

여기 물머리에 곧추 뻗어 와
물도 초목도 불이 되어
산고지로 용용 치달아 오르는듯

남강
네 얼음장밀에 손을 잠가도
피와 땀의 군복을 행구던
어머니들 터갈린 손마디가
불같이 이 손목 그려잡는다

아 장군님군대 아니면
땅도 가정도 운명도
파편에 부서진 갈토막처럼 지리밧혀
노예의 피눈물에 또다시 남강이 흐려 지리라고
목숨 같은 선군 원군으로 받들어
군대와 하나된 가슴들이
강밀에 고패치며 물살을 일구는듯

아 남강
네 이름 부르면
탄약을 동인 짐바가

이 잔등에도 파고 들어
고지로 향한 원군길로 씨엉씨엉
절로 걸음발이 커진다

남강풍경

강녘 이쪽에선
너인들 빨래방치 오르내리고
강녘 저쪽에선
군대들 왈랑왈랑 빨래감 행구고

《군대동무들! 빨래감을 이리 보내랴오-》
포물선처럼 넘어 오는 너인들의 꼬리 긴 소리
《아주먼네들! 이쪽으로 넘겨 보내시오》
탄도인듯 그어지는 남정들의 절찬 소리

넘어 가고 오는 소리
여울물이 주왈주왈 섞어 휘저어

잔돌우에 찰랑찰랑 어깨춤 추며
깎깎깎 애기같이 웃으며 가네

《빨래야 너성들 뭉이지요-》
또다시 날아 오는 청 고운 소리
《빨래도 우리가 다 말자는겁니다-아-》
받아서 되넘기는 병사들의 합창

와그르르 강녘에 싸올린 웃음축포
유유한 물우에 떨기떨기 떨어 저
남강이 흰이 들고 활짝 웃네
고지가 내려 보며 어깨 들썩이네

남강의 흐름

월비산을 오르실 때에도
차창너머 바라보신 남강
내리실 때에도 오래오래
장군님께서 시선을 멈추신 남강

달리는 야전차
전선고지를 떠나
지금은 마식령도 넘어 외진 산협을 달리는데
차창에 따라 오는 작은 실개울 하나...

정겨이 시선을 얹으시며
문득 생각나신듯 하시는 말씀
《금강산 샘줄기로 시작되어서
남강의 물이 그렇게도 맑은가》

장군님 심중에 깊이 안기어
야전차를 따라
멀리도 함께 왔구나
여기서도 못 잊어 남강을 떠올리시니...

《장군님, 군민의 맑은 정이 실려
남강이 맑은것 같습니다》
부관의 쟁쟁한 목소리에
장군님안광에 파문 짓는 미소

아 이름 없는 산간 실개울에도
고지를 비껴 실은 남강이
줄기줄기 어리여
장군님마음에 흐르고 있는가

《그래, 그래 남강은
포화도 흐리울수 없는
군민일치의 맑은 강이지
원군의 제일강이야》

남강! 남강은
선군세월에
이 나라 모든 강 이름 없는 개울까지
원군의 한 흐름으로 물결치게 하며
온 땅을 적시며 도도히 흐르고 있는것이다

속담이야기

《고양이목에 방울 달기》

어느날 쥐들이 모여 앉아 모의를 하였다.
《어떻게 하면 고양이의 피해를 막을수 있을
가?》 어떤 쥐 한마리가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매달면 그놈이 오는것
을 제격 알아 챌수 있겠다.》하고 갑작수를 내놓
았다.
《야, 정말 그럴것구나.》
모든 쥐들이 대가리를 까딱까딱하며 기뻐 하였

다.
그런데 이때 다른 한 쥐가 말하였다.
《좋은는 한데... 그럼 누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매달테냐?》
《?!》
《...》
도저히 이루어 질수 없는 어려운 일을 비유한
속담이다.

해방전 역사소설 《무영탑》과 작가 현진건

정진혁

현진건(1900~주체32(1943))은 해방전 우리 나라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적소설가의 한사람이다. 1900년 경상북도 대구시의 비교적 유족한 하급관리(그가 태어날 당시 그의 아버지는 우체국장으로 있었다.)의 가정에서 출생한 현진건은 독립운동의 길에 나섰다가 옥사한 둘째 형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반일정신이 강하였다고 한다. 현진건은 주체9(1920)년부터 작품을 창작하기 시작하였는데 창작활동의 초기기부터 우수한 비판적사실주의작품들을 써내었으며 1920년대 중엽을 거쳐 말엽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개성적특성과 창작적재능을 보여주는 단편소설들을 연이어 써내어 우리 나라 비판적사실주의문학사조의 형성발전에 이바지하였다.

현진건은 처녀작단편소설 《희생화》 [주체9(1920)년]에 이어 단편소설들인 《빈처》 [주체10(1921)년], 《술 권하는 사회》 [주체11(1922)년], 《피아노》 [주체11(1922)년], 《운수좋은 날》 [주체13(1924)년], 《고향》 [주체15(1926)년], 《사립정신병원장》 [주체15(1926)년], 《그의 얼굴》 [주체15(1926)년], 《신문지와 철창》 [주체18(1929)년] 등의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 발표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와 현진건은 주로 신문출판활동에 관여하면서 《동아일보》의 사회부장사업을 맡아보았다. 그러던중 주체25(1936)년 8월 25일 제11차 올림픽경기대회 마라손경기에서 우승한 손기정의 사진을 편집하면서 리길용, 리상범 등의 동료들과 함께 손기정의 가슴팍에서 일장기를 지워버린 《일장기말소사건》으로 하여 체포투옥되어 감옥살이를 하였다.

감옥에서 나온후 현진건은 다시 문학창작에 달라붙어 이후로는 장편력사소설창작에 모를 박았다.

그의 창작활동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일장기말소사건》으로 하여 《불은분자》의 딱지가 붙은데다가 진보적문학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더욱 심해져 종전처럼 사회적모순과 불합리를 정면으로 폭로비판하는 작품들을 써낼수 없었던 현실적조건에서 과거생활에 대한 형상화를 통하여 《작가의 의도하는 주제》를 살리려는 목적과 관련되어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인멸되었거나 파묻혀 있던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찾아내야 하며 작가와 작품을 우리 나라

문학사와 예술사발전의 견지에서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현진건의 력사소설작품으로서 《무영탑》 [주체27(1938)년], 《흑치상지》 (미완성)가 있다.

현진건의 력사소설작품들은 소재선택과 력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 인물형상창조 등에서 일련의 부족점과 제한성을 가지고 있으나 인민성과 현대성이 강하였고 식민지현실을 간접적으로나마 비판하고 민족의식과 반침략애국주의사상을 고취하였다.

현진건은 《〈력사소설〉이라면 오직 사실에만 립각하는것인줄 아는것이 보통의 관념인듯》하나 《소설이란 두자가 붙는 이상 철두철미 창작이》기에 《작가가 의도하는 주제를 그 시대를 통하여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것이 작가는 력사적사실보담도 더욱 중요한줄 믿는다》는 창작적견해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하여 《무영탑》과 같은 독특한 력사소설을 창작해낼수 있었다.

해방전 장편력사소설 《무영탑》은 경주 토함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불국사의 석가탑에 깃든 전설을 소재로 하고 있다.

작품은 8세기 중엽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뛰어난 재능, 고상한 료리와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소설의 줄거리는 이러하다.

석가탑과 다보탑을 세우기 위해 불국사로 불리워 온 부여의 석공 아사달은 특출한 재능과 정열을 가진 사람이었다. 아사달이 어려운 작업기간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생각은 오직 일을 빨리 끝내고 부여로 돌아가 사랑하는 안해 아사녀를 만나는것뿐이다.

하여 아사달은 식음을 전폐하고 불철주야로 일을 한다. 그러다가 끝내 탑밑에 쓰러지고 마는데 이손(이찬) 유종의 딸 주만(구슬아기)이 불국사로 올라 왔다가 이를 발견하고 구원한다.

주만은 아사달의 훌륭한 재능과 인품에 반하여 아사달을 사랑하게 된다. 그때 주만은 시중 금지의 아들의 지꿔은 청혼을 받고 있었다.

금지는 시중의 높은 벼슬에 있었고 임금의 종친이었으나 국선도파인 유종은 당학과로서 정견이 다른 금지의 집에 딸을 주고픈 생각이 꼬물도 없었고 또한 주만도 속물인 금지의 아들을 싫어하였다.

유종이 바라는 사위감은 《신라를 두어깨에 걸머 질만한 인물, 밀물처럼 밀려들어오는 고리타분한 당학을 한손으로 막아내고 지나치게 흥왕하는 불교를 한손으로 꺾으며 기울어가는 화랑도를

바로잡을 인물》이었다.

유종은 그런 인물인 이순 금량상의 동생 금경신에게 딸을 맡기려 한다.

금경신은 뛰어난 인물로서 나무랄데가 없었으나 아사달을 사모하는 주만은 금경신에게도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주만은 아사달에게 사랑하는 안해인 아사녀가 있다는것을 알고서도 마음을 변치 않고 아사달의 제자가 되어서라도 그와 한생을 같이하려고 한다.

한편 아사달의 안해인 아사녀는 남편이 경주로 간후 홀로 지내면서 자기의 미모에 눈독을 들이는 팽개 등의 무뢰배들의 작간으로 하여 고통을 겪다가 천리길을 걸어 남편을 찾아온다. 아사녀가 천신만고하여 찾아 왔으나 불국사의 중들은 아사달과 주만으로 하여 그 기간에 여러가지로 말썽이 많았었기에 건축도중에 너자를 만나면 부정을 탄다는 구실로 남편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

하여 아사녀는 탑이 완공되면 그림자못(영지)에 비쳐진다는 문지기중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날마다 그림자못을 찾아가 물만 들여다 본다.

그러다가 여기서 아사녀는 남편이 귀족집에 장가 들었다는 헛소문을 듣게 되고 투쟁이인 콩콩로파에게 속아 어느 대감의 첩으로 끌려갈변하게 까지 된다. 아사녀는 콩콩로파의 집에서 뛰쳐나와 아사달을 한번만이라도 만나보려고 불국사로 왔으나 절문앞에서 다시 잡히게 되자 모든것을 단념하고 그림자못에 몸을 던지고 만다.

그 시각 탑을 완성한 아사달은 아사녀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없이 그림자못에 달려가 미친듯이 아사녀를 찾다가 떠오른 아사녀의 환영을 못가의 바위에 새긴다.

이때 주만이 금지로부터 전후사연을 과장되게 듣고 분노한 아버지 유종에 의해 화형당할 위험에 처하여 함께 달아나자고 아사달을 찾아온다.

그러나 모든것을 단념하고 아사녀의 모습만을 바위에 새기고 있는 아사달에게는 주만의 애라는 말이 들리지도 않았고 달아나지 못한 주만역시 생을 포기하고 불붙는 장작더미에 스스로 뛰어들이었으나 금경신에 의해 구원된다.

조각을 다 완성한 아사달은 안해의 뒤를 따라 그림자못에 몸을 던지고 만다.

...

해방전 장편력사소설 《무영탑》은 봉건적현실 비판주제의 력사소설작품으로서 석공 아사달과 그의 안해 아사녀의 비극적운명을 통하여 사람들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는 봉건통치배들과 그와 한통속인 중들의 죄행을 폭로하고 그 어떤 압박과 유혹에도 지조를 굽히지 않고 한번 맺은 순결한 사랑을 지켜 가는 우리 인민들의 고결한 정신적미를 잘 보여주었다.

작품에서 아사달과 아사녀는 우리 민족의 빛나

는 슬기와 아름다운 정신의 소유자로, 고상한 도덕과 건전한 애정륜리의 체현자로 형상되어 있다.

아사달은 한갓 석공에 지나지 않지만 그의 지혜, 슬기, 창조력의 세계는 아득한 높이에 있으며 그의 열정 또한 무궁무진하다.

아사달의 형상을 통하여 작가는 우리 인민이 지닌 슬기와 재능, 창조력과 근면성을 찬양하면서 이 땅우에 솟아난 찬란한 문화는 근로하는 인민대중의 창조물이라는것임을 밝히었다.

그러나 작품에서 작가가 리상으로 내세운 인물은 주인공인 아사달도 아사녀도 주만도 아니였고 바로 금경신이었다.

금경신은 작품에서 매우 적게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경신은 훌륭한 인품과 넓은 도량, 뛰어난 무예를 지닌 인물로서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통가한다. 금경신은 사랑의 적수라고 할수 있는 아사달을 아무런 사심이 없이 위험에서 구원해 주며 끝끝내 자기를 버리고 아사달을 따르려 하는 주만도 불속에서 구출해 내고 마지막까지 사랑해 준다.

뿐만아니라 《당명황이 안록산에게 쫓기워 멀리 축나라 두메로 달아났으니 이때를 타서 대군을 거느리고 짓쳐 들어 갔으면 중원을 다 차지는 못할망정 고구려옛땅이야 다시 찾아오지 못하겠나... 자네는 아직도 삼한통일 이전의 생각을 가지고 까닭없는 적개심을 품고 있네그려. 그때 서로 싸운것도 생각해보면 뼈가 저릴 노릇인데 지금도 그런 감정을 품고 있어서야 될 말인가... 앞으로 큰 일을 하려면 그네들과 손을 마주잡고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될것 아닌가...》하는 금경신의 말을 통해 그가 고구려의 옛땅을 수복하여 민족의 주권을 완전히 되찾고 민족통일을 주장하는 인물로 형상되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신라왕족인 금경신의 형상에는 작가의 부르조아적미학관과 력사관이 작용하였다고 할수 있지만 어쨌든 금경신의 형상을 통하여 작품의 격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볼수 있다.

이와 반면에 당나라것이라면 무엇이든 좋다고 하고 당나라에는 덮어놓고 사대를 하는 시종 급지와 미혹하면서도 겁 많고 허영심이 강한 그의 아들 그리고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아사녀를 첩으로 끌어가려 하는 어느 한 대관의 형상을 통하여 8세기 중엽 신라봉건통치배들의 반동성과 부패성을 일정하게 폭로하였다.

작품은 짜인 구성과 생동한 묘사, 현대감이 나는 표현수법들의 다양한 활용, 문체의 속도감을 보장함으로써 력사소설의 품격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특히 작품의 맨 앞부분에 있는 4월 초파일 놀이준비에 대한 묘사는 생동하고 자상하게 그려짐으로써 독자들에게 민속전통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과 함께 작품의 형상을 보다 기쁨지게 하였다.

작품은 력사상에 잘 알려 진 명인이 아닌 이름 없는 평범한 석공을 주인공으로 형상하고 사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짝막한 전설을 소재로 취한것으로 하여 해방전 력사소설작품들속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방전 장편력사소설 《무영탑》은 작중 인물들인 금경신, 금량상의 관계를 형제지간으로 한것(실지로는 금경신은 금량상의 손자별이 됨)을 비롯하여 력사와 잘 맞지 않게 꾸며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삼각련애를 기본으로 하여 이야기를 전개한것 등의 결함들도 가지고 있다. 또한 작품의 마감부에서 주인공들의 비극적인 운명에서 초래되는 눈물과 비애의 감정을 《거룩한》 부

처님의 영상에 용해시켜 모순적이며 얼토당토한 《환희》의 감정을 불러오려고 함으로써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약화시킨 결함도 나타났다.

현진건은 1922년 이후 부르조아문예인집단인 《백조》의 동인으로 있으면서 문학창작을 한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사상을 직접 받아들이지는 못했으나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일체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민족적지조를 굳게 지킨 애국적작가들중의 한사람이었다.

투철한 반일감정과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현진건은 창작활동의 마지막시기에 《무영탑》과 같은 가치 있는 력사소설을 창작한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력사소설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되었다.

탄광마을처녀들의 속삭임

김윤결

순아, 옥아

내물처럼 재잘대지 말고 말 좀 들어봐

심장이 왜 이다지도 떨가

아이 부끄러워

글썸 눈빛이 불같은 제대군인굴진공

그 동무의 고백을 들었어

애들두, 그저 좋아 떠들긴

심중히 마저 듣고 웃으렴

그래 난 용감히도 물었지뭐

저의 무엇을 사랑하는가고...

그랬더니 아니 글썸

나의 고집을 사랑한대

힘든 일 나서면

다른 사람들 다 밀쳐내고

저만 선참에 서러는 그 웅고집

그리고 나의 목소리를 사랑한대

모두가 지쳐 말없을 때

난생처음 스스로 부른 노래

오락회때마다 숨어버리던

맑지 못한 내 목소리를 말야

애들두 참, 다그쳐대긴

음-그담엔

나의 욕심을 제일 사랑한다나

총각들 결눈길 한번없이

처녀시절에 더 많은 일하려

바빠 뛰는 그 욕심...

사실 나도 남몰래 엇보곤 했는데 뭐!

애들아, 웃지 말아

너희들처럼 내 웃으니

모두 진정이라며

처음 탄벽앞에 서듯

그 동무 심각해지지 않아

그리곤... 아이참 난 몰라

애들아 그리도 우습니?

하긴 나도 우스워

사랑은 아마 웃음으로 빛은것 같아

허나 그 동무앞에선 부끄러워

다신 웃지 못할거야

하지만 애들아 절대비밀이야!

나는 봄을 부른다

최남순

1

나뭇기는 나의 단발머리우로
꿈같이 펼쳐지는 맑은 봄하늘가에
또다시 밀려온다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봄을 사랑하는
이 나라 처녀들에게 묻노니
용서할수 있으랴
우리의 봄을 더럽히려는 승냥이 미제를

봄은 처녀들의 계절이라 했건만
돌이켜보라
침략의 흉포한 갈구리에
찢겨진 봄은 그 얼마
아름다운것만큼 연약한것이
봄의 숙명이었더냐

장장 반세기나마
내 조국 절반땅 어여쁜 꽃잎들을
승냥이는 도락삼아
구겨놓고 짓밟았다
더럽히고 모욕했다
그 원한의 넋들이 우리를 부르거니

양지에 파릇이 돌아나는
새싹을 보아도
양키의 무한케도에 짓이겨진
미선이와 효순이의 파아란 넋이
날창처럼 솟아오르는것 같지 않느냐
사룩사룩 봄비내려도
양키들의 색욕에
목숨같은 정조를 앗기운 원혼들이
죽어서도 수치감에
소리죽여 우는것 같지 않느냐

오, 이제
조선의 순결한 봄을
모조리 값아먹으려
핵이발을 드러낸 미제

이 땅에 꽃 한송이라도
승냥이 털손에 꺾이운다면
봄을 어찌
처녀들의 계절이라 하라
력사의 교훈이 우뢰마냥 울고 있거니
증오로 불타는 심장이 없이는
오늘의 준엄한 봄을 맞을수 없다

2

봄이여, 봄이여,
너는 어찌면 우리를 꼭 닮았느냐

한줄기 봄바람에조차
봉긋이 부풀어오르는 너의 꽃망울은
래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향기처럼 가슴에 묻고 사는 이 나라 처녀들의
모습
아지랑이 피어나는 대지우에
생각에 잠긴듯 고개숙인 너의 버들은
이 땅과 속삭임도 많은 우리네 마음

허나
애모뿐 너의 모습우에
지금 침침한 그늘이 덮였다
미제의 복침야망에 등지를 튼
《독수리》의 검은 날개가
한낮에도 그 몇번
저 상공에 유령처럼 떠돌거니

우리는 이 봄날
종다리의 노래가 아니라
수도의 지붕들을 겨누고 발동을 건
적폭격기의 동음을 듣는다
전야의 발이랑을 번지면서도
이 땅에 씨앗대신 목숨을 묻을지언정
양키의 기총탄 한알이라도 용서치 않을
우리의 존엄을 새긴다

오,
제국주의가 있는 한
우리 인생의 봄
결코 아름다울수 없거늘

봄이여, 봄이여,
너 진정 아름다우려거든
우리의 증오를 품으라

너의 꽃잎은 꽃잎마다
봉오리를 팡팡 터쳐
불길이 되라, 침략의 날개죽지를 활활 태우라
수수천년 숙였던 고개를 들어
너 버들이여,
길길이 머리채를 푸른 칼날로 버려
무자비하게 쳐갈기라
전쟁열에 피거품을 문 승냥이의 숨통을

3

세월이 안겨준 봄이었다면
내 이토록 사랑하지도 않았으리
백두령장이 야전복자락으로 감싸안아
뜨겁게 더웁혀준 이 땅이 내 삶의 터전이고
총대의 숲으로 시련의 눈바람을 막아
한떨기 한떨기 피워준 꽃송이가 나의 청춘이기에
우리는 이 봄을
그리도 열렬히 사랑하는것이다

오, 그래서
이 봄날
신군의 총대를 믿어 피여올리는
꽃잎같은 너의 웃음, 나의 웃음이
지지 않을 이 땅의 아지랑이고
가장 아름다운 봄노래이기에

조국이며, 조국이며
준엄한 이 시각
병사만이 결사각오의 총알을 채운다 하라
그대의 이름없는 이 딸도
총대의 방아쇠에
사랑과 운명을 다 맡겼다

우화

이제 결전의 시각이 온다면
나 또한 총구를 떠난 총알마냥 날아가리라
종다리노래 전선행 렬차에 싣고
불비 쏟아지는 고지에서도
단발머리 기발인양 날리며
사나이들과 함께 달리려니

바쳐야 할 순간엔
《**김정일**장군 만세-》를
생의 여운으로 남기고
주저없이 한몸 내던질
오, 나는 봄을 사랑해온
이 땅의 한떨기 꽃송이

원췌가 어찌 우리 봄을 빼앗을수 있으랴
선군령장이 피운 꽃은
아름다운것만큼 억세다
위대한 태양이 있어
영원히 평화로운 조국의 봄을 부르며
장군님의 딸들은
귀중한 인생의 봄도 웃으며 바치리라

미국코

-미국의 녀인들에게-

문영철

이 일은 50년전의 일
미국의 썸슨이라는 사나이
조선전쟁에서 코를 잃고 왔네
마중나왔던 메리라는 약혼녀
그만 울상이 되어버렸네

《썸슨! 코... 코는
어떻게 하고?》
메리 너무 아팠다하여
뒤말을 못 잇는데
썸슨 입만 꺾꺾 다시고 하는 소리

《섬섬해 마오, 메리
코없이도 나는 당신을
얼마든지 사랑할수 있소》

그러자 메리
노란 머리 흔들며 울부짖었네
《아니예요. 그래도 난... 난
알프스산맥같은 당신의 코에
반했었어요
코없는 썸슨은 필요없어요
당장 붙여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는 hing- 달아나고 말았네

한동안 얼이 빠져 멍청히 섰던 썸슨
그만 분통이 터진듯
두주먹 내흔들었네

《야, 이 멍추같은 녀아
조선전쟁에서 내 코만 부러진줄 알아?
미국의 코도 부러졌다 미국의 코도!
네 년이 날 버리고 간다고
빼뜰어진 코라도 차례질줄 알아?
천만에! 이제부터 미국녀자들은
설사 코있는 사대와 산다해도
코없는 사대와 사는거나 같애!》

×

미국의 녀인들이여
50년전 그날의 교훈 망각하고
당신네 사나이들 또다시 조선전쟁에
떠나보낸다면
이번엔 코대가 아니라 목대가 부러지리라
마음대로 뜯어붙일수도 없는 목대가

가곡 《아름다운 물방아간의 처녀》에 깃든 이야기

1823년 나무가지마다에 잎이 트고 풀잎들이 파랗게 물들어 가던 부활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 해질녘이었다.

슈베르트는 전부터 가까이 지내고 있는 가수 란드할치카를 찾아 그의 집으로 갔다. 헌데 공교롭게도 그는 외출하고 집에 없었다.

슈베르트는 책을 읽으면서 그를 기다리려고 서가에서 책 한권을 꺼내어 펼쳐보았다. 웰헬름 물러(1794~1827년)의 시집이었다. 그속에는 슈베르트의 마음을 잡아 끄는 아름다운 가사 한편이 들어 있었다.

...어느 봄날 방랑의 길을 떠난 한 젊은이가 바위썸으로 흘러내리는 시내물을 따라 내려오다가 《쿵- 쿵-》 방아를 짙는 물방아간에 이른다. 이 물방아간에 고용되어 일하는 파정에 방아간집의 아름다운 딸에게 반한 젊은이는 그 처녀에 대한 사랑에 불탄다.

그는 처녀의 호감을 사기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여 주인의 눈에 들게 된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처녀는 총각의 이러한 애끓는 심정을 몰라준다. 처녀에 대한 사랑의 번뇌속에서 고민하던 총각은 세상을 비판하고 강물에 몸을 던진다...

슈베르트는 이 시를 보고 악상이 번개처럼 떠올라 시집을 가지고 부랴부랴 돌아왔다.

슈베르트의 하숙집에는 유명한 가수 미하엘 호굴이 와 있었다. 슈베르트보다 18년이나 연장자인 그는 슈베르트의 일생의 벗이었다.

《호굴씨, 이 가사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슈베르트는 방안에 들어서기 바쁘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 이건 물러의 가사가 아닌가?》

《난 모를 사람인데요.》

《시에 재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직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해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네.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사람이지.》

《참 시가 훌륭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사를 쓴 시인이 있다니. 물러씨야말로 정말 재능 있는 시인입니다.》

슈베르트는 진귀한 보물이라도 얻은것처럼 기쁜듯 눈을 빛내이며 저으기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였다.

슈베르트는 책상에 마주 앉아 펜을 들고 오선

지를 메꾸어 나갔다. 얼마후 《자, 다되었습니다.》하고 소리치면서 펜을 내던졌다.

《아니, 벌써?!...》

《호굴씨, 가사가 명가사이다보니 악상이 번개처럼 떠오르는군요. 모든 가사가 이처럼 명가사라면야 하루에도 수십곡은 문제없겠습니다. 정말 가사가 마음에 듭니다.》

《물러의 가사가 자네의 마음에 든다니 나도 기쁘군그래.》

호굴은 완성된 악보를 들고 크지 않은 목소리로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나서 걱정에 넘쳐 말하였다.

《이건 걸작이다. 슈베르트, 자네가 지은 곡이 물러의 가사를 아주 잘 살려주었군그래.》

《아닙니다. 가사가 좋으니 곡도 좋아보이는거겠지요. 가사가 마음에 드니 악상이 샘솟듯 솟아나고 나도 모르게 곡이 잘된것 같습니다.》

이 가사야말로 정말 명가사입니다.》

《슈베르트, 자네가 피아노를 치게. 내가 다시 한번 불러 보겠네.》

내 심장이 물방아간의 매돌밑에서

한알의 보리알처럼 뿔아질것도 모르고

...

수정처럼 맑고 아름다운 선물이였다.

《이 대목이 얼마나 좋은가. 물론 가사도 좋지만 곡은 또 얼마나 좋은가. 자네야말로 순식간에 명곡을 만들어 내는 천재일세.》

《호굴씨, 너무 과찬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물러씨를 격찬하십시오. 이 곡을 낭게 한 명시인을 말입니다.》

《그러니 물러의 가사가 명곡을 낳았던 말이 지.》

《그럼요. 그렇구말구요. 훌륭한 가사가 있어야. 좋은 곡이 나오는 법이지요. 나의 <들장미>나 <마왕>을 사람들이 애창하는것은 피테가 쓴 그 시들이 명시이기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물러와 가사가 좋으니 곡도 좋아진것입니다.》

《겸손한 소릴세. 자네의 노래선물은 물러의 가사에 못지 않게 훌륭하단 말일세. 곡이 좋으니가 가사가 더 돋보인단 말이네.》

《가사가 좋으니 곡이 돋보이는거겠지요.》

그 곡이 바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명가곡 《아름다운 물방아간의 처녀》이다.

《슈베르트, 물러를 찾아가서 이 곡을 들려주자구. 그도 이 노래를 들으면 여간만 기뻐하지 않을걸세.》

《그렇가요.》

《암, 여부가 있나.》

다음날 저녁무렵 슈베르트는 호굴과 함께 마차를 타고 물러를 찾아갔다.

남들은 부활절을 앞두고 벌써부터 명절기분에 들떠 있는 이날도 물러는 창가림을 드리운 어둡컴컴한 방안에 틀어박혀 창백한 얼굴을 하고 우울한 심정으로 책을 읽고 있었다.

호굴의 소개로 슈베르트와 인사를 나눈 물러는 《아름다운 물방아간의 처녀》의 악보를 손에 들고 잠자코 방구석에 놓여 있는 피아노로 가서 침울한 표정으로 전주를 쳤다.

호굴이 그에 맞춰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자 물러의 침울했던 눈이 광채를 띠기 시작하였다.

노래가 끝나자 물러는 《음-》하고 신음소리 비슷한 소리를 내더니 성급히 결상에서 일어나 두팔로 슈베르트의 어깨를 붙잡았다.

《슈베르트, 자네가 어찌 이럴수 있나!》

와들 놀란 슈베르트는 어리둥절하여 자기를 쓰아 보는 물러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곡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네.》

물러는 한마디 내뱉고는 팔짱을 끼고 방안을 서성거렸다.

슈베르트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견딜수 없어 돌아가자고 호굴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겼다.

《바보 같으니라구. 슈베르트, 그건 저 사람이 감동되었을때 하는 버릇이라네. 어찌는가 좀 더 두고 보자구.》

물러는 주춤 걸음을 멈추고 희색이 만면하여 느닷없이 큰소리로 웃어댔다.

《하하하, 참말로 마음에 들지 않네... 슈베르트, 자네에게 머리를 숙이네.》

나의 가사는 자네덕분에 비로소 생생한 생명력을 갖게 되었네. 자네야말로 작곡의 천재일세.》

《물러씨!》

《그저 웰헬름이라고 부르게, 프란츠!》

《엘헬름!》

원래 내성적인 성격인 프란츠 슈베르트는 부끄러운 내색을 하며 어색하게 불렀다.

《자네의 곡이 나의 가사를 빛이 나게 했네. 나

의 가사를 살려주었던 말일세.》

물러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감동을 금치 못해 하였다.

《아니, 자네의 가사가 나의 곡을 빛이 나게 한 걸세. 자네 가사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런 곡을 짓지 못했을거네. 나는 많은 곡을 지었지만 결국은 훌륭한 가사에서 훌륭한 곡이 나오더라 말일세.》

《그러니 훌륭한 가사에서 훌륭한 곡이 태어난단 말이지.》 호굴이 끼어들었다.

《여부가 있습니까. 좋은 가사가 있어야 좋은 곡이 나오는 법이지요. 사람들이 명곡이라고 하는 피테의 <끝없는 사랑>이나 시루델의 <아베마리아> 같은 내가 작곡한 노래들을 보면 가사자체가 명가사이거든요. 이런 명가사에 맞다면 저절로 훌륭한 곡상이 떠오른단 말입니다.》

《하긴 그래. 하지만 명가사를 가지고 지은 명곡도 나 같은 가수에 의해서 그 가치가 빛나거든. 자네들이 명가사요, 명곡이요 해도 우리 가수들이 없어 보지. 명가사와 명곡을 누가 전달하겠나.》

시인선생과 작곡가선생, 나 같은 가수의 몫도 잊지 말라구.》

호굴이 그들을 둘러보며 호탕하게 웃었다.

《참, 그 말이 옳습니다. 명곡이란 명시인과 명작곡가, 명가수가 창조한단 말입니다.》

호굴씨, 섭섭해 하지 마십시오. 호굴씨와 같은 명가수의 역할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물러는 생기에 넘쳐 호굴의 말을 긍정했다.

《내가 그래도 작곡가로 사람들에게 알려 지게 된것은 전적으로 피테의 <마왕>을 호굴씨와 같은 명가수가 멋들어지게 불러주었기때문입니다. 명가수의 지위를 낮추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겁니다.》

《고마우이, 자네들이 명가사와 명곡을 지으라구. 그러면 내가 멋들어지게 노래 불러주지. 자네들의 이름을 빛내주겠단 말이네.》

《감사하네. 앞으로 나는 슈베르트군에게 더 많은 가사를 바치겠네.》

《고마우이, 웰헬름. 나는 자네의 가사에 나의 곡을 바치겠네.》

《여보게들, 나는 자네들을 위해 내 노래를 바치겠네.》

이날밤 이들 셋은 밤늦도록 시와 음악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음악계에서는 《아름다운 물방아간의 처녀》의 곡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감정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 가곡은 아무런 평가도 받지 못하였다.

당시 원에서는 이탈리아의 화려한 로씨니의 음악을 비롯한 허울 좋은 외국음악에 현혹되어 너무나도 내성적이며 도이첼란트적인 이 가곡을 이해할수 없었던것이다. 다만 몇몇 안되는 저명한 음악가들과 슈베르트의 친구들만이 이 곡의 참된 가치를 이해해주고 있었을뿐이었다.

하지만 이 가곡은 시간이 감에 따라 대중들속에서 널리 애창되었다. 그것은 물론 곡이 좋은데도 있었지만 도이첼란트사람들이 좋아하는 민요풍의 음악적리듬을 살린 가사가 또한 마음에 들었기때문이다.

슈베르트는 이 곡으로 가요작곡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때까지 문단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던 물러는 명가사를 쓴 재능있는 시인으로 일약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아름다운 물방아간의 처녀》의 창작을 계기로 시인 물러와 작곡가 슈베르트는 벗으로 되었으며 그들의 깊고 두터운 우정은 짧은 생애를 마치는 마지막순간까지 계속되었다.

물러는 그후 슈베르트를 위해 도이첼란트민요에 바탕을 둔 풍만한 정서와 음악성이 강한 수많은 주옥 같은 가사들을 창작하였다. 그의 가사에 기초하여 슈베르트가 작곡한 곡은 명곡이 되어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널리 불리워 졌다.

서른살때 슈베르트는 물러가 쓴 가사를 가지고 작곡한 가곡집 《겨울나그네》를 내놓았다. 《보리수》, 《봄의 꿈》, 《사랑의 사도》, 《흐르는 눈물》, 《우편마차》, 《골목길의 음악가》를 비롯한 24편의 곡이 들어 있는 이 가곡집은 슈베르트가 곡의 대표작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 졌다. 이 가곡집으로 슈베르트는 당시 유럽에서 《가곡의 왕》으로 불리웠고 물러는 재능 있는 가사시인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1827년 가을 어느 날 슈베르트는 호굴과 함께 림종을 앞두고 침상에 누워 있는 물러에게 병문안을 갔다.

창백한 낮빛으로 죽은듯이 누워 있는 물러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얼굴을 돌리고 눈물을 닦았다.

길가의 표식판이 내앞에 서 있네
나의 앞길 가로 막고 못박힌듯 서 있네
내 오직 한가닥 길로만 걸어가야 하거니
그 길을 되돌아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네

가곡집 《겨울나그네》에 수록된 자기의 가사

《길가의 표식판》을 속으로 외우는 물러의 얼굴에서는 구슬픈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시고 있었다.

물러는 혼미한 의식속에서도 자기의 손목을 잡아 주는 사람이 슈베르트임을 알아보았다. 가느다란 목소리로 《슈베르트, 나의 이름을 빛내준 프란츠 슈베르트, 고맙네.》하고 맥없이 말하는 물러의 얼굴에는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만이 지을수 있는 웃음이 어려 있었다.

《아닐세. 물러, 자네의 명가사가 나의 이름을 빛내여 주었네.》

물러의 손을 부여잡은 슈베르트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또 닦았다.

1827년 9월 30일 슈베르트를 위해 태어났다고 하는 도이첼란트와 유명한 낭만주의시인 웰헬름 물러는 서른세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로부터 한해가 지난 1828년 11월 19일 슈베르트는 장질부사로 친구들의 문병도 금지된 병상에서 사랑하는 형님과 한때는 미워도 하였던 이붓어머니의 간호를 받고 있었다.

고열로 몽롱해진 의식속에서 헛소리를 치던 슈베르트는 고통스럽게 웅얼었다.

《애원합니다. 나를 땅속에 파묻으려 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상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프란츠야, 진정해라. 어머니가 여기 있다.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페르난드형님도... 너는 지금 방안의 침대에 누워 있지 않니.》

《정신 차려라, 프란츠야. 형이 여기 있다. 네 머리맡에 말이다.》

허나 슈베르트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잠꼬대 마냥 소리쳤다.

《거짓말, 거짓말이다! 베토벤이 여기 없지 않니?물러도 없지 않니?!》

슈베르트는 고통속에 몸부림치며 안간힘을 다하여 벽을 때렸다.

《여기다, 여기가 나의 마지막이다. 나의 <길>이다.》

비통하게 이렇게 외이고난 슈베르트는 스스로 눈을 감았다. 이때 그의 나이 서른한살이었다.

명가사와 명곡으로 이름을 떨친 두 예술가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으나 그들의 이름은 훌륭한 가사와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영원히 살아 있는것이다.

리문성